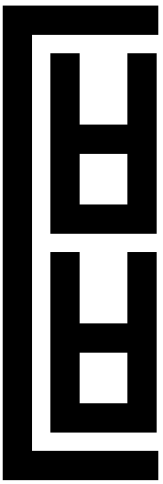


海



퍼퍼다

Outdoor & Culture Magazine BOBODAM
Volume 11, Winter 2013



남



〈보보담〉 2013년 겨울 호 (통권 11호)
Outdoor & Culture Magazine BOBODAM
Volume 11, Winter 2013

등록번호 용산바 00030
등록일자 2011년 6월 27일
ISSN 2234-1102

주간: 구자열
자문: 김윤수, 김화성, 안대희, 최성우
총괄: 김연재
실무: 손호영, 전유니, 김지은

도움주신 분들:
김영일 (악당이반 대표)
하재홍 (베트남어·통번역)
임윤혁 (자유기고가)

디자인 : 헤이조 (www.hyjoe.net)
사진 : 박정훈, 구범석, 문성진
인쇄 : 으뜸인쇄 (02-2278-6387)

용지: 삼원 리브스디자인 250g/m² (표지),
백모조 100g/m², 스노우화이트 100g/m²,
중질만화 80g/m²

발행처 : (주)LS네트웍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발행인: 김승동
발행일: 2014년 1월 27일

구독 신청 : www.lsnetworks.com
[사이버홍보실]·[보보담]·[구독 신청]

LS Networks

〈보보담〉은 LS네트웍스에서 발행하는 멤버십 매거진으로 연 4회 발행됩니다.

지난 호에 대한 독자의견

〈보보담〉은 왠지 기다려지는 편지 같습니다.
문득 찾아온 옛 친구 같기도 하고, 문명에
지친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정신적 위안을
주는 길그릇 같기도 하고… 어쨌면 〈보보담〉을
읽으며 내면의 고향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글과 사진들이 〈보보담〉을
통해 보존되고 전달될 수 있는 데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박세진, 자영업)

〈보보담〉이 매력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인물’에 주목한다는 점입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토대로 거주민들의 삶을 짚어나가는
‘토박이 인터뷰’가 특히 마음에 듭니다. 세대 간
계층 간 소통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정교함도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이선호, 공무원)

표준어에 비해 사투리는 시골 사람들이나
쓰는 투박하고 촌스러운 말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보니 요즘은 지방에 살면서도
사투리보다는 표준어를 쓰려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어휘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사투리는 널리 쓰이고
지켜져야 할, 소중한 정다운 우리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보담〉에서 “문디이야,
튀리카노, 새빠지게, 퍼떡” 같은, 제가 사는
곳에서 늘 쓰고 있는 경상도 사투리를 보니
정답고 좋네요. 읽을거리가 많은 잡지라
텔레비전을 끄고 한동안 열심히 읽었습니다.
(송지영, 회사원)

〈보보담〉 가을 호 잘 읽었습니다. 이번 호를
통해 “대구”라는 도시의 숨겨진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었습니다. 대구의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구석구석을 담은 생생한 사진이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보고 있으니 그동안
오해하며 봐왔던 대구라는 도시에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드네요. 무르익은 가을의 낭만을
책상에 앉아서나마 만끽하게 해준 〈보보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조향원, 회사원)

〈보보담〉을 잘 읽고 있고, 알찬 내용에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 대구 편에서는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을 호
114쪽에 ‘국보 제1호 송례문, 보물 제1호
남대문’이라는 오류가 있네요. 보물 제1호는
홍인지문(동대문)이며, 송례문과 남대문은
같은 표현이지요.
(박석호, 회사원)

박석호 님, 말씀하신 대로 가을 호
114쪽의 ‘보물 제1호 남대문’은
‘보물 제1호 홍인지문(동대문)’으로
수정하는 게 맞습니다. 좀더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홍자, 회사원)

독자 의견을 보내 주세요

〈보보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LS네트웍스에서
운영하는 아웃도어 브랜드(프로스펙스, 몽벨,
잭울프스킨, 스케처스)의 제품을 선물로
보내 드립니다.



독자의견은
당사 홈페이지(www.lsnetworks.com)
[사이버홍보실]·[보보담]·[독자의견]
코너에 남겨 주세요.

Editor’s Note

불안하지 않은 삶은 없으므로

글·편집부

열한 번 켜 〈보보담〉의 좌표는 한반도 땅끝, 혹은 바다가 끝나고
육지가 시작하는 곳, 해남으로 맞췄습니다. 해남에서 서울까지는
천릿길입니다. 거기서 다시 함경북도 온성까지 이천 리, 그렇게
해서 ‘삼천리 금수강산’ 이 된다고 합니다.

끝자락을 바다에 담그고 늘 얼마쯤 젖어 있는 해남의
논밭에서, 또 갯가며 바다에서 평생 ‘징허게’ 일하며 살아온
어르신들은 몸이 성한 데가 없습니다. 삼산면 최 씨 할머니도,
화산면 박 씨 할머니도, 내동 갯가 어르신도, 또 북평면 오 씨
할머니도 류머티즘을 데리고 사십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세상을
버리면, 해남 들녘 가장 양지바른 곳마다 봉긋봉긋 솟아 있는
조상님 무덤 옆으로 돌아가십니다.

매일 옛 사람들의 무덤 위로 해가 뜨고 노을 지는 풍경을
마주하며 사는 그분들을 만나면서, 많이 얻어먹고 많이
배웠습니다. 송호리 용 사장님 배를 타고 나간 해남 앞바다에선
육지에서 점점이 풍경으로만 보이던 전복 양식장의 위용을
마주했고, 그제야 전복 ‘밭’이니 바다 ‘농사’니 하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뱃전에서 봉어빵만한 전복을 받아먹고 있자니
자연산 전복 운운하던 소리도 쪽 들어갔습니다. 해남장터에선
매생이와 감태가 도통 구별이 안 돼서 난전 아집께 여췌는데,
질문이 한심했나 봅니다. “어서 왔소? 서울? 잉… 추운디 뭇하러
여그까지 왔스까…” 하시더니 대답 대신 화로에 막 구운
오징어를 쪽 찢어 주십니다. “다 팔고 나 목을라고 두 개 남겼제.
맛이 어땡소?” 맛이, 포근했습니다. 화산면 해창리에선 취재 따위
도통 관심도 없고 막걸리 꺼내 술상부터 차리며 “술 빔어 삼분의
일은 내가 먹고, 삼분의 일은 나뉘 먹고, 나머지 팔니다.” 하는
양조장 주인장을 만났고, 북일면에선 “도시 사람들은 미련해서
철을 모른당께. 해남 배추가 좋다니까 암 때나 배추 보내라고
난리여. 여그 배추는 겨울 나고 뽑는 월동 배추가 진짜제.” 하는
농군도 만났습니다. 그렇게 철 따라 물 때 따라 또 마음 따라
살아온 이들을 붙들고 뒷 좀 만들어볼 거라며 이것저것 캐묻는
일은 종종 싱겁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왕 나선 길 계속 남쪽으로 튀어서, 새해 첫날은 메콩 델타의
수상가옥에서 보냈습니다. “취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못한다.”가
손님 접대 제1원칙이라는 베트남 최남단 까마우의 바쁘영 뉘.
전날 밤 수상가옥 기둥에 통발을 걸어 놓으면 다음날 아침
식량인 물고기가 가득 잡히는 곳입니다. 베트남전쟁 당시
게릴라로 활동하며 이 마을 사람들 누구도 전쟁 피해를 입지
않게 지켰다는 일흔 살의 탄 할아버지.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강에서 잡은 건 이 술이랑 같이 먹어야 배가 안 아파.” 딱 한마디
하시고는 낮부터 자정까지 킁킁하게 앉아 잔 비우기가 무섭게
술과 음식을 권했습니다. 많이 버는 삶보다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삶이 당연히 더 중요한 그들은 늙어서의 삶이 불안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불안한 삶… 불안하지 않은 삶은 어떤 건가요?”
하고 되물습니다. 까마우 이야기를 원고지 100매 가득 풀어준
방현석 선생의 말처럼, 그곳에서 우리는 ‘미발전의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돌아와서도 종종, 해남 들녘에 봉긋하게 솟은 무덤들과 진한
남도 사투리와, 해먹에 몸을 맡기고 고요하게 리듬을 타던
탄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불안하지 않은 삶을 바라는 대신
불안한 중에서도 아름다움을 거둬들이는 일에 대해 생각하며,
2014년을 시작합니다. 謹賀新年! ㅁ



005



028



045



078

Site 1

해남海南

Image of Village

해남군 북일면 흥촌리
돼지 잡고 홍어 썰던 날
글·임윤혁, 사진·박정훈

005

Direction

나만의 길을 걸을 수 없는 지요
글·정진홍

017

Reading the Village

땅끝에서 열리다, 새봄!
글·임윤혁, 사진·박정훈, 구범석, 스타일링·김정민

028

Meeting People

도박이 인터뷰
글·남인희, 사진·구범석

045

Mountain Temple

꽃이 저야 열매를 맺는다
해남미황사
글·이산하, 사진·구범석

060

Local Food

돌아서니 그 맛, 혀에 삼삼하다
글·박찬일, 사진·구범석

070

Going to Market

출렁이는 바닷결, 갯결
해남장과 남창장
글·최성우, 사진·구범석, 그림·오혜진

078

Walking with a Shot

홀로 자유를 즐기기 좋은 땅
글·정성일

092

BOBODAM Choice

남은 겨울도
따뜻하게, 밝게, 가볍게!
글·편집부, 사진·구범석

097

Culture

1 실컷 터트리고 달랜 다음
미련없이 떠나게 해주는 소리,
해남씻김굿
글·박홍주, 사진 제공·악당이반

101

2 수직의 세상에서
수평의 노래를 듣다
글·김우성

112

3 초의연구가 박동춘에게 듣는
차 이야기
글·강신재, 사진·구범석

116



128



146



169



190

Way Back in the 18^c

이하곤, 스치듯 해남과 조우하다
글·안대희, 사진·구범석

122

Culture

해남 윤 씨 가의 거문고 이야기
글·김은자, 사진·구범석

128

Site 2

까마우 Cà Mau

Walking with a Shot

베트남, 미완성의 내러티브
글·정성일

142

Storytelling Vietnam

베트남 이야기가
이야기하는 베트남
글·방현석, 그림·최진영

146

Essay : Cà Mau

과도를 가르는 땅 까마우
글·웅옌옥뜨, 사진·박정훈

166

Walk and Talk

순간, 그들의 등에서
날개가 퍼졌다
글·방현석, 사진·박정훈

188

Information

호치민에서 까마우까지
글·하재홍, 사진·박정훈

213

Column

어린 것들 잇몸에 우우우
돈는 젖니처럼, 갯 난 송아지
물끄러미 세상을 바라보듯
글·김화성

216

LS네트웍스는 LS용산타워
2층에 앤티크 자전거 전시 공간
〈두바퀴 Bicycle Gallery〉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의
원형인 ‘드라이지네’, 최초의 페달
자전거인 ‘미쇼 벨로시페드’ 등
20여 점의 앤티크 자전거와 관련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으며
관람은 무료입니다.

관람 안내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길 LS용산타워 2층
교통: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월~금)
문의: 02-799-7169



해남군
북일면
흥촌리

돼지
잡고
홍어
썰던
날

글·임윤희(자유기고가)
사진·박정훈



전라남도 해남군 북일면
홍촌리 삼성 부락. 1만 평
녹차 밭 설아다원 마당
한 칸에 솥이 걸리고 불판
옆으론 땀나무가 쌓이는 등
이른 아침부터 잔치 준비가
분주하다. 아랫마을 김센네
손주 시집 장가가는 날도
아니고, 윗마을 박영감 칠순
팔순 생신도 아니건만, 돼지
잡고 홍어 썰어가며 한바탕
왁자지껄 잔치판을 벌일
참이다.

“아, 거시기 꼭 무신
날이라야 잔치를 허는가.
촌서는 원래 무짓날이라도
이라고 일삼아 모여 추렴
점 먹고 마시고 한 철 애쓴
수고도 달래고 이웃끼리
정도 도탑게 하교 그라제.
그래야 또 심내서 일을 하제.
거 돼지가 봐 먹여 키운 놈
이라 그렇가 이라고 실현 게
맛도 좋겟구만 이.”

삼성부락에서 나고 자라
어느덧 팔십을 바라보는
촌로는 오랜만에 맞는
잔치가 더없이 기꺼운지
주름진 얼굴 가득 피어난
미소를 지을 줄 모른다.



어르신께 죄송한 일이지만,
잔치는 이미 지난 밤부터
시작했다. 제철 만난 석화를
포대 째 쌓아놓고 구워가며
‘전야’의 설렘을 만끽하는
이들의 얼굴엔 묘한
열기마저 묻어났다. ‘수다’
(秀茶)를 떨며 사랑가에
해남 들노래에
진주아리랑까지, 웃음
소리 추임새 삼아 노랫가락
끊이질 않았고 맑은
하늘엔 쏟아질 듯 별들이
총총했었다.



Photo © Bryan Ku



그렇게 들뜬 밤을 보내고
맞은 잔칫날 아침. 재 넘어
삼산까지 가서 끌고 온
100근 암돼지는 제 운명을
아는지 사뭇 뒷걸음질만
치다가 숲에서 뿜는 물이
하얀 김을 토해낼 무렵,
살이며 내장에 피까지
온전히 보시하곤 마침내
열반에 든다.



“여그바코드 보이쥬 잉.
이거이 흑산도 홍어라는
징표요. 전라도에선 잔치든
장례든, 손님 대접하는
곳에 홍어 빠지면 안돼지라.
이놈이 9키로 짜린디 이만
허면 어디서도 육은 안
묵소. 그란디 요놈이 여간
비싸야지. 전라도에선 홍어
구색 맞추다 집안 거덜난다
안허요.”





날짜 맞춰 삭혀둔 홍어를
통째로 싣고 온 진도 채운철
(46세) 선장은 코끝 찡한
특유의 냄새에 벌써 신침
흘리며 모여든 이들에게
귀하다는 홍어 코도 한
점, 목은지에 찢 살도 한
점 선심 쓰며 부위별로
능숙하게 손질을 한다.
음식이 준비되는 사이,
동네 주민들은 물론 소문
듣고 완도며 광주며 멀리
서울에서까지 손님들이
속속 도착하며 왁자지껄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는다.

불판에 올라간 돼지고기
노릇하게 익어가고
모양 있게 썰어낸 홍어에
녹차꽃 띄운 막걸리까지
나오자, 삼삼오오 웃고
떠들던 좌중에서 “와~”
하는 탄성이 터져 나온다.
거기에 하다못해 집에서
먹던 목은지일 망정
빈손으로 오지 않은 객들의
정성까지 더해져 잔치
음식은 더 푸짐해지고,
오랜만에 접하는 고향의
맛깔스러움에 주객 모두
“역시~”를 연발하며 남도의
맛에 빠져든다.



완도에서 넘어왔다는
박중길(49세) 씨는 모양만
번지르하고 입에 달라붙는
단맛이 강조된 이즈음의
음식이 영 마음에 차질
않는다. 그는 여전히 석화
까서 무채 썰어 넣고 양념에
버무린 것을 밥 위에 척
얹어 먹거나, 갯가에서 잡은
설렁게를 갈아서 날제란과
함께 밥에 비벼 먹던 그 맛을
잊지 못하는 것이다. 비록
신맛과 쓴맛이 강할지라도
남도는 남도 본연의 맛을
살릴 필요가 있다는 게
박 씨의 생각이다.



광주에서 온 이수민
(50세) 씨는 주변의 권유에
못이기는척 마이크를 잡고
“오매, 으째야 쓰까이”를
연발하면서도 ‘곡예사의
첫사랑’부터 서너 곡을 내리
뽐낸다. 흥어 썰던 채 선장은
“그만 가자”는 식구들의
지청구에도 들쭉이는
어갯짓으로 덩실덩실
춤사위를 남발한다.

그렇게 땅끝 해남 어느
마을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먹고 즐기는 가운데 격의
없이 하나가 되어 간다.
팍팍한 세상살이 엄격한
질서에 목을 매던 이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벽을 허물며 스스럼없이
어울려든다. 잔치를 통해
무질서가 주는 자유와
활력을 되찾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쫄쫄하게 살아낼 힘을
얻는다.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게
풍악이라. 남도 사람들
거개가 그렇듯이 해남
사람들도 가무에서 빠는
법이 별로 없다. 설아다원
안주인 마승미(43세) 씨
입에서 남도민요의 대표
가락 가운데 하나인
육자배기가 흥얼거리듯
흘러나오자 그것을
신호로 한바탕 신명떨음이
시작되고 잔치는 절정을
향해 치닫는다. 가야금
산조에 이은 대금동호회
회원들의 연주가
이어지다가 싶더니 마침내
반주기의 등장과 함께
가요로 넘어간다.





잔치 막바지. 하나둘, 멀리서 온 이들부터 주섬주섬 귀가를 서두른다. 잔치판을 제공한 주인 내외는 손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각자의 필요에 맞게 돼지고기 남은 냄이며 지난 가을 수확한 단호박 몇 개라도 쥐어준다. 저 멀리 바닷가부터 번지기 시작한 노을이 들판을 물들이며 밀려들더니 어느새 돌아가는 이들의 얼굴 위로 붉게 피어난다. 얼핏, 그 노을빛 속에서 채수습하지 못한 신명의 뒤끝, 넉넉하고 즐거웠던 잔치의 여운을 더듬는다. 잔치 끝. ■

나만의 길을 걸을 수는 없는지요

글·정진홍 (종교학자, 아산재단 이사장)

‘길의 범람’이라는 표현이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 옛터를 벗지 못해서 그런지 요즘은 길이 너무 많아 어지러움을 느낄 지경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길이 드물었고 험했습니다. 산등성을 넘어 이웃 마을에 가려면 길을 아는 사람이 앞서야 했고, 사람들이 오가지 못하는 이를테면 한겨울에는 길이 사라지는 일도 흔했습니다. 그래서 막힌 길이 뚫리고 새 길이 나면, 그것도 아주 넓고 탄탄하게 쪽뻗은 길이 나면, 그것을 ‘신작로(新作路)’라 부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루 어디에나 가 닿는 이른바 사통팔달(四通八達)하는 길을 내는 일은 모두의 꿈이기도 하였습니다.

길 위에서 길을 잃다

그런데 이제는 길이 지천(至賤)이게 되었습니다. 거미줄처럼 길들이 뻘뻘하게 나 있습니다. 마치 땅위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길 사이에 땅이 있다고 해야 할 만큼 길이 많습니다. 들판에도 길이 났고, 논도 밭도 길을 위해 자기를 내주어야 했습니다. 산조차 길이 되기 위해 치워집니다. 바위를 피하고 물길을 에둘러 가던 길도 이제는 별로 없습니다. 굴이 뚫리고 다리가 놓입니다. 산도 강도 그렇게 뚫리는 길 앞에서는 아무런 자존심도 지니지 못한 채 자기다움을 초라하게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는지 아예 땅에 기둥을 세워 공중에 길을 내기도 하고, 땅에 발을 대지 않고 산등성을 오를 수 있는 밧줄길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하늘 길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제는 비행기조차 서로 부딪칠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번잡해졌습니다. 바다의 뱃길도 사정이 그리 다르지 않을 듯 싶습니다. 게다가 산봉우리라고 해도 좋은 높은 빌딩들이 들어서면서 그 건물들 안에는 계단으로 승강기로 오르내리는 ‘수직 골목’들이 생겼습니다. 바야흐로 길 아닌 곳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래서일까요? ‘차고 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사실은 길의 경우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길이 너무 많아 길이
더 이상 길이지를 앓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통팔달하는 길’들이 서로
꼬리를 물면서 엉켜 길은 더 이상 길이
아니라 이미 ‘미로(迷路)’이기 때문입니다.
크고 넓은 길도 그렇고 작은 골목길들도
그렇습니다. 들어서기는 했는데 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뚫려 있는 것 같은데
막혀있고, 막혀있다고 돌아서려는데
뚫린 길 끝이 보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되돌아가보지만 열린 출구가 아니라
굽은, 또 다른 막다른 길입니다. 이래저래
길을 헤매며 되돌고, 되돌다가는 헤매고,
그러다 힘이 빠져 주저앉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지
않고서야,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서 이처럼
‘길을 잃고 헤매는’ 많은 사람들이 이리
물리고 저리 물리는 현상을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길을 지우는 표지판

아니,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사뭇 한가하다는 꾸중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이제 ‘길’은 아예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정경을 미리 짐작이라도 했는지,
아니면 사정이 그러한데도 어쩔 수 없이
여전히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삶이라는 것을
새삼 터득한 탓인지, 길의 ‘미로적 정황’에
처하면서 지혜롭게도 무수한 안내 표지판을
길에다 세워놓았습니다. 표지판을 따라 길을
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가면서도 표지판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자칫 표지판을 놓치면 길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길 위에 서면
표지판을 따라 길을 갑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길’은 없는 거나 다르지
않습니다. 길은 있는데 없습니다.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겠습니까만 오늘 우리는
길이 없다는 불평보다는 길에 표지판이
없다든가 뚜렷한 이정표가 보이지
않는다든가 행선지가 겹쳐 자칫 잘못 읽을
수 있는 표지판에 대한 불평이 더 심합니다.
그 불평은 때로 분노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는 누구도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표지판을
읽고 그것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표지판은
길이 아닙니다. 마치 지도가 영토가
아니 듯이요.

아직도 이런저런 필요 때문에 산을 뚫고
강을 가로지르며 길을 닦는 일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아직도 길은 더 많이 놓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길의 범람을 이야기하면, 편의와 효율성을
평가 절하하는 낡은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꾸중하시는 말씀도 귀에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제 이러한 낯두리가 그런
범주에 드는 서술임을 저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너그럽게 봐주신다면 제 하던
말을 좀 더 잇겠습니다.
무릇 얻음은 잃음을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잃음도 얻음과 그렇게 함께 있고요.
그렇다면 길이 마련한 편의의 그늘도 살피야
하고 효율의 음지도 눈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편의의 누림이 자칫 분방
(奔放)일 수도 있고, 효율의 누림도 자칫
맹목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유념하지
않은 편의나 효율은 실은 편의도 아니고
효율도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를
속이는 일과 다르지 않은 결과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풍경의 상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길 위에 있습니다.
거기서 걸음을 떼며 시간을 이어
살아갑니다. 그 ‘길 위의 걸음’은 내 삶의
중국어에 이르러 마침내 끝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한 순간도 길 위의 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길 위에서의 삶은 그것이
어떤 길이든 뚜벅뚜벅 의연하게 걸어야
그것이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뜻밖에도 무수한
표지판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사통팔달하는
길들이 그만큼 무수한 ‘목표’들을 현란하게
보여주면서 당혹, 혼란, 그래서 이는
망설임, 주저, 우물거림을 삶의 모습이게
하고 있습니다. 의연한 걸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표지판 따라 굽게, 착하게,
고즈넉한 쫓음을 살아가는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길 위에서의
삶이 편하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몸에 뱀만큼 익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표지판이 넘치는 이 편리하고
효율적인 길의 정황에서 우리는 마냥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목적지에
이르는 지름길을 확인하는 일이 어렵지
않고, 헤매며 낭비하는 시간도 말끔히 없앨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길 위의
실존이란 거북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마냥 가볍고 즐거워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것 같지를 않습니다. 길을 가며
만나는 선명하고 당당한, 절대 권위를 가진
온갖 표지판의 더미에서 오히려
‘미로적 좌절’을 겪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 이러한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 까닭을 짚어내는 일이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짐작되는 것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풍경의 상실’이라 이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포지판에 매몰된 긴장 속에서 이어지는 우리의 걸음걸이에는 하늘이 없습니다. 구름도 없습니다. 바람도 없고 옆에 나무들도 없습니다. 풀도 꽃도 없습니다. 어느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포지판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지닌 ‘소리’도 당연히 없습니다. 있는 것은 포지판뿐인데 그것에서 눈을 떼었다 길을 잃으면 내내 미아(迷兒)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한, 한눈을 팔 겨를이 없습니다. 아니, 이미 길이 없는데 길을 안고 있는 대지(大地)와 그것을 품에 안은 ‘자연’이 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포지판 없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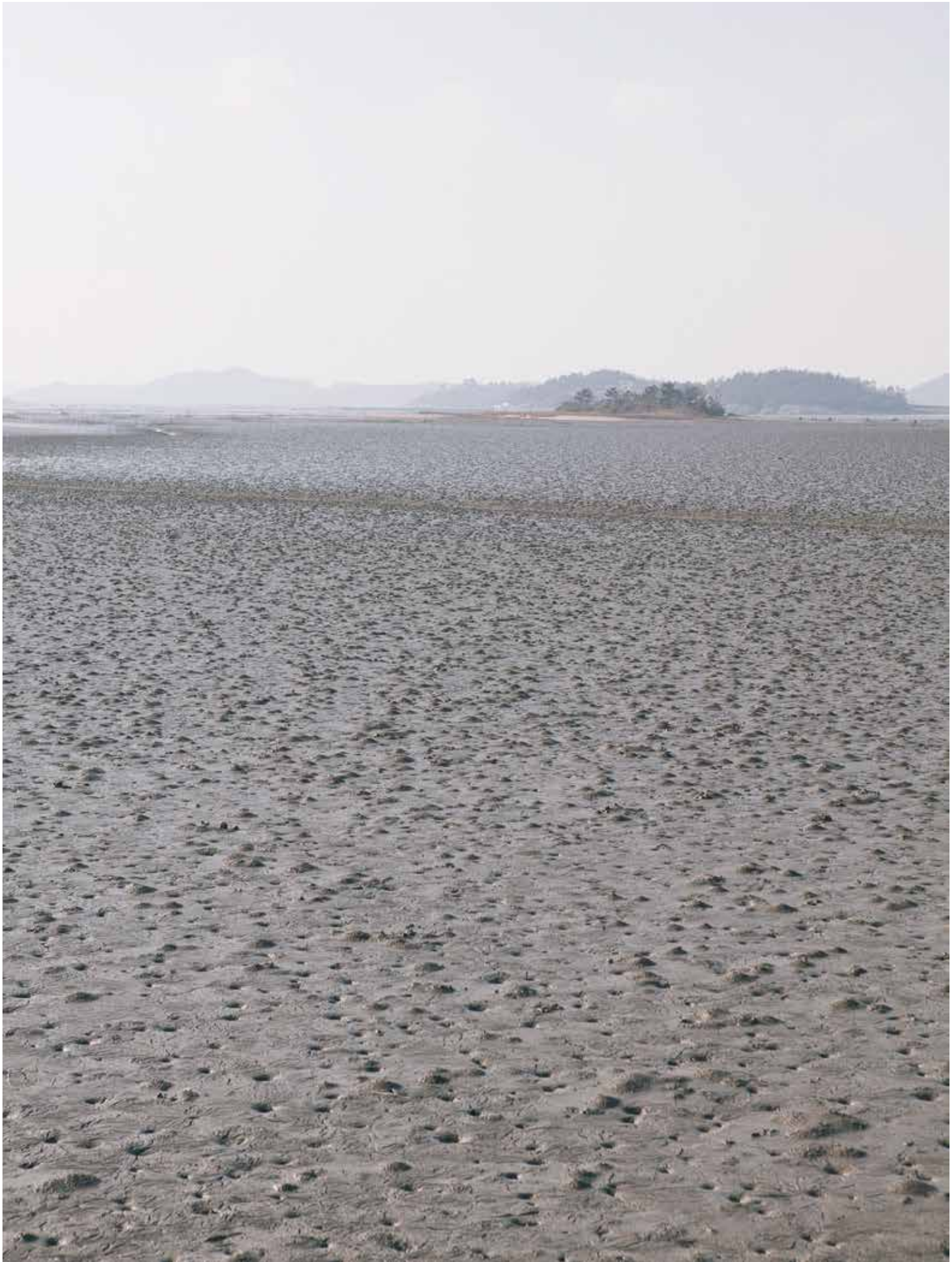
알 수 없습니다. 편익과 효율을 안은 길, 그것의 ‘넘침’이 ‘풍경의 상실’에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내 길의 잃음’에 이어지면서 결국 내 삶을 건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이르게 하는 이 사태의 ‘연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태 속에서 어떻게 길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제까지 말씀드린 길의 묘사가 얼마나 현실성을 지닌 진단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포지판이 없는 길을 걸어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길이 없는 듯 있는 오솔길, 나무와 풀과 돌과 하늘과 물과 스미는 빛과 바람, 그리고 별들이 있고, 그 모든 것의 소리들조차 가득한 호젓한 길. 풍경 속에 다소곳이 숨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자기를 자기답게 지닌 그런 길. 그 길을 따라 걸으면 내가 이를 곳에 틀림없이 이를 수 있는 그런 길. 가끔 다리를 쉬기도 하고, 숨을 몰아쉬며 멀리 넓게 펼쳐진 풍경을 한 아름 가득히 안을 수 있는 그런 길. 처음과 끝을 이어 지금여기의 내 가슴 안에 한꺼번에 품고, 그러면서 나와 내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걸을 수 있는 그런 나만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꾸중 받아 마땅한 옛티나는 뉘두리에 틀림없습니다만 이런 발언을 ‘감행’하는 것만으로도 왜 이리 좋은지요. 부디 ‘길의 범람’이라는 표현을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ㅁ









글 · 임윤희 (자유기고가)
사진 · 박정훈, 구범석

고정희 ^땅의 사람들 14 | 남도행 ^중에서

그림 같은 산과 들에 절하고 싶어라
무릎 꿇고 남도 땅에 입맞추고 싶어라

•
•
•

망초꽃 망연하게 피어있는 거
고향 산천 서성이네 어머니 잔정 같아서

망초꽃 망연하게 피어있는 거

논밭에 엮드린 아버지 힘줄 같아서

벼포기 싱싱하게 흔들리는 거

•
•
•

땅끝에서
열리다,
새봄!



시인 고정희(1948~1991)는 생전 어느 날, 고향
해남으로 내려가는 길에 드넓게 펼쳐진 호남평야를
바라보며 그 정경이 너무도 기꺼워 나지막이
‘땅의 찬가’를 읊조린다. 물론 그 이면에는 힘줄이
도드라질 정도로 강도 높은 노동과, 비료 값 건지기도
힘든 유통 현실과, 수입 농산물의 범람과, 쉬이 풍년을
허락하지 않는 자연의 심술과, 아이 울음소리 그친 지
오래인 활력 잃은 적막이 자리하고 있음이다.

그렇더라도(그게 어디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인가), 남도는 농업에 알맞은 토양과 기후 등 천혜의 환경을 제공받은 축복의 땅임을 틀림없다. 그 중에서도 해남은 나라 안에서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고장이다. 그러다보니 해남군은 농가수(1만 1,829 세대)가 군내 전체 세대수(3만 5,366세대)의 33.4%를 차지하며, 친환경 인증면적도 전국 최대 규모(9,959ha, 2013년 6월 현재)를 자랑한다. 이제 ‘해남’ 하면 ‘농군(農郡)’, ‘친환경 농산물’을 떠올릴 정도다.

황토와 해풍이 키운 농작물

해남 농업이 이렇듯 진전을 이어올 수 있었던 데는 해남의 지형 특징이 크게 한몫했다. 황토가 주를 이루는 양토와 동해 걱정 없는 온화한 기후, 적당히 불어오는 해풍은 작물 성장을 촉진하고 양분 축적에도 큰 도움을 줘, 황토고구마나 겨울 배추, 마늘, 고추, 양파, 감자, 당근 등 몇몇 작물들의 이름값을 높였다. 특히 해남 황토고구마는 당도가 높고 저장성이 뛰어나다. 당연히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다양한 미네랄 성분(셀레늄, 게르마늄)을 함유하고 있어 영양학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호박고구마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해남 황토고구마는 밤고구마, 꿀고구마(호박고구마보다 당도가 2~3브릭스 더 높다) 등으로 품종을 확대해가며 특품화 및 브랜드화를 시도해왔다. 또한 그 맛과 상품성을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지리적표시농산물 제42호’로 지정 보호받고 있기도 하다.

해남 겨울 배추 역시 이곳의 스타 농산물이다. 해남 배추는 적당한 해풍 속에서 살짝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동안 당대사가 활발해져 당분 축적이 잘되고, 조직이 치밀해져 쉼이 물리지지 않기 때문에 달고 아삭한 맛을 자랑한다. 황토에 심는 배추가 많아 영양학 측면에서도 뛰어나며 병해충 피해가 거의 없는 시기에 재배하기 때문에 농약도 거의 쓰지 않는 안심 농산물이다. 해남 배추 역시 이 지역의 특색에서 기인하는 특성이 인정되어 정부로부터 ‘지리적표시농산물 제11호’로 지정받았다. 겨울 배추 출하를 위해 바쁘게 손을 놀리던 산이면 대진리 공숙자(60세) 씨는 “이라고 맛난 배추털 묵어나 봤으카이?” 묻곤, 환한 웃음과 함께 속이 팍 찬 배추를 박스째 안기며 넉넉한 해남 인심까지 전한다.

이제는, 형욱이만 따라 해라

송지면 금강리 월강마을에서 4만여 평 큰 농사를 감당하고 있는 오형욱(47세, 한들영농조합법인 이사) 씨는 해남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복 받은(?) 농사꾼이다. 배추며 고구마며 각종 채소 등 그 큰 농사를 전부 친환경(무농약과 유기농)으로 짓는데, 1차 농산물은 물론 2차가공품까지 전량 생협에 납품하기 때문에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자신은 한사코 운이 좋았다고 농치지만, 운 따위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라는 게 주변의 평가다. 농업을 전공한 그가 너무도 당연하게(실상은 우여곡절 끝에) 농사를 짓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오자 아버지부터 난리가 났다. 8살 때부터 남의 집 소 먹여가며 끼니를 해결하기 시작해, 기어코 50마지기 1만평 농도를 마련한 아버지는, 당장 귀싸대기부터 올려 부쳤다. 한술더 때, 동네 어른들은 “대학꺼정 나온 젊은놈이 허면 을매나 허겠어...” 하며 비아냥과 한심스럽다는 조롱의 시선을 던지기 일쑤였다.

“저도 처음엔 맥주집 커피숍 드나들며 건들거리고 살았죠. 그러다 풍물 접하고 한국 전통차도 알게 되면서 그동안의 삶이 좀 창피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7개월 스위스로 농업 연수를 가게 되었는데, 가자마자 소똥부터 치우라고 하더라. 기지도 못하는 놈이 날려고 건방떨지 말고, 진짜 농사지를 거면 우선 삼질 하나라도 제대로 배우라 이거지. 거기서 농업을 대하는 자세를 배웠죠. 진짜 농업 노동자가 되어야겠다는 사명감 내지는 책임감도 느끼고요. 첨엔 현실도피로 갔다가 대오각성하고 온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해남 시골구석에 돌아왔지만 그를 맞는 현실은 별반 달라진 게 없었다. 자신의 각오를 보이려고 동네 로터리를 전부 쳐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독사 같은 놈”이라는 지칭구뿐이었다. 친환경농사를 짓는다는데 소출이 좋으니, 밤에 몰래 약 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샀다. 너무 부지런해도 손가락질 받는 게 시골이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최선을 다했다. 그것 말고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과정에서 실패도 많이 했다. 여북하면 동네 어르신들이 “형욱이 하는 거만 빼고 해라.”고 했을까.

지금은 장아찌, 절임배추, 묵은지, 무말랭이 등 가공까지 손대며 성공한 사장님 소리도 듣지만, 정작 그가 듣고 싶은 호칭은 ‘진짜배기 농사꾼’이다. 거기에 더해 아들이 농사를 이어받았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다. 언뜻 내비치는 아버지 얘기를 들은 대학생 아들은, 당장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 힘들지만, “한 10년 후쯤엔 저도 여기 있지 않을까요?”, 모호하게(?) 아빠의 기대를 부풀리더라.

베트남 아내를 위한 연작(戀作)

농업에 있어 해남은 엄청난 기회 땅이다. 우선 기후와 토양이 좋다. 아무 데나 뒹 심어도 잘 된다는 게 이 지역 사람들의 얘기다. 게다가 아직 땅값이 싸다. 친환경농업 지원 등 해남군의 정책 의지도 확고하다. 하지만 여건이 좋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큰형과 함께 5년째 황토고구마 농사를 짓는다는 김태훈(36세) 씨는, 지을수록 어려워지는 게 농사 같다고 토로한다. 결국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연에 순응하고 욕심 부리지 않으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게 짧은 영농경험에서 우러나온 큰 지혜다.

“고구마 농사는 1~2천평, 이렇게 해서는 계산이 안 나와요. 여기 화산도 보통 몇 만 평 단위로 농사를 짓죠. 고구마 순 심을 때나 수확할 때 보면 하루에 아집들 40명이 넘게 동원돼요. 큰 밭에는 70~80 명까지도 필요하죠. 그런 큰 농사를 짓다보니 주먹구구식으로는 안 됩니다. 작부 체계를 조절하고 땅을 잘 살펴야 하죠. 출하 시기를 잘못 맞추거나 안 좋은 땅에 심어 성장이 안 되고 갈라지거나 하면 그 해에는 인건비 건지기도 힘드니까요.”



마산면 용전리에서 열대 채소를 재배하는 박창민(34세)씨는 해남의 기후와 토양을 최대한 활용한 특용 작물로 승부를 내고자 칼을 뽑았다. 농산물유통회사에 다니던 그가 작년에 처음으로 1천4백평 밭에 지은 열대 채소는 여주, 공신채, 고수, 바질, 스피아민트, 페퍼민트, 동아(박), 아마란스, 줄콩, 오크라 등 11종. 그렇게 해서 거둔 매출이 3천5백만 원이었다. 전체 매출이야 보잘 것 없지만, 단위 면적당 효율로 봤을 때는 꽤 괜찮은 편이었다는 게 창민 씨의 자평이다. 거기다가 첫 농사였음을 생각하면 더더욱.

사실, 그가 열대 작물에 눈을 돌린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바로 부인인 전홍씨(22세, Tran hong chi) 씨 때문. 베트남 출신인 그녀가 한국에 와 고향의 채소나 과일을 그리워하는 것을 보고, 부인을 위해 심기 시작했던 것이다. 베트남에서 관광 가이드를 하다 만난 부인에게 반해 3년간 부모님을 설득한 끝에 결혼했으니 얼마나 애썼겠는가.

시작은 그랬는데, 그러다보니 좀 더 깊게 하고 싶고, 한국에 와 있는 동남아 출신 노동자나 다문화가정 등을 생각했을 때 시장성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수도권에도 대량으로 이들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있지만, 해남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난방비도 적게 들고 경제성도 훨씬 높다는 게 그의 판단이었다.

“작년에 해남 하나로마트에 단독 코너를 냈죠. 해남만 해도 다문화가정이 500가구 정도 되니까요. 광양 하나로마트에도 코너를 냈었는데 물량을 대지 못해 눈물을 머금고 접었습니다. 올해는 아버님을 설득해 재배 면적을 넓혀보려고요. 열대 작물에 대한 재배 노하우가 없어서 장인장모를 초청해 함께 농사를 지어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그래도 물량 조달에 한계가 있어서 열대 작물에 관심이 있는 이들과 재배 및 납품을 연계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도 추진 중입니다.”



해남 참전복의 꿈과 도전

해남군은 14개 읍면 중 1곳을 제외하곤 전부 바다와 연결되어 있다. 특히 해남 앞바다는 수온이 알맞고 갯벌의 영양 상태가 좋으며 유속도 적당해 수생 동식물들이 살아가기 좋은 여건을 제공한다. 덕분에 예로부터 해남 인근에서는 질 좋은 수산물들이 많이 나왔다. 석화, 바지락, 꼬막, 펄낙지 등이 그것들이다.

오늘날 해남 바다 농사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전복과 김 양식업이다. 지난해 해남에서는 323어가가 전복 양식으로 연간 638억 원의 소득을 올렸고, 김의 경우 1,238어가가 2,037만 숙을 생산해 458억 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복의 경우 생산량에서 아직 완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담백하면서도 쫄깃한 해남 참전복의 인기가 날로 더해지고 있다는 게 송지면 송호리 용찬진(52세) 씨의 전언이다.

“여그서 전복 가두리 양식 첨 시작한 게 바로 나요. 시행착오? 술하게 겪었지라. 태풍에 다 날라가 버리기도 하고, 적조에 전부 폐사 허기도 하고. 한 10년 하니까 그제사 궤도에 오릅디다. 처음엔 자기 자본이 없으니까 사채도 빌려 쓰고 어려웠지라. 전복 양식장이 시설 투자비가 술찬히 드는 사업이요. 양식장 한 칸에 자재비 이것저것 해서 85만 원 정도 드는데, 내가 1천 칸을 갖고 있으니, 그 시설비가 얼마나 들것소? 거그다 치패 사서 채우려면 어머어마 안 허졌소. 돈은 잘 벌었는데, 그만큼 나가는 돈도 술찬습디다.”

그래도 가두리 양식장 하는 사람들이 재미를 보자, 그때까지 지켜보던 이들이 너도나도 달려들었다. 전복 양식장이 늘어나며 먹이가 되는 미역이나 다시마 양식장도 덩달아 늘어났다. 송호리 앞바다는 온통 전복 양식장과 미역·다시마 양식장으로 뻗뻗한 밭을 이루고 있다.

그러다보니 문제가 발생했다. 바다 밭이 아무리 금을 그어 구획 짓기 어렵다 하더라도 무작정 넓혀나갈 수는 없는 일. 자연히 허가 면적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뒤늦게 뛰어든 이들은 밀식을 해서라도 생산량을 늘리려 했다. 하지만 밀식은 양식 환경을 해쳐 결국 폐사율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용찬진 씨는 해남이고 완도고, 전복 양식이 살아남으려면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자신도 1천 칸에 이르는 양식 틀 가운데 300칸 정도는 비워서 전복들에게 보다 쾌적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주려 한다. 물론 영세한 양식업자들에게는 ‘가진 자의 배부른 소리’로 들릴 수 있으나, 그는 이 방법이 폐사율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비법’임을 강조한다.

전복 수확을 마치고 돌아오는 ‘꿈과 도전호’ 선상. 3년 내 정성으로 키운 대복(大鰻)이 차곡차곡 쌓인 광경을 보는 용찬진 씨의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다. 왜 안 그렇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수온 상승 때문에 걱정이 컸는데, 무사히 잘 자라준 녀석들이 고마울 뿐이다.





수온 때문에 영 신통치 못한 바다 농사

하지만, 해남의 올 겨울 바다 농사는 전반적으로 신통찮다. 해남 뿐 아니고 강진, 진도, 완도, 신안 등 인근 바닷가가 다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수온이 올라가 쉬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김 양식 같은 경우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 송지면 염남포에 자리한 성지수산 서승범(28세) 씨는 김이 출하되는 겨울 한철 아버지를 도와 김 가공 공장 일을 보고 있었다. 아무리 한철이라지만 젊은 그가 구석진 가공 공장에 틀어박혀 있기 갑갑할 만도 한데, 좋은 원료를 확보하고 알맞게 숙성시켜 건조하는 전 과정을 켜며, 좋은 김으로 승부하기 위한 기초를 착실하게 쌓아가고 있었다. 실제로 해산물 양식업 등에는 젊은 일손들이 많이 필요해 사람들이 제법 몰리고 있다고 한다. 도시에서 어영부영 하느니 차라리 일찍부터 확실한 기반을 잡겠다는 젊은이들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염남포에서 땅끝 갈두리 쪽으로 가다보면 물이 나갈 때(간조)마다 하루 두 번 앞 섬(증도)과 연결되는 중리마을이 나온다. 이 마을 주민들은 바닷가 밭엔 마늘이며 고추를 심고, 바닷물이 나갈 때는 그 길을 따라 석화 캐고 낙지 잡는 것을 업으로 삼아왔다. 석화 채취는 가구당 한 사람만 나설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만 석화로 자식들 공부 다 시켰다는 게 김순자(73세) 할머니의 전언이다. 하지만 지금은 굴 양식도 많고, 게다가 올 겨울엔 수온마저 높아 꼬막이고 낙지고 바지락이고 다 “날새부렀다”고 한탄이다.

“말해뭇 한당가. 입만 아프제. 아침에 일어나면 나무허리 가야제, 갔다와선 굴 까야제, 밥하랴 빨래하랴, 마늘밭 고추밭 김도 매야제, 하이고 징헌거.” 중리 마을회관에 모인 할매들은 예전 고생하던 시절의 편린들을 끄집어내 곱씹는다. 어찌면 몸서리쳐지는 고생의 이면에, 그래도 그것을 견뎌내던 젊음이 있었음을 아쉬워하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할매들 모두의 손자인 귀한 아이 유성(4세)이를 사이에 두고 박순임(79세) 할머니가 일행 중 가장 나이가 어린 김순자 할머니를 가리키며, “사랑하기 좋은 나이”라고 하자 모두들 방바닥을 두드려가며 박장대소를 터트린다.



풍취 좋고, 인심 좋고, 술맛 끝내주고

회관 바깥으로 나오다 마침 집으로 돌아가던 김식(81세) 영감님과 마주쳤다. 젊어서는 목포에 나가 교직 생활을 하며 1남 4녀를 키운 그이는, 이제는 관절도 안 좋고 해서 감자밭이며 마늘밭 조금 있는 것마저 젊은 사람에게 임대주고 수원 인근에 모여 사는 자식들 보러 왔다 갔다 하는 게 낙이라며 자조한다. 그이에게 고향 해남 사람들은, 각박한 현실에서도 나눠먹기 좋아하고 나보다 남을 먼저 챙길 줄 아는 순박한 이웃들이다. 땅이며 바다에서 나는 물산이 비교적 넉넉한 탓인지 매사 낙천적이고 긍정적이며 놀기 좋아하는 기질도 타고들나는 것 같으며, 내륙과는 구분되는 예술의 DNA를 언급하기도 한다.

먹고 노는 데 빠질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술, 고천암호 철새도래지를 돌아나오는 길에 들른 해창주조장(화산면 해창리)은 해남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공간이다. 1937년 황의근(2006년 작고) 씨로부터 시작한 해창막걸리의 스토리텔링 테마 첫 번째는 100년을 바라보는, 정원이 예쁜 양조장집(적산가옥, 2014년 등록문화재 등록 예정)이다. 두 번째 테마는 물론 술맛이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100% 해남 쌀로 고두밥을 짓고 직접 누룩을 띄우며 효모제 등을 배제한 채 자연 숙성시키는 전통 방식을 고수한다. 맛과 향이 뛰어나고 무엇보다 뒤끝이 없기로 유명하다.

이러한 해창주조의 스토리텔링을 완성시키는 화룡점정은 오병인(53세) 씨 부부다. 1997년, 이 주조장을 맡은 것도 순전히 술과 사람을 좋아하는 그의 이력 때문이다. 그는 서울에 살면서 해창막걸리를 가장 많이 주문해 마시던 단골이었다. 가업을 잇지 못하게 된 먼저 주인이 그대로 문을 닫느니 오 씨에게 맡기면 해창의 전통을 이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인수를 강권했다. 예상은 적중해서, 이들 부부는 좋은 술을 빚고 일 년 내 예스런 정원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막걸리잔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해창’의 이름을 전국에 알리고 있다.





이제는 사람과 콘텐츠다

해창막걸리처럼, 지역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해남만의 스토리, 즉 변별력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해남의 과제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옥천면 은향다원 정두채(74세) 씨는 ‘사람 농사’에 그 답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해남은 넓은 들녘과 무궁무진한 바다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지내왔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안주하고 정체됐던 것도 사실이다. 그 정체화의 저변에는 콘텐츠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다. 너무 ‘땅끝’만 강조하다 보니 뭔가 손에 잡히는 실상을 만드는 데 소홀했고, 이를 눈치 챈 영악한 도시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뭔가 새로운 걸 내놓으라’고 협박한다.”

민선 초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을 지내고 기아자동차 부회장으로도 일했던 그는 콘텐츠와 그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 정두채 씨가 대외 활동을 접고 해남에 내려오면서 주목한 게 녹차다.

“차에 있어 해남은 초의선사의 명맥을 잇는 성지 같은 곳인데 보성이나 하동만큼 차 농사나 문화에 힘을 쏟지 않은 게 사실이다. 차를 즐길 줄 모르는 게 아니라, 힘들여 차 농사를 짓기보다는 배추나 고구마 팔아 차를 사다 먹는 게 낫다고 여긴 것이다. 이제라도 ‘초의’라는 너무도 훌륭한 콘텐츠를 살릴 필요가 있다. ‘땅끝’을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그는 차로는 한참 선배인 동갑내기 아내 김은숙 씨와 함께 우선 3천여 평 차밭에 씨를 뿌리고 유기농으로 가꾸어나가기 시작했다. 첫 수확을 기다리는 6~7년 동안 부인 김 씨는 홈페이지 강좌도 듣고, 유기농 기능사에 농산물 가공 기능사, 꽃차 마에스터 등 자격증도 땀다. 참나물이나 머위장아찌를 담가도 보고, 깨끗한 쭉을 잘 말려 차로 만들기도 했다. 첫물차만 가공하는 탓에(유기농이라 첫물차 이후는 차로서의 상품성이 떨어진다) 나머지 대엽들은 분말로 만들어 각종 식재료로 쓸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정두채 씨는 얼마 전 동신대학교와 산학협력으로 개발한 누리장나무 잎차 생산 지원금을 위해 프레젠테이션에서 직접 발표를 하며 사업권을 따내기도 했다. 그 간의 경영 및 행정 경험을 살려 심사위원들을 효과적으로 공략했다는 게 나름의 분석이다.

배추들 사이로 어느덧 봄은 오고

정두채 씨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해남이 나아갈 길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역량과 재능을 가진 ‘사람’을 키우는 데 방점을 찍는다. 넓고 기름진 ‘땅 농사’와, 자원과 가능성을 안고 있는 ‘바다 농사’가 있으니, 이제 역량과 재능을 가진 ‘사람 농사’만 잘 짓는다면, 그동안 안으로 웅크리며 닫혀 있던 ‘땅끝’은 마침내 밖을 향해 뜨겁게 포효하며 열릴 ‘시작’이 될 것이라는 얘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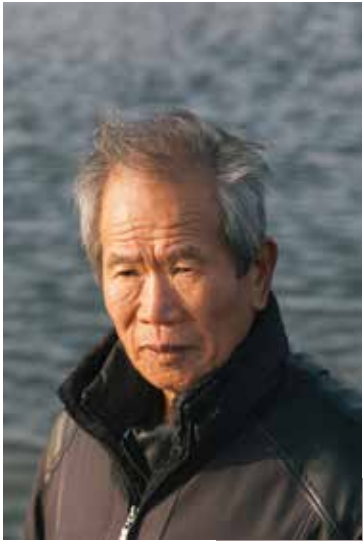
그렇게, 땅끝에서 시작된 2014년 한해가 붉은 황토의 기운을 품고 서서히 복상한다. 들녘 곳곳에 웃자란 보리며 마늘 싹들, 온몸으로 겨울을 버티고 있는 배추들 사이로, 얼핏 봄의 한 자락을 본 듯도 싶다. 그 봄, 저만치 앞서서 ‘얼릉’ 따라오라고 성화다. “궁께, 참말로. 시방 간당께.” ■

스타일링·김정민(더스타일링그룹 대표)
사진·문성진





Meeting People



글·남인희(«전라도닷컴» 기자)
사진·구범석

토박이 인터뷰



최양림

1929

해남 삼산면 소재지에서 나이 지긋한 어르신을 뵈웁고 ‘고인돌 할머니네’를 여쭙면 ‘아, 그 할머니!’ 하는 집이 있다. 마당에 고인돌을 셋씩이나 보듬고 사는 원진리 최양림 할머니. 전에는 그저 ‘독(돌)’이라고만 했다. ‘벨라도(유별나게) 크고 깡깡한(단단한) 독’이라고만 알았다. 공부 많이 하신 양반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에 할머니도 이제는 ‘고인돌’이 뭔지 훤히 알게 됐다.

“옛날 옛날에 왕이 죽으문 저라고 큰 독을 갖다가 덮었다드만. 지금 같은 코끼리라도 있어서 시켰을 것인데 그때 세상은 코끼리도 없었을 것이고 모다 (모두) 지게만 지고 땡겼을 것인데 저 무거운 것을 어디서 어치고(어떻게) 끄꼬(끌고) 왔으꼬나...”

역사 공부하는 학생도 아니면서 고인돌 축조 방식을 혼자서 상상하곤 하는 최양림 할머니. 전세계 고인돌의 절반 이상이 한반도에 있고 그 대부분이 전남 지역에 몰려 있으며 ‘고인돌 발’이라 할 만한 해남에도 830여 기의 고인돌이 분포해 있는데, 최양림 할머니 맥의 고인돌은 해남에서도 제일 크다. 할머니에게 독은 그냥 독이 아니다

“혼자 살아도 집에 들오문 마음이 후복허니 좋아. 노적같이 든든해. 우리 자식들은 엄마 곁을 떠나 살지만 저것들은 항시 떠나들 앓은께.”

그처럼 사랑해 마지않는 ‘돌아이’ 셋과 할머니 소개로 수인사 나눈다.

“이거이 막둥이(마당 옆). 저거는 제일 큰 장남(대문께), 저거는 둘째(모퉁이께). 바라! 참말로 좋게들 생겼지야잉.”

그 중 막내는 할머니한테 특별한 효도를 한다. 호박이며 고사리며 토란대며 갖은 채소를 제 몸에 받아 말리는 건조대 노릇을 하는 것.

“독아 독아! 니 허는 지서리(짓)가 어찌 그리 이쁘냐, 내가 늘 보고 칭찬해.”

그 독 너머로 그늘을 드리운 나무는 친정아버지가 심은 것이다. 한 마을 총각과 혼인을 하여 내내 이 마을을 떠나 본 일이 없다는 할머니. 왜정 때 공출안 보내려고 열여섯 살 ‘째간헌(조그만) 짓’을 시집보냈더란다.

“하이고 그 징헌 세상! 밥이라는 것은 썩에다가 시늬만 쌀을 섞은 거여. 어찌다가 밥알 한나씩(하나씩) 뵈는 그런 밥도 배불리 못 묵고 살았어.”

아들 둘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아낸 시난고난한 세월 속에도 웃음자리 아주 없는 것은 아니어서 그 좋은 나무 그늘 아래 그 널찍한 독 위에 누워 있던 기억은 명량하다.

“일허다가 쉴 참이든 여그다가 꺼적(거적) 깔고 낮잠 자고 그랬제.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 시원하다고.”

시시때때로 빗자루를 들어 독 밑을 정갈하게 쓸어 오셨다는 할머니.

“독은 순정해야 헌께. 우리 친정어머니 허시던 그대로, 본 그대로 하는 거여. 명일(명절)이든 밥 한 그릇 차려 바치고.”

엄마가 큰바위 앞에 지극정성으로 상 차리고 공들이는 양을 지켜보던 땡기머리 그가이내(여자애), 이제 주름 쪼글쪼글하고 거동조차 불편한 할매가 되었다.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한 것이 독이나 나나 같애... 인자 저 앞산은 영 못 올라갈란가. 고사리 꺾끄러(꺾으러) 가고 나무 허러 가고 정든 산인데...”

아득한 옛날 청동기 시대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을 담은 독. 그때부터 그 한 자리에 앉아 저를 지나가는 무수한 생애들을 지켜보았을 독. 긴 세월 수많은 인연 중에 유독 정 깊은 최양림 할머니와의 동거가 그 깡깡한 가슴에 새겨질까.

“어느 날 나 안 뵈이문 저것들이 기다릴란가 싶어. 자불자불 왔다 갔다 허시드만 어디 마실길이 길어져서 요라고 안 오시까 하고.” ■

박양애

1935

먼데사람 듣기 좋고 강강술래
저테사람 보기 좋게 강강술래
옥신옥신 뛰어나보세 강강술래

앞사람 뒷사람 손에 손을 잡고 옥신옥신
뛰어나 보는 걸음걸음에 설움을 덜고
괴로움을 나눈다. 휘영청 보름달 아래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연대의 놀이가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8호 강강술래
예능보유자인 소리꾼 박양애(해남 문내면
선두리) 할머니. 노래에 대한 그의 기억은
동외리 살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다.

“여그 해남이 밭이 많애. 그제 다
여자들 일인 거야. 일이 끝도 없어. 그런데
밭에 갈라문 낫밥을 갖고 가. 밥 먹으러
들어오문 밭일이 그치잖애.”

올케들이 집에 두고 간 얘기가
올라치면 업고 가서 젖을 먹여 오는
것이 6남매 중 막내딸이었던 어린
양애한테 맡겨진 일이었다. 그 일로 그는
어머니에게 회초리께나 맞았더라 한다.

“내가 어만(영똥한) 디로 빠져볼거든.
동네에 장화홍련 춘향전 그런 것 허고
다니는 험물사가 들어와. 징 깡매기 그런
것을 치고 돌아다님서 광고를 허는 거야.
그러믄 나는 정신이 쭉 팔려 붙어.”

젖 먹일 얘기를 등에 달고 정소리를
따라 다녔다. 밭이 절로 따라 가게 좋은
것을 어찌할 수 없더라 한다.

우리 아버지 노리개는 진(진) 담뱃대
우리 어무니 노리개는 막내딸
우리 오래비 노리개는 책가우
우리 성님 노리개는 바늘 곱지
요내 노리개는 연지 분통

“그런 노래도 있는디 내가 똑 그랬어.
동네에 엇장수가 들어와서 퐁퐁퐁퐁 허고
다니문 다른 얘기들은 엇을 사먹는디
나는 연지곶지 동동구르믄를 사고 싶은
거야. 어려서부터 몸 닦달을 그라고 했어.
끼가 있었던 거야.”

노래 잘 허는 얘기 ‘끝심이’(막내라
해서 그렇게들 불렀다)는 동네 어른들
노리개였다. 동네 아낙들이 모여
물레질을 하던 물레방에서 어린 끝심이
굿본 흥내를 낼 적이면 사람들이 웃다가
울곤 했다.

“내 노래는 책 놓고 배운 것이 아니야.
가슴으로 들어서 가슴에서 나오는 소리제.
그런께 안 잊어볼제.”

누에가 비단실을 뿔듯이, 거미가
거미줄을 뿔듯이 자연스럽게 절로 나는
것 같다는 평을 받는 그 소리들이 다
대여섯 살 무렵부터 귀동냥한 소리다.

해남 진도에 전승되는 노래 대부분을
기억하고 있는 박양애 할머니는 농요가
이 땅에서 사멸해 가고 있는 현실에서
해남 우수영 부녀 농요의 옛 가락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저 건네 목은 밭에
쟁기 없어 묵었는가
임자 없어 묵었는가
잘된 데는 차조 같고
못된 데는 모조 같아
머리머리 돛부 심어
돛부 따는 저 처자야

동네 아낙들은 밭고랑을 타며 이런
노래를 흥글흥글 내놓곤 했다.

“밭일이 지질허제(지루하지). 그런데
노래를 험시롱 일을 허는 거야. 노래 한
자리씩 허고 나문 덜 빠쳐(힘들어). 회포를
딱 푸니까. 요새 사람들은 그 멧을 몰라.”

품앗이를 해야 수월한 것이 밭일이듯이
혼자서 해서는 싱거운 것이 밭노래
들노래다. 강강술래 또한 그러하다.

“혼자 허는 소리가 아니잖어. 여럿이
돌고 돛서 밭 맞추고 소리 맞추고 맘도 딱
맞추고. 그런 것이 그리 좋은 거야.”

구부야 구부구부 눈물인 인생길,
노래에 기대 슬픔도 한숨도 삭여 왔다는
그이. 마흔한 살 젊은 나이에 남편 먼저
저세상으로 보내고 황량한 뼉밭 같은
맘을 일으켜 5남매를 키워 온 생애에서
노래는 스스로 짓는 약(藥)이었다.

“오매불망 그리울 적에 꿈이 아니믄
어이 보리... 육자배기 흥타령을 들어봐.
인생이 거그다 들어가 있어. 부르다
보문 차악 앵겨드는 대목이 있거든. 옛날
노래가 참 맛나. 안 궁가?” ㅁ





윤영한

1936

꼭 드러내 보이겠다는 뜻은 아니지 싶다. 하지만 여기 있다고, 그 소박함으로, 겸허함으로 오히려 면발치서도 눈길을 끄는 간판. ‘서산약방’(해남 화원면 월호리) 윤영한 어르신은 그 간판 아래 50년 한 자리서 ‘활인공덕(活人功德)’을 쌓아온 이다.

‘독국’이라고 쓰인 나무상자, 낡은 약장, 녹슨 캐비닛이 지나온 세월을 증거하고 있는 어둑신한 약방. 빛바랜 ‘약업사 자격증’이 액자 속에 걸려 있다.

“요새는 박카스 한 병이 안 나가. 그래도 문을 닫질 못해. 당장 아파 죽겠는디 약방문이 닫혔어 봐. 얼마나 애터질 일인가.”

감기약 두통약 설사약 같은 것이 급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것 하나 사려고 차 타고 소재지로 가게 헐 순 없다고 한다.

“밤중에도 느닷없이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 약 쥐어주고 이놈 먹고 나스문(나으면) 쓰졌네 하지.”

어르신의 선친은 광주에서 ‘광생(廣生) 의원’이라는 병원을 열었다가 6·25 전쟁 후 해남 군립병원 원장을 하던 윤익현 씨다. 전남대 의예과를 다니던 중 아버지가 변고를 당하면서 그이는 약종상 시험을 치르고 약업사 자격증을 얻었다.

육지라지만 섬이나 다름없이 교통의 오지였던 월호리. 먼소재지인 화원까지 걸어가려면 30리 길이였다. 배가 닿는 양화리 해안이 오히려 가까워, ‘용당호’를 타고 나갈 수 있는 목포가 생활권이었다.

“급한 환자 있으문 배로 싣고 목포로 가. 약으로는 안 되겠다 이 환자는 위급하다 대강 짐작이 가거든.”

밤에 응급환자가 오면 조그만 모터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다. 병을 키워서 온 환자들은 대개 자신의 몸보다 돈이 귀한 사람들이었다.

“농사짓고 산 사람들이 자기 몸뚱아리 대접을 안 해. 그저 참아. 무쇠덩어린 줄 알고 부러먹다가 죽을 지경이 돼야 약이라도 사러 와.”

그러니 밤중에 문 두드리는 사람들은 ‘자고 나면 낫겠지’ 하는 희망으로 아픈 것을 참고 참다 오는 사람들이었다. 한번은 한밤중에 위가 터진 환자가 왔다. 흔들리면 고통스러울 것이니 피를 냈다. 바지계에 질을 두겹게 깔고 거기에 환자를 눕혀서 지계를 짊어지고 모터배를 탔다. 자정이 다 돼서 목포 선창가에 있던 노동병원에 환자를 내려놓고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쉬었다.

다쳐서 오는 환자도 많았다.

“농사짓는 일이 위험한 일이지. 낫질 하다 손 비고(베고), 논두렁에서 미끄러지고, 소 몰고 가다 소가 갑자기 뛰문 다치고, 경운기 몰고 가다 떨어지고... 잉간헌(웬만하) 것은 여그서 치료하고 심하문 목포로 가. 출혈 안 되게 응급처치해서.”

다음날이면 ‘내가 상처 따위 아랑곳할 성 싫으냐’고 논들에 엮드려 있는 농부들이 그의 환자였다. 장에 나가 곡식이나 푸성귀를 팔아야 몇 푼이라도 만드는 이들이 그의 환자였다. 그러니 약을 주고도 “지방 돈이 없는디...” 하면 그뿐이었다.

“돈 없다고 약 안 주문 안 되지. 그런 법은 없어. 약이 맞아서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닌게. 오죽하랴 하고 그냥 쥐. 장부가 된 소용이여. 가져간 사람들이 안 잊고 나중이라도 꼭 갚아. 쌀 뒷막 갖고 와서 잇댁시다 그런 경우도 있어. 공으로 준 것도 아닌디 큰 신세졌다고 오래도록 말해.”

약방 문을 열고 들여다보는 사람한테는 말 한 마디라도 따썩고 보드랍게 한다는 그이.

“그래야 소소하게 아픈 것도 의논하고 속말을 하지.”

그리하여 서산약방은 아픈 사람도 아프지 않은 사람도 와글바글 모여들던 동네 사랑방이었으니.

“모태서 웃고 재미지게 살았는디 인자 한나 둘다 가 불고 얼마 안 남았어...”

얼굴 찌푸리는 일에 당최 소질이 없이 평생을 살아온 그이.

“내가 다름을 안 해. 기운이 씨들 안 현께. 하하! 내가 이익 불란다 앓고 내가 손해 불란다 허문 그만이여.”

‘내가 손해 본다’가 좌우명인 윤영한 어르신. 오늘도 아침 해와 함께 문을 연다. 남의 아픈 사정에 귀 기울여 보려고. ▮

김동식

1941

하루 두 번 물이 쓸 적에 길이 열리는
해남 송지면 송호리 중리마을 시루섬
(증도). 물밑에 감추어두었던 비밀인 듯,
시루섬 앞바다에서 돌담이 드러나는 것도
이때다. ‘이룰 성(成)’인 듯 ‘정성 성(誠)’
인 듯, 하나에 하나를 더하고 또 하나를
더하고 시시때때로 더하고 더하기를
멈추지 않아 견고하게 이루어낸 성(城)이
거기 있다.

물때 따라 오는 고기를 기다려
그 고기를 가두기 위해 물이 쓰고
난 바닷가에 돌을 쌓은 돌 그물.
표준어로는 ‘돌밭’ 학술어로는 ‘석방렴’
이다. 이곳에서는 ‘쭈기땀(담)’ 혹은
‘쭈기’라 하며 지역에 따라 ‘독살’, ‘독장’
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물의 어머니’,
‘살아있는 그물 화석’이라 이르는 것은
배도 그물도 없었던 먼 옛날부터
그렇게 해 온 가장 원시적인 고기잡이
방식인 까닭이다.

“얼추 열 개는 있었는디 인자 다 뺄
속에 들어가불고... 근년까지 현 것이
이것이여.”

시루섬 앞으로 반원을 그리고 있는
돌담은 본디 중리 김동식 이장의
증조부님이 쌓은 것이다. 한 200년 되었을
거라 한다.

“침에는 독을 모태 났다가 바지개로
저다가 쏘코(쌓고) 쏘코 했겠제. 무너지문
또 쏘코 또 쏘코...”

‘쏟다(쌓는다)’고 해서 ‘쭈기땀’이라는
말이 생겨났을 거란다.

“그 독을 등거리로 일일이 다
날라다 쏘셨겠제. 옛날 사람들이 힘이
좋았다기보다 힘을 내야 헌께 힘을 낸
것이제. 그것 아니문 못 묵은께.”

왜 아니라. ‘자식들 입이 호랭이
아가리보다 더 무섭다’고, 끼니 분별
어렵던 시절 식구들 굶기지 않으려면
호랭이 입에라도 뛰어들 각오로 세상을
살아내셨을 것이니. 그러한 ‘간절’이
생애를 미는 힘이 되었으려니.
“그리고 생해서서 쭈기 돌을 만들었는디
할아버지 형제(김유성·김재성)가 받은
것이 아버지(김명옥) 대(代)로, 우리 대로
넘어온 것이제.”

독살을 상속한다는 것은 ‘남 안하는
고생의 상속’이기도 하였다. 바다에
놀(큰물)이 지고 나면 독살은 번번이
허망하게 무너지곤 하였다.

“독 그 놈 하나 올릴라도 겁나게 힘든디
만날 등거리로 저다가 보태제. 쫄만 야찬
(낮은) 디가 있어도 고기가 글로 빠져나가.
고기가 저 나갈 디를 그렇게 잘 봐. 사람만
영리한 것이 아니여.”

쭈기땀의 가운데 제일 낮은 자리를
‘임통’이라 하였다.

“물이 빠짐시롱 고기가 자연히 거그로
모이제. 거그 임통 앞을 막아. 옛날에는
잘잘한 뗏가지를 엮어서 막아놓고 올렸다
내렸다 했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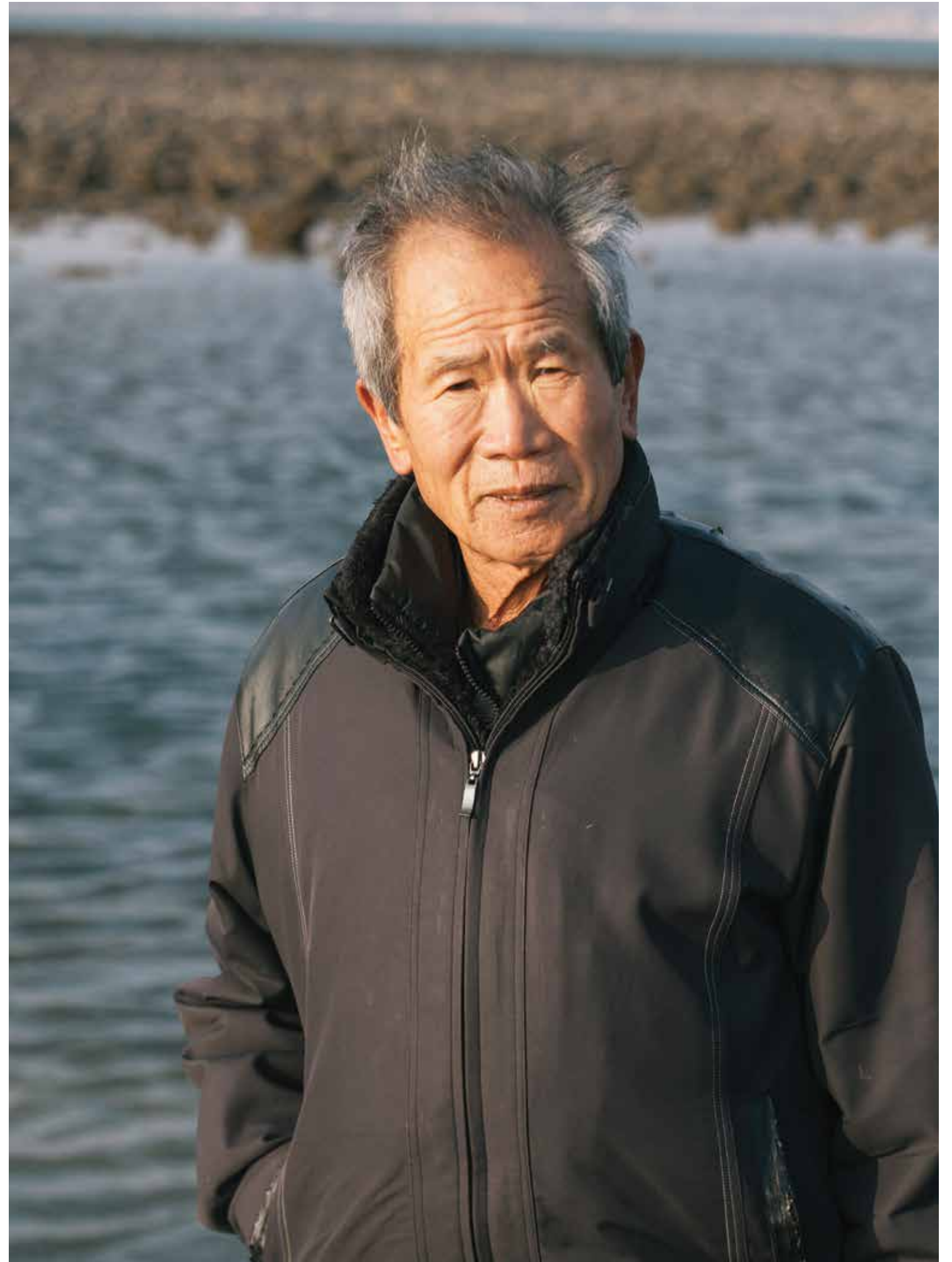
물이 빠지고 나면 쪼랭이(조랭이)나
쭈반이(쭈대)로 고기를 건져 쪼래기
(쪼라기, 조락)에다 담고 망태에다 담았다.
“땀(땀치) 같은 것은 한번 들기 시작하문
많씩 들어. 그러문 바지개로 저날라.
집까지 서너 차례 땀이다 보문 어깨가
아퍼.”

그래도 맘은 후복하였다. ‘오늘 빈골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무겁게 지고 가니
좋구나’ 하였다.

고기를 많이 잡고 적게 잡고는 사람
소관이 아니었다.

“밤중이든 새벽이든 물 나문 나가는
거여.”

가는 고기는 보내고 든 고기만
잡는다는 쭈기, 쭈기는 다만 고기를
기다리는 곳이었으니. 해와 달의 시간에
따라 물때 따라 살던 이곳에 사람 욕심은
통하지 않았다. 다만, 무너뜨리고
말겠다는 듯 파도가 달려드는 바다에
쌓은 담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무너지고
또 무너지더라도 ‘쏘코 또 쏘코’의 생애를
의연하게 짊어지고 여기에 이르렀다. ㅁ





이향용

1962

“바닷사람 뭇마을에 와서 토란국에 해지는 줄 모르고, 산사람 갯마을에 와서 해우국에 배 떠나는지 모른다.”고 했다. 바닷가 바위 옷 같다 하여 김을 달리 부르는 ‘해의(海衣)’를 전라도에서는 ‘해우’라 불렀다.

어렸을 적 먹었던 그 맛난 김 맛을 기억한다. 해남 황산면 호동리 이향용(땅끝 해남 지주식돌김협회 대표) 씨. 고향을 떠나 살던 그이가 호동리로 돌아온 것은 스물세 살 청춘 때였다. 밥인 줄 낫인 줄 모르고 흙투성이로 살았는데도 농사로는 앞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바다만 바라봐야겠다. 김 한 가지만 해야겠다’ 맘자리를 그리 정한 것은 1987년이였다.

전국 물김 생산량의 24%를 차지하는 해남. 호동리 역시 옛적부터 김을 해오던 마을이다. 처음에는 그 역시 다른 어민들과 같은 방식으로 김을 생산했다. 하지만 김발에 달라붙는 잡조류를 제거하려고 염산 처리를 한 김을 아이들에게 먹이는 게 꺼림칙했다.

2002년, 친환경 김을 시작했다. ‘무산(無酸)’을 결심한 것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다. ‘정신 나간 놈’ 취급을 받았다. 산 처리를 안 하면 김 생산량이 줄어든 것이 뻔하지만, ‘착한 김’이니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남 안 가는 길을 맨 먼저 걷는 자에게 수난은 당연하다는 듯, 한 3년간 온갖 고생에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거의 수익이 없다시피 고전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겨울 찬바람 나면 그이의 김을 기다린다는 소비자들의 반응이었다. “굽지 않고 먹어도 맛있기만 해요.”, “먹어보면 옛날 김 맛이 나요.” 하는 말들이 그이에겐 당근이고 채찍이었다.

이향용 씨의 김 농사가 시작되는 것은 매년 9월 25일 무렵. 올해는 9월 27일 김 씨를 붙이러 바다에 들어갔다.

김 씨가 자란 것을 육안으로 보려면 한 20일이 지나야 한다. “전에 어른들은 흰 고무신에 물을 떠가지고 보시는데 눈이 아주 좋아서 이르게 보는 사람들은 15일 정도면 보셨대요.”

12월 19일 초벌을 쳤다. 그이는 물김을 위판하지 않고 공장차에 바로 실어올려 자동화로 건조하고 일부는 재래식으로 생산한다. 딱 한 줄씩 손으로 쳐오면 물김 두 가마 정도. 새벽 두 시부터 꼬박 날을 새가며 김을 뜬다. ‘평생 동업자’ 아내 박만순 씨가 그 지난한 작업을 함께 한다. 오죽하면 “해태(김) 고장에 딸 시집보낸 심정이다.”라는 옛말이 생겼을까.

동이 트기 전에 널어야 하니 손놀림이 바쁘지만 20톤 정도가 최선이다. 아침 8시 무렵에 낀 김은 햇볕 좋은 날은 오후 4시 30분 정도면 예쁘게 잘 마른다.

“일기에보를 들고 김을 땀는데 날이 흐리면 난감하다. 안 말라서 버려야 하는 김을 일일이 비벼 발장에서 떨기도 힘들다.”

건조공장 보내면 화력으로 금방 나오는 김에 하루 품을 꼬박 파는 것은 오로지 ‘진짜 맛있는 옛날 김 맛을 살려보자’ 했던 그 첫 마음이다.

그렇게 만든 김을 들고 2009년도 수산물 브랜드 대전에 나갔다. 전국 29개 업체가 참가한 경연에 매출이 400억 되는 업체들이 프리젠테이션을 한다고 두툽한 자료집을 들고 나온 경연이었다.

“달랑 A4 한 장짜리 설명글을 들고 나갔다. 김 봉지를 뜯어서 나눠 드리고 한번 드셔보시라고 했다. 김을 먹어봐야지 말로 설명하냐고.”

동상 수상 소식을 듣고 그간 헛고생 하지 않았구나 싶어 눈물이 났다. 무산 김을 선구적으로 개척한 그이로 인해 이제 인근 신흥, 한자, 산소, 정의, 성산 5개 마을이 친환경 지주식 김을 하는 만호바다에선 산을 일체 쓰지 않는다. 무산 김을 하면서 뻔이 살고 바다가 풍요로워졌다. ‘나는 바다만 바라봐야겠다’는 그 한 사람의 맹세가 사람들의 밥상을 바꾸고 바다를 바꾼 것이다.

지주에 매다는 김발 수위 조절이 관건이라는 친환경 김. 그이는 김발 수위를 자기 몸의 배꼽께나 가슴께에 일정하게 맞추어 둔다. 동네 사람들은 ‘향용이가 우리 마을에서 제일 게으르다’ 한다. 헌데 이상하다. 날썰 따라 올렸다 내렸다 하지 않아도 그의 김은 썩지를 않는다. 동네 사람들은 ‘향용이는 도가 텃다’고들 한다. ‘오직 그것’에 쏟은 열정이 달인의 길을 낸 모양이다. ▣

단단하고 야물게 생긴 인상, 막힘없이 쏟아내는 입바른 소리, 여기저기 온갖 데 다 참견하고 다니는 분주한 품새를 간신히 비집고 들어가 “짹 짹 내자”고 했더니, “금게, 진즉 말을 하지 그랬소?” 농치며 앞장선다. 바지런한 성격상 앉아서 뭉그적거리기 보단 앞으로 두 달여 돌보지 못할 차밭을 거닐며 눈으로라도 보듬고 싶은 마음이라.

“여가 처음엔 물 고인 다랑치 논이었소. 1997년이었제. 주변으론 잡목이 우거지고 풀이 말도 못했제. 그런 땅에서 돌 골라내고 밭 일궈 차 씨를 뿌림서도 사실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될까? 하지만 어쩔겠소. 바람은 힘들어 불지 않고 물은 애써 흐르지 않는다 안하요. 씨를 뿌렸으니 기다릴 밖에. 그렇게 가만 놔두니 서로 뺏고 뺏기면서 들풀과도 친해지는 갑니다. 유기농으로 차농사를 짓다보니 첫물차로 만족해야 하고 수확도 어렵었지만, 적으면 적은대로 감사하면 그만이지.”

오근선. 해가 바뀌어 이제 선셋. 해남 북일면 흥촌리, 두륜산 남쪽 야트막한 자락에 1만여 평 차밭을 가꾸는 자칭 설아다원(設芽茶園) 상머슴. 좋은 땅에 좋은 차를 심고 가꿔 좋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욕심에 바빠도 재미지고 즐겁게 농사를 짓는다는 사람.

송지면 미야리에서 나고 자란 오근선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그 또래가 그랬듯이 무작정 상경을 감행한다. 그러나 고무신 끌고 올라온 해남 촌놈은 곧 서울에 압도당한다. 가방공장에 취직해 얼마간 지내며 서울깍쟁이 흉내도 내봤지만 이질감만 더해갔다. 결국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고향이라는 생각에 서둘러 해남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땅 한 뼘이 없던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청미에 풀나락 투성이인 논에서 궁구르며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도 밭만 느는 한심한 현실에 울화가 치밀었다. 먹고 살려고 광주에 나가 네댓 달 ‘보일러쟁이’도 해보고 해남으로 돌아와 선배 병원 사무장으로도 있었지만 모두 맞지 않는 옷들이었다.

그때, 고천암 간척지 사업이 시작됐다. 이거다 싶었다. 곧바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80ha, 24만평이 넘는 소금물 덜 빠진 논을 위탁받았다. 주변의 술한 우려 속에서도 첫해에 이미 영농자금으로 대출받은 빚을 다 갚고, 적은 돈이나마 조합원들끼리 이익 배분도 했다. 다음 해부터는 탄탄대로였다. 그렇게 12년을 고천암에 매달리며 북일에 땅도 사고 제법 큰 농사꾼 소리도 들었다.

그런데, 90년대 접어들며 벼농사판 돌아가는 추세가 “영판 거시기” 하더라. 그래서 찾은 게 전망 꽤 좋은 대채 작물이었고, 그게 ‘차’였다. 오근선은 좋은 차를 얻기 위해 금방 수확할 수 있는 차나무를 심는 대신 일일이 차 씨를 뿌렸다. 일조일석에 뭔가 이루기를 바란 건 아니었기에 첫 수확을 위해 기다리는 7년의 시간이 힘겹지만은 않았다.

그렇게 만든 차가 입소문을 타자 다원을 찾는 이들도 부쩍 늘었다.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한옥과 황토구들방도 들었다. 앞마당에서 여는 한옥음악회는 매번 성황을 이룬다. 주객 모두가 차를 통해 문화와 접하며 마음도 풍요로워졌다. 차가 주는 큰 혜택이었다. “금메, 농사꾼이라고 어디 땅만 파고 김만 매간디요. 사람 마음에도 씨를 뿌리고 향기 좋은 삶의 결실도 맺어야제. 자연의 이치뿐 아니라 사람살이 이치도 꿰고 있어야 진짜 농사꾼이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차문화 공간’을 꿈꾸는 오근선은, 인터뷰를 마치자마자 세상 두루 만나며 진짜 농사꾼이 되는 공부를 위해 두 달을 작정하고 미안마로 여행을 떠났다. ㅁ







꽃이 저야 열매를 맺는다

해남 미황사

해남 미황사는 전쟁에 패한 장수가 낙향해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운 채 건너편 논에 물이 들어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그런 절이다. 때로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 쌀 한 톨을 생각하며 잠시 피었다 지는 하얀 벼꽃 같은 절이기도 하다. 벼꽃은 ‘개화’라 하지 않고 이삭이 나온다 하여 ‘출수(出穗)’라 한다. 그렇다. 미황사가 아름다운 것은 절이나 주변 풍광 때문이 아니라 벼꽃 같은 내면의 출수 때문이다.

글· 이산하(시인)
사진· 구범석

땅끝 마을로 가기 전에 난 오른발은 일몰의 발자국을 찍고 왼발은 일출의 발자국을 찍고 싶었다. 그리고 나란히 찍힌 발자국들을 뒤돌아보며 어깨에 내려앉은 눈을 털고 싶었다. 올 한해를 내가 얼마나 깊이 살아왔는지, 또한 그 깊이가 얼마나 타인들과 더불어 적었는지를 발자국에 쌓인 눈을 보며 확인하고 싶었다. 확인은 뼈아픈 자기성찰의 첫걸음이다.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그가 걸어온 발자국을 보면 알 수 있다. 세상을 지탱한 발의 무게가 힘겨울수록 발자국의 주름살도 골이 깊을 것이다.

하물며 여기는 땅끝 마을이 아닌가. 더 이상 나아갈 수도, 더 이상 머무를 수도 없는 곳. 난 잠시 망명객처럼 서성거렸다. 원래의 간명한 모습으로 돌아간 겨울나무들 사이로 눈 대신 바람이 불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들은 모두 무심한 듯 치밀하다. 눈은 발자국을 남기고, 비는 지우고, 바람은 지워진 상처들을 쓰다듬고, 구름은 다시 지상의 척도를 가늠한다. 지상의 나는 나 스스로의 척도를 가늠한다. 난 나를 위해 얼마나 나를 비웠는지, 난 타인을 위해 얼마나 나를 버렸는지, 난 진보의 가치를 위해 얼마나 나를 진보의 수사로 위장했는지, 또 세상의 역주행이 계속될 동안 여전히 이런 자문을 반복할지, 거듭 나를 가늠한다.

달마산 미황사가 가는 길

서울에서 해남 달마산의 미황사까지는 천 리 길이 넘는다. 아침에 떠나 저녁에 닿았다. 시골 버스를 놓치거나 휴대폰을 분실하는 등의 여러 우여곡절로 예정보다 늦어졌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스럽게 미황사 절경 가운데 하나인 낙조를 놓치진 않았다. 까치집에 불을 켜듯 진도 바다로 떨어지는 석양은 달마산과 미황사를 붉게 물들였다. 배흘림기둥에 머문 영주부석사의 석양이 슬플 이유 없이도 슬퍼지는 빗깁이라면, 미황사의 석양은 슬퍼도 슬퍼할 수 없는 빗깁이다. 지금까지 가장 애틋한 절로 내 가슴에 새겨진 것은 화순 운주사였는데, 이제 미황사도 그럴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석양이 사라지고 완전히 어두워지자 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띄엄띄엄 솟은 별들은 때로는 나무들의 간격처럼, 때로는 목탁 소리의 간격처럼 일정한 순간을 유지하며 빛났다. 문득 저 모든 별빛들이 수만 년 전의 별빛이란 생각이 들자 내 몸이 분열되어 아득하게 흩어졌다. 지금까지 허상에만 집착한 탓이다. 그래도 태양이 사라지면 8분밖에 해를 볼 수 없지만, 별은 사라져도 최소 4년 이상은 별빛을 볼 수 있어 애써 위안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사라지면 나의 별빛은 몇 년 뒤에까지 빛날 수 있을까... 실체는 짧고 허상은 길다. 산사의 별빛이 묵언으로 나에게 전한다. 나를 쳐라. 그리고 모든 허상을 쳐라.

아득히 흩어진 몸을 겨우 수습해 경내 주변의 오솔길을 걸었다. 어두워서 동백꽃은 보이지 않았다. 묵언수행 중인 몇몇 스님들의 방에 불빛이 보일 뿐 모두가 잠든 밤이었다. 추위 탓인지 내 발자국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새소리도 풀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저미도록 적막한 산사의 밤은 더욱 깊어갔다.

새벽 예불

이른 새벽, 잠결에 어디선가 자박자박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일어나 대웅보전 앞으로 갔다. 새벽 예불 참관을 위해 어제 밤 옷을 입은 채 그대로 잠들었다. 스님 한 분이 법당으로 들어가 불상 앞에 촛불을 켜고 향을 피웠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로 나가 3배 후 목탁을 두드리며 도량을 깨웠다. 산사의 새벽을 알리는 도량석(道場釋), 어둠을 걷고 빛을 품듯 중생의 미혹과 번뇌를 걷어 깨달음을 얻는 의식이다. 스님의 법문이 시작되었다.

“동방을 찢어내 맑은 도량이루고 남방을 찢어내 청량함으로 장엄하고 서방을 찢어내 안락정토 만들고 북방을 찢어내 영원토록 평안한 곳 이롭니다. 도량이 청정하여 더러움 없사오니 삼보님과 천룡님네 이 도량에 오시옵소서.”

이윽고 도량석이 끝나자 청운당 옆의 범종각에서 스님 한 분이 천천히 종을 울렸다. 범종각에는 종 외에 범고와 목어, 운판은 보이지 않았다. 범종 소리가 달마산의 잠든 나무와 새들을 깨운 다음 멀리 진도 앞바다로 나가 물고기들의 지느러미를 어루만졌다. 보통 범종각에 있는 불전사물(佛殿四物)은 범고와 목어, 운판, 범종을 말한다. 범고는 지상의 생명, 목어는 물속의 생명, 운판은 공중의 생명, 범종은 지하의 중생들에게 들려주는 법문이다.

불전사물의 울림은 속세를 비롯한 산사대중 모두 이 새벽 예불에 참여해 함께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자는 뜻이다. 스님들만의 수행과 성불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더불어 성불하자는 지극한 마음이 담겨 있다. 원래 절의 언어는 침묵과 소리이다. 목탁 소리와 종소리, 북소리, 독경 소리, 풍경 소리 그리고 물소리, 바람 소리, 빗소리, 새소리 같은 것들이면 충분하다.

범종 소리가 멈추자 새벽 4시쯤 마침내 대웅보전 법당에서 새벽 예불이 시작되었다. 미황사의 원칙대로 스님들을 비롯해 이 산사의 모든 대중들은 빠짐없이 참여한 듯했다. 스님들과 방금 범종 소리에 눈 뜬 대중들이 큰 절 3배를 올린 다음 합송을 했다.

“제가 지금 맑은 청정수를 감로차로 변하게 하여 불법승 삼보전에 받들어 올리오니 원컨대 어여뻐 여겨 거두어 주옵소서.”

청정수가 신심이라면 감로차는 깨달음이다. 맑은 신심으로 깊이 수행하여 자신을 일깨우겠다는 계송이다. 새벽 예불은 그 자체가 하나의 법문이다. 나도 부처가 되겠다는 발원의 시간이자 천지의 못 생명들과 더불어 깨달음을 이루자는 약속의 시간이다. 그래서 어느 절이든 새벽예불이 가장 장엄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게다가 겨울 산사의 차가운 새벽 공기는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죽비와 다름없지 않나.

미황사주지인 금강스님도 주저 없이 이 새벽 예불이 미황사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그 중에서도 한겨울 음력 보름날 새벽에 하얀 달이 서쪽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인 다음 황금빛으로 변하는 깊은 침묵의 새벽을 으뜸으로 꼽는다. 새벽 예불 직전의 그 황홀한 순간에는 금강스님도 대웅보전으로 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춘 채 넋을 잃는다.

새벽예불이 끝나고 처소인 세심당 정진실로 돌아와 다시 몇 시간 눈을 붙인 다음 아침 공양을 했다. 스님들과 일반 대중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같은 공양간에서 같이 공양했다. 사찰 음식이 그렇듯 소박하고 담백하고 정갈한 풀밭이었다. 뷔페식의 반찬은 호박죽을 포함해 열 가지가 넘었다. 모두 말없이 식사한 다음 마지막엔 발우에 물을 부어 깨끗이 비웠다.





아침 울력

아침 공양을 하고 방으로 돌아와 ‘1박 룸메이트’인 40대의 노총각과 많은 얘기를 나눴다. 항공대 출신으로 비행기 부품 전문 기술자인 이 노총각은 벤처 사업을 하다 실패해 알코올 중독의 폐인 생활을 했다. 그러다가 수녀인 친누나의 소개로 이 절에 들어와 8개월째 자원봉사를 하며 심신수양과 자기 치유 중인 아주 ‘모범생’ 같은 인상의 남자다. 그가 지금까지 직접 경험한 절집 생활의 결론은 ‘훌륭한 절과 훌륭한 주지 스님’이었다. 그러면서 “이런 절이라면 머리 깎고 싶은 생각도 든다.”고 진담 같은 농담을 했다.

이때 밖에서 목탁 소리가 “딱, 딱.” 두 번 길게 울렸다. “아침 울력 신호예요.” 하고 장래 삭발할 전직 폐인이 파카를 챙기며 말했다. 나도 따라 일어났다. 대웅보전 앞으로 가니 계단에 수십 개의 빗자루가 있었다. 오늘 울력은 경내 마당 쓸기인 듯했다. 스님들과 일반 대중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템플스테이’나 ‘7박 8일 참선 수행 프로그램’에 참가하러 왔는지 외국인들도 여럿 보였다. 모두 일렬횡대로 서서 넓은 대웅보전 마당부터 쓸었다. 내 빗자루에 그동안 쌓인 오만과 독선과 탐욕과 위선 같은 먼지들이 쓸려나가기를 바랐다. 욕심이 과했는지 빗자루 살이 자꾸 부러졌다. 그러나 빗자루를 바꾸지는 않았다.

“절집 울력 때는 송장도 별떡 일어난다.”는 말이 있다. 예외가 없다는 말이다. 대중들이 함께 일하는 육체 노동 울력은 ‘운력(運力)’에서 비롯했다. 또 여럿의 힘을 구름처럼 모은다는 뜻에서 ‘운력(雲力)’이라고도 한다. 일반인에게는 노동이지만 절에서는 수행의 하나다. 땅끝까지 고뇌를 안고 온 사람이나 아이들과 가족여행 온 사람, 멀리 외국에서 템플스테이를 온 사람 등 미황사에서 하룻밤 묵었다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울력이다. 한문학당 기간에는 어린이들의 고사리 손도 동원된다. 스님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자연과 대화를 갖는 시간이기도 하다.

아침 울력 시간에 함께 대웅보전 마당을 쓸었던 금강스님을 세심당 차실에서 다시 만났다. 내 산사 기행집인《적멸보궁 가는 길》을 드리자 스님도 《땅끝마을 아름다운 절》이란 저서를 꺼내 사인을 했다.

“물고문 좀 받으러 왔습니다. 하하.”

“아, 그래요? 실컷 해드리지요. 하하.”

“고문실치고는 책이 참 많네요.”

“기술자가 되려면 이론도 겸비해야 돼서... 하하.”

금강스님(48)은 1989년, 한때 400여 명의 스님과 열두 암자를 거느렸던 미황사가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절로 왔다. 그리고 2년 후 떠났다가 다시 2000년에 돌아와 주지를 맡았다. 백양사 운문암에서 공부하다 잠시 들렀는데 발목을 잡혔다. 그때까지 주지였던 현공스님이 자리를 내놓고 사라진 것이다.

등 떠밀려 주지가 된 금강스님은 세심당 차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혼자 마시면 주지가 빈둥거리는 것 같아 아무나 잡고 차를 권했다. 얼마 후 ‘미황사에 가면 주지 스님이 차도 공짜로 원 없이 주고 인생 상담도 해준다’는 소문이 퍼지자 방문객들도 늘어났다. 하루에 마시는 차도 수백 잔이었고, 자연스레 ‘물고문’ 같은 별명도 붙었다. 스님이 따라준 작설차를 마셨는데 맛이 썩힐 정도로 좋았다. 폐사지나 다름없던 절을 이렇게까지 만든 것은 기적이라고 감탄하는 사람들이 많아 물어보았다.

“처음 여기 왔을 땐 세 달이나 아무도 없이 버려진 절이었어요. 1,300년 전에 지은 거찰이 퇴락해 대웅전과 응진전 밖에 없었고, 경내가 전부 잡목과 덩굴로 뒤덮여 은사스님과 매일 눈만 뜨면 마당의 나무와 잡초들을 베고 돌을 날랐어요. 그렇게 마당에 햇빛이 들도록 터를 닦는 데만 꼬박 2년이 걸렸지요.”

예불 시간을 빼면 일만 하는 금강스님을 가리켜 사람들은 ‘지게 스님’이라고 불렀다. 터를 잡은 뒤 금강스님은 꼼꼼하고 믿음직한 현공스님(현재 미황사 회주 스님)을 불러 주지를 맡긴 다음 전국 선방과 백양사로 들어가 수행에 전념했다. 현공스님이 이때부터 금강스님이 닦아놓은 터에 명부전을 비롯해 삼성각, 만하당, 부도암 등을 하나씩 짓기 시작해 오늘날의 아름다운 미황사에 이른 것이다.

2000년부터 금강스님은 한문학당을 비롯해 템플스테이, 7박 8일 참선수행, 괘불재, 산사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매년 미황사 방문객이 10만 명을 넘는다. 연간 템플스테이 참가자도 5천 명을 넘어 여느 대사찰보다 배로 많다. 가을 산사음악회와 괘불재 때면 머나먼 산골의 작은 절은 전국에서 운집한 2천여 명으로 북적인다. 퇴락한 천년 고찰에서 현대 사찰의 모델로 떠오른 미황사의 주지 스님은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있는 듯했다.

“절의 주인은 주지가 아니라 절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이 차별 없는 ‘승가’ 공동체 모델을 만드신 것처럼 미황사도 출가자만의 수행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새로운 공동체 모델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인도, 티벳, 일본, 태국, 미얀마 등 세계 웬만한 수행센터는 거의 다녀왔지요. 여건은 천 년 이상의 역사 기반이 받쳐주는 한국이 가장 좋아요.”

금강스님은 사람들이 절로 찾아오기 전에 늘 먼저 주민들에게 다가갔다. 가뭄 때는 주민들과 기우제를 지내고, 매년 정초에는 빠짐없이 마을로 내려가 당제를 지내 주었다. 또 마을 초등학교 분교가 폐교될 위험에 처하자 앞장서서 분교 살리기 운동을 펼쳐 전교생 5명인 학교를 통학버스까지 운영하는 전교생 50명의 학교로 되살려 놓기도 했다. 오랫동안 차담을 나누고 일어서자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가실 때 미황사 온 기념으로 동백꽃 한 송이만 곱게 꺾어가세요.”

“아마 범정스님이 열반 전 마지막으로 본 꽃도 여기 미황사 동백꽃이었지요?”

“아, 그걸 어떻게...”

나는 차실 밖으로 나왔다. 비가 조금씩 내렸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스님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멀리 내다보며 통찰하고 성찰하는 스님은 처음이었다. 아마도 스님은 ‘소통과 배려’라는 1차 화두 다음에 올, 미황사 공동체의 2차 화두를 그리고 있는 듯했다. 문득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는 화엄경의 말이 떠올랐다. 미황사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단청이 벗겨졌지만 그대로 둔 대웅보전을 다시 둘러보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였다. 주춧돌에 새겨진 거북이와 꽃게, 천정의 일천불 벽화와 금색의 두루미들 그림, 범자 글씨들이다.



비를 맞으며 부도전으로 가는 달마산의 고요한 천년숲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봄이면 박새나 휘파람새, 곤줄박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릴 것이다. 미황사는 옛날부터 선객스님들이 참선하던 도량이어서 그 흔적이 부도 밭에 많이 남아 있다. 부도는 죽은 큰스님들의 사리를 모은 불교식 무덤이다. 500미터쯤 걸으니 동쪽에 21기의 부도와 5기의 탑이 나오고, 다시 서쪽으로 100미터쯤 가니 6기의 부도가 울창한 숲에 싸여 있었다. 모두 1700년경부터 세워졌는데, 부도에 새겨진 모습들이 마치 어시장과 동물원에 온 듯 절로 웃음 짓게 만든다. 대웅전 주춧돌에도 새겨진 꽃게와 거북이를 비롯해 문어, 오리, 물고기들, 원숭이, 토끼, 용머리, 도깨비, 연꽃 등의 문양들은 종교적인 권위를 드러내기 보다는 어린아이의 그림처럼 천진난만했다. 특히 열심히 방아 찧는 토끼나 점잖게 한쪽 다리를 꼬고 있는 황새, 물고기를 꼭 물고 있는 꽃게들이 더욱 그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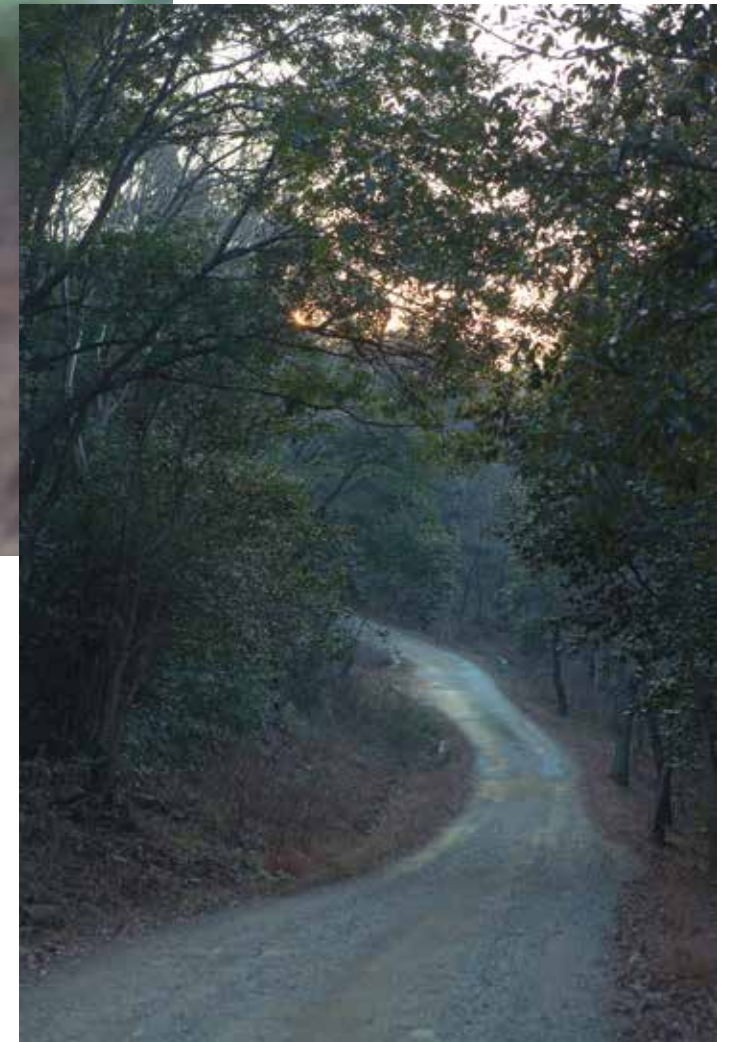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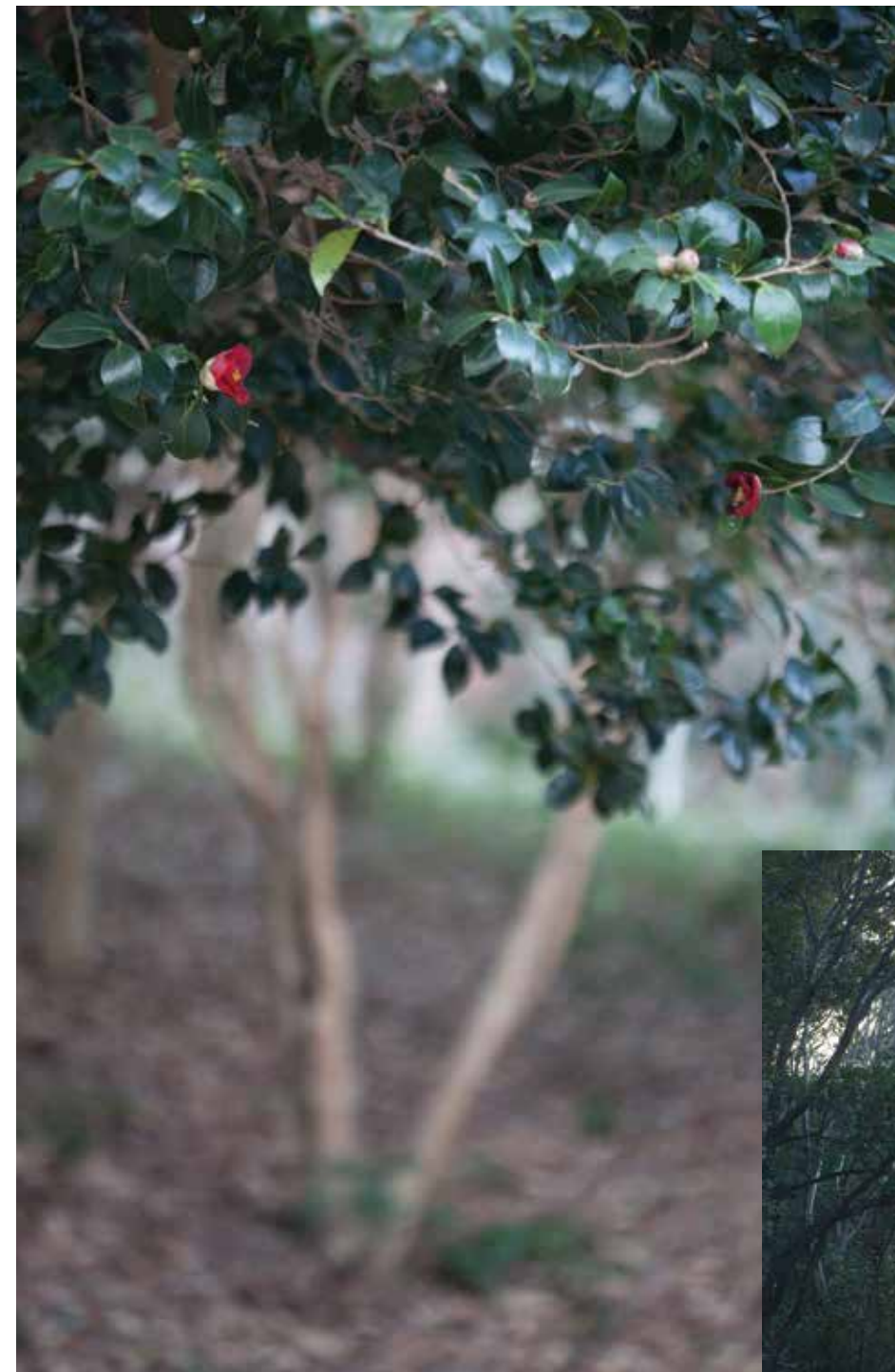


미황사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동백 숲을 향해 내려갔다. 금강스님이 곱게 꺾어가라고 허락한 한 송이 동백꽃이 눈에 아른거렸다. 2010년 3월 법정스님 입적 전날, 금강스님은 인편을 통해 눈맞은 미황사 동백꽃과 매화를 병실의 법정스님에게 전했다. 그때 법정스님이 고향 해남에서 온 꽃을 보며 말했다.
“내가 못 가니까 네가 왔구나.
멀리서 오느라 고생 많았다.”

그 며칠 전에도 금강스님은 보고 싶다는 법정스님의 말을 전해 듣자마자 병실로 달려가 껌차를 빌며 동백꽃과 매화를 직접 전했다. 금강스님과 꽃을 본 법정스님이 눈물을 흘렸다. 금강스님은 고등학교 때 물리선생님이 준 육조단경이란 책과 대흥사 지운스님의 서가에서 뽑은 법정스님의 《말과 침묵》을 읽으며 불교의 매력에 푹 빠졌다. 그리고 졸업식 다음날 첫차를 타고 해인사로 가서 정식으로 행자 생활을 시작했다. 금강스님은 동백꽃이 두 번 핀다고 했다. 첫 번째는 겨울에 처음 필 때고, 두 번째는 그 꽃이 봄에 통째로 떨어졌을 때 다시 핀다고….

나는 동백숲에서 끝내 동백꽃을 꺾지 못했다. 실은 나를 꺾지 못한 것이다.

12월 말,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았는데, 다시 또 돈다. 그동안 나는 타인이 아니라 내 주위만 돌았다. 어쩌면 진보적 수사의 근원은 천동설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또한 타인이 내 주위를 돌기를 바라는 내 본성의 거처인지도 모른다. 모든 것들을 비워가는 땅끝 마을의 겨울. 법정스님이 ‘감춰두고 싶은 절’이라고 한 그 미황사, 난 살을 내주고 뼈를 거둬 퇴각한다. 하얀 눈발에 떨어진 붉은 동백꽃처럼 더 이상의 퇴로는 없다. 퇴로가 차단된 땅끝 마을의 미황사는 그러므로 모든 인생의 아름다운 옥쇄다. 열매를 맺기 위해 아름다움을 버리는 꽃의 옥쇄. 또 아름다움을 버려야만 비로소 아름다움이 완성되는 꽃. 미황사는 그런 꽃이다. ㅁ





돌아서니
그 맛,

혀에
삼삼하다

어지간해서는 부족함 모르는
넉넉한 들과 바다 덕인지,
그 안에서 자라 조바심 내지
않는 특유의 성정 때문인지,
해남 사람들은 먹는 것에
유난하지 않다. 찌르는 듯한
간도 없고 이거다 싶은 색깔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또 상을
받아보면 맛난 건 다 자시고
사는구나 싶다. 해남에서 만난
‘개미진’ 맛의 풍경.

글·박찬일(요리사)
사진·구범석

외지인의 짐작인지는 몰라도, 해남
음식은 심심하고 통이 크다. 가끔
짜다리를 짚고 서서 만전을 피울
때도 있다. 흔히 호남 음식이 보이는
인상에서 한편 비켜져 있는 듯하다. 간도
찌르는 것 같지 않으며, 먹다가 속 쓰릴
일도 없다. 그 실마리는 한창기 선생이
발행한 《한국의 발견》 시리즈 해남
편에서 설핏 보인다. 이른바 해남 ‘푹나락’
론이다. 해남 사람들이 여유롭고 성품이
다사롭다보니, 이웃 지방에서 샘을 내
그런 말을 꺼냈다는 것이다.

해남은 전라남도 전체에서도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내는 군에 든다. 또한 산지
비율이 뚜렷하게 낮고 전답이 많다보니
경지 면적도 도에서 첫손가락에 꼽힌다.
당연히 삶에 여유가 묻어난다. 그런
환경과 성정은 음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넉넉함 탓인지 음식에 또렷한 색깔이
나타나진 않으나, 무엇이든 아우르는
여유가 보인다. 해남을 열댓번 방문하며
이것저것 먹어보고 느낀 내 나름대로의
소감이다.

“해남에 뭐 먹을 것 있소. 그래도 개미진
것 찾소잉? 그라믄 없는 건 아니지라.”

뜨내기가 해남의 미식을 물으면 해남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답한다. 맛있는
식당을 찾아도 곧장 질러서 어디어디가
맛있다고 하는 법이 없이 “읍내에
이런저런 식당에 많이들 가긴 갑디다.”가
고작이다. 그래서 해남의 맛을 보려면 좀
기다려야 한다. 맛에도 깨우치는 초발심
(初發心)이 있을 것이며, 나는 그걸 해남
음식에서 종종 느끼곤 한다. 속 정 깊은
맛, 에돌아가는 맛, 은근한 맛. 본디 본질
이란 부처가 벗어버린 낡은 가사에 있다고
하는 역설 같은 것이다.

개미진 걸 찾자면 없는 건 아니다

전라도의 맛을 개미지다, 개미가 있다,
개미가 쏴쏴하다고 표현한다. 감칠맛이
있고, 입에 붙는다는 뜻이다. 이 고장의 그
‘개미’는 ‘이것이로다’하고 곧바로 오지
않는다. 이를 테면, 여수 장어랄까, 고흥
매생이와 굴, 완도 김, 흑산도 홍어처럼
탁월한 한 가지의 음식이나 재료를 먼저
들이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미진 걸 찾자면 없는 건 아닌’ 것이 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펴낸
《대한민국 팔도 식재총서》의 해남 편에는
주요 산물이라고 감자와 고구마, 쌀과
배추를 적어 놓았다. 해안선이 300킬로가
넘는 엄청난 군에서 모두 밭과 논 작물을
씨 놓은 것이다. 이것은 해남의 역사를
우회적으로 설명하는 열쇠이다. 돈 되는
쌀과 작물을 충분히 얻어온 생래적
토대를 말해준다고나 할까. 짓갈 하나를
봐도 알 수 있는데, 전여밤젓이니
갈치숙젓이니 하는 전라도 특유의
맛깔스러운 젓갈을 예의 상식(常食)
하면서, 맛있는 식당이라면 어디든지
빠뜨리지 않고 내놓는 것이 토하젓이다.
토하젓은 문자 그대로 흙새우라 민물에서
나는 새우가 아니던가.

장과 초가 좋으니 혀가 깨어나고

해남에는 100년 넘은 씨간장을 보듬고
여투어주는 집이 있다. 해남의 가문 중심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텐데, 이는
발효음식을 소중히 해온 세도 있는 이
군의 음식 역사를 상징하기도 한다.
삼국지 위지동이전 ‘고구려조’에 고구려
사람들이 발효음식을 잘 만든다고 했는데,
기실 장과 초(醋)의 고갱이는 반도 남쪽에
몰려 있다. 아무래도 더운 지방에서
발효다루는 것을 더 중시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읍내에 있는 좌일해물식당의
윤정심(56) 씨 집에서 맛본 음식에도
어김없이 좋은 초가 느껴졌다.

“궁계, 막걸리로 초를 담그는디, 씨를
버리는 법이 없소. 여그선 다들 그렇게
한당게요.”

생선 회 한 점을 씹어도 초가 좋으니
거슬리지 않는다.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대량으로 만든 초장에 질린 사람들의
혀가 활짝 깨어난다. 역시 장과 초는 한국
음식의 기초다.



윤 씨의 식당에서 한 상을 걸게 받았다. 삼치가 상에 오르는데, 구이가 아니라 회다. 삼치회 하면 여수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도회지 사람들의 선입견을 부순다. 이런 식인 거다. 옆 고을에서 뭐가 좋으네, 뭐가 유명하네 하는 동안 해남은 그저 가만히 뒷집 지고 있는 듯하지만 맛난 건 다 자시고 있었던 셈이다.

“해남에 삼치가 많으냐고요. 뭐라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늘 먹던 건디, 뭇 자랑하기도 그렇고.”

윤 씨의 설명을 듣는 동안 삼치가 입에서 녹는다. 반질반질하고 새침한 보통 횡감과는 달리, 은은한 중간색에 옅게 번지는 분홍색 파스텔톤이 멋지다. 이것 역시 원색처럼 똑 부러지는 제 잘난 맛을 저어하는 해남의 성정이자 색깔이 아닐까 생각하게 한다. 좌일해물식당은 35년을 이어온 집이다. 좌일이란 이름은 북일면에서 온 것이다. 북일은 바다와 면해 있다. 사실 해남 열 몇 개면에서 바다에 접하지 않은 곳은 하나밖에 없을 만큼 해남은 곧바다다. 그러니 자연스레 해산물이 많을 수밖에.



반지락 초무침에 구운 낙지 한 점

바지락회가 상에 오른다. 해남 말로 ‘반지락회’다. 물에 넣고 씻으면 바지락 바지락하고 소리를 낸다고 해서 바지락이라던가. 그 예쁘고 맛있는 조개를 반지락이라고 부르니 운치 있고 귀엽게 느껴진다. 바지락을 슬쩍 삶아서 일일이 깬 후에 예의 초를 넣고 무쳤다. 역시 맛은 자극적이지 않다.

바지락은 봄에 맛이 가장 좋다. 음력 2월 초하루 영등살에 가장 맛이 좋다고 윤 씨는 말한다. 보통 조개는 개나리 피고 절정이라는 말과 통한다. 영등살이란 조수 간만의 차가 가장 심한 날로, 바다가 환히 드러나 조개를 캐기 좋다. 바다가 갈라져서 ‘한국판 홍해의 기적’이라고 하는 유명한 진도 바닷길 축제도 이 영등살에 치른다.

바지락회에 이어서 볶듯이 구운 낙지가 나왔다. 비옥한 갯벌 덕분에 낙지는 본디 해남의 유명한 산물이었다. 지금은 간척사업으로 갯벌이 많이 사라졌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어림잡아 4천만 평이 간척지화 됐고 남아있는 것은 150만 평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 갯벌의 가치를 먼저 알아챈 건 외국의 학자였다. 우리는 세계 3대 갯벌이니 뭐니 이제야 그 가치를 깨달은 바, 황망하기 그지없다. 새만금과 해남의 간척지는 그렇게 탄생한 고통스러운 현재다.

“낙지는 아직도 많이 나오지라. 뺨에서 잡고 물 때 따라 어장(통발 등)으로도 잡는당개.”

해남 갯벌은 흙이 곱고 질며 구수한 냄새가 난다. 아낙들이 한겨울에 바지 위에 장화를 신고 낙지를 잡는다. 손으로도 훑고 삽으로도 잡는다. 날카로운 바람이 부는 바닷가에서 허리가 휠 작업이다. 그렇게 잡은 낙지가 각종 장과 읍내 상설시장에서 팔리고, 더러는 식당으로 곧바로 팔린다. 갯벌에 나가서 보니, 외지의 활어차가 와서 잡은 낙지를 곧바로 수매한 후 실어갔다.



달보드레하고 진한 ‘꿀’맛

좌일해물식당 주인장은 떡 벌어진 상을 받아놓은 우리에게 밥 먹는 법을 가르친다.

“토하젓 넣고, 낙지 넣고 썩썩 비비썩썩. 그래야 맛이 조응께.”

이런 별미가 없다. 역시 한국인은 비비는 데 익숙하다. 남도 음식의 풍류객 송수권 시인이 말했듯이 비비는 건 한민족의 귀납적 경험의 맛이다. 그는 비빔밥에 ‘엥기는’ 맛이 있어서 좋다고 쓴 바 있다. 아니나 다를까, 척척 안기는 맛이 개미지다.

마무리는 매생이 굴국이다. 매생이도 고흥 것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해남 사람들도 오랫동안 먹어왔다. 감태라고 부르는 초록빛 씩씩한 해조도 마찬가지로. 하긴, 해조란 남도의 어느 바다에서나 흔히 붙는 것인데 최근에 와서 각기 이름표를 달고 상품화되거나 유명해졌다. 매생이가 시집 온 큰 애기의 잘 빳은 머리칼 같다면, 감태는 열세 살 천둥벌거숭이의 막 빳은 머리칼이다. 굴이 녹진하게 들어 있는 국이 아직 추운 겨울 끝에 제격이다.

“꿀 좋아하시지요잉. 해남 꿀이 어땡소?”

통영이나 해남이나 경상도 전라도 없이 남도에서는 굴을 꿀이라고 부른다. 꿀 맛이 꿀맛이라고 대답한다. 아닌 게 아니라 해남 굴은 개체의 크기가 크지 않은데 달보드레하고 진하다. 그 이유가 있다.

“여그 꿀은 통통하진 않아라. 바람에 햇빛에 노출되니까.”

연승 수하식이라고, 줄에 매달려 바닷속에서 살찌는 통영 굴과 달리 해남 굴은 간만에 따라 물 밖으로 노출된다. 예전 송지식 양식법이라고, 소나무 말뚝을 박아서 굴을 얻는 방식이다. 소나무에 붙어 자라던 굴이, 나무가 삭고 사라지면 알아서 갯벌 위에 ‘굴밭’을 조성한다. 대를 이어 번식하고 죽은 굴 껍질이 바닥에 단단하게 응고되기도 하면서 거대한 ‘밭’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산이라고 불려도 된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그냥 주워오는 게 전부다.



검약과 전래의 불박이 식탁

좌일식당 밥상엔 생선회도 몇 점 올라왔는데, 주인 윤 씨는 어려서 홍어와 상어회를 많이 먹었다고 한다. 상어라니. 주로 돔바리(두툽상어)라고 부르는 자그마한 녀석과 죽상어다. 돔바리는 그날그날 올라오는 해산물로 상을 차리는 북일면 ‘사거리식당’에서 다시 만났다. 해남에서 회를 좀 먹자면 어디서든 어렵지는 않겠지만, 이 집의 수수하고 독특한 정서가 좋다. 초저녁이면 일 마친 동네 사람들과 어깨를 맞대고 진한 남도 사투리 속에서 술추렴을 거들 수 있기 때문이다. 드르륵 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고무다라이 두어 개는 그 자체로 메뉴판이다. 해남 바다에서 잡힌 생선들이 주인 아낙의 무지막지한(?) 칼날에 난도질되어 상에 오른다. 막 새봄의 간재미와 돔바리가 뽀뽀 썰기 된 놈을 막걸리초장에 찍었다. 해남하면 막걸리가 또 여간 유명한 게 아닌데, 이 조합은 환상이다.

송수권 시인은 “한정식은 낮이 아닌 밤에 먹는 상이다. 주인 마나님의 치마폭에 일필휘지의 묵향이라도 묻어나야 한다.”고 했다. 남도 한정식의 풍류를 의미하는 발언일 것이다. 한정식을 흔히 “가짓수만 많고 먹잘 게 없다”는 비평에 더해 그는 고갱이를 짚어주기도 한다. 이런 거다. “(한정식은 그냥) 모듬상이 아니라 찬 것 더운 것 부드러운 것 딱딱한 것이 고루 있는 상이다. 그냥 푸짐하기만 한 건 신성모독 죄다.”라고 썼더랬다. 한정식은 “선풍(仙風)을 파는 검약과 전래의 불박이 식탁”이라고도 했다. 구절구절 맞는 말씀이다.

읍내에서 유명한 성내식당에 갔다가 그 말이 생각났다. 성내식당은 이 고장의 정서에는 특이하게도 소 샤브샤브를 파는 집인데, 고기 상을 물리고 나면 딱 송수권의 말에 부합하는 밥상이 올라온다. 그냥 모듬상이 아니라 맛있게 한 상을 비울 음식들만 올라오는 것이다. 한정식은 아니나, 반찬에 들인 공이 그 의미를 말해준다. 양하며 토하젓이 올라온 게 심상치 않은 것이다. 이 지역에서 ‘양애’라 부르는 양하가 무점으로 상에 있다. 씹쓸하고 매운 맛이 은근하다. 최승범 전북대 명예교수가 “탁한 술집에 있어도 신선 세계나 있을 법한 선미(仙味)랄까, 신선한 맛을 주는 선미(鮮味)가 있는 채소”라고 말했던 그 양하 말이다. 고기를 먹고 양하를 씹으니 기름진 맛을 개운하게 가셔준다. 미당이 ‘양하나물’이라고 시를 썼던 그것이다.





바다와 땅을 아우르는 맛의 진경

성내식당은 돈이 모이고 풍류가 있는
전라남도 읍내 식당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 특히 지청과 지원, 경찰서,
군청 같은 권력 기관이 모인 읍내에서
남성들이 모이는 은밀한(?) 미식 공간이다.
관공서 뒷골목에 있는 전형적인 ‘권력
2막’의 풍경을 끌어온 것이기도 하겠다.
당연히 한 상 벌어지게 차리고, 좋은
고기가 빠질 리 없다. 여기에 이 집의 명물
소 새끼보점과 미자탕은 그런 남성 공간의
상징성을 복돋운다.

“고기는 화로에다 귀야 하는데, 여긴
자리도 좁고 항게 샤브샤브를 했다
그라요. 원래는 송아지를 찜으로
냈답디다. 송아지 구하기가 어려워지게
샤브샤브로 바꾸셨어라.”

이 집 사위 최중석(45) 씨의 말이다.
미자탕이라는 건 소 생식기를 꼭 고아서
만드는 탕인데, 이 집의 ‘남성성’을
보여주는 오브제다. 미자(未子)라기도
하고, 남도에서 직장(直腸) 밑을 일컫는
사투리 ‘미자바리’의 한 버전인 듯도
한데, 그런 건 어슴푸레한 채로 잘 모르게
두어도 좋을 듯하다. 원래 저 아랫도리
사정을 꼭 부러지게 매조지하는 것도
양반은 아니니까.

된장 육수에 데친 좋은 소고기 한 점을
이 집의 명물인, 차곡차곡 쌓아놓은
차렷이불 같은 김자반에 얹어 먹으니
해남의 맛의 진경이 오는 듯하다. 바다와
땅을 아우르는 맛. 그리하여 평온하고
완전한 맛.

해남 밖으로 차를 몰아 나오니,
안개가 걷히는 듯 저 고을의 맛이 혀에
삼삼해진다. 돌아보면 과연, 들판은
너르고 산줄기는 평온하다. 배가
고파졌지만, 밥 사먹을 일이 막막해졌다. ㅂ



출렁이는
바닷것,
갯것

해남장과
남창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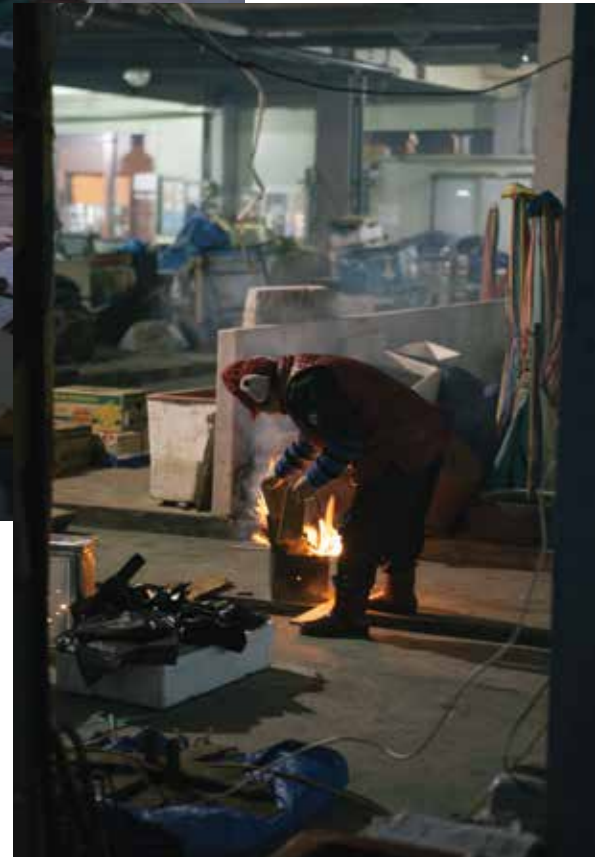
海南場

南倉場

아직 사위가 온통 암흑인
장터의 새벽. 상인들은 저마다
생선 껍질을 쪼개 넣고 불붙인
찌그러진 젓갈강통을, 그
붉은 불덩어리를 하나씩
안고 있다. 안개 같은 연기
너머로 장꾼들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추위에 더 달콤해진
굴은 그물망에 담겨 부러져
있고, 붉은 고무 다라이
안에는 돔바리며 까치상어가
여전히 숨이 붙어 팔딱거린다.
곳곳에서 아재들이 동태나
냉동된 부세를 떼어 내려고
내리치는 소리가 팡팡
메아리친다. 장터가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

글·최성우
(Boan1942 대표, 일백문화재단 이사장)
사진·구범석





새벽 5시. 해남장에 들어섰다. 함박눈이 쏟아져도 금방 녹아내리고 도무지 겨울이 겨울 같지 않은 해남의 수온주는 체감 온도와는 사뭇 다르다. ‘동래불사동(冬來不似冬)’은 순전히 말뿐이던가. 상상을 초월하는 냉기가 내복과 양말 두 개를 뚫고 살 속으로 파고든다. 온기 있는 곳이 절실해져 새벽부터 허영게 형광등을 밝히고 있는 ‘옥희네밥집’ 문을 무작정 밀고 들어섰다.

장꾼들의 아침 식사

밥 냄새보다 사람 냄새가 진동하는 식당 안. 알록달록하고 울룩불룩한 옷들로 철저하게 추위를 대비한 아집들이 원형 식탁 가득 둘러 앉아 밥을 나누고 있다. 뽕양게 김이 서린 안경을 들고 어리바리 서 있는 난데 뚱에겐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다. 아침 6시 반. 옥희네밥집에 밥이 떨어졌다. 새벽 2시부터 나오기 시작한 장꾼들이 4시 반부터 아침을 먹는 지라 밥술이 벌써 바닥을 드러냈다. 갓 지은 밥을 기다리며 장꾼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드문드문 아재들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어매, 아집, 이모들이다. 남정네들은 트럭으로 물건을 내려놓고 후딱 가버렸단다. 있어도 귀찮으니 보내버렸단다. “지름값이 아깝다.” 한다.

해남장 상인들은 강진, 진도, 완도, 장흥 등 일대 각처에서 오는 이들과 목포 등지에서 트럭으로 물건을 떼서 상인들에게 대주는 도방(도매)이다. 20년, 30년은 장터를 지키고 있어야 옥희네밥집 밥상머리에 한 자리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만 같았다. 갓 지은 3천 원짜리 백반으로 속을 든든히 하고 나왔더니 밝았다. 껍썩 거리던 장닭은 그새 목이 따져 연분홍빛 살을 드러낸 채 찬 공기 위로 김을 피우고 있다.

80년 넘은 호남 제일 장

1일과 6일에 서는 해남장은 대단했다. 해남군이 전국 시군 가운데 단일 면적으로 최대 크기라는 걸 생각하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차가 다니는 큰 길을 따라 난전 아집들의 채소전이 펼쳐지고, 넓고 좁은 골목을 따라 갯젓전, 어물전, 젓갈전, 또 외곽에는 옷이며 신발, 일상 용품을 파는 잡화전이 들어섰다. 처음에는 지금의 매일시장(상설시장) 자리에 있다가 1932년부터 현재 자리인 해남읍 고도리 중앙로 일대로 옮겨왔다.

천대전 해남오일장 변영희장은 “해남장은 수산물 위주고 상인들은 장흥 진도 목포 등에서 온다.”고 했다. 난전을 포함한 등록 상인이 600명 정도 되고, 난전의 40%는 외지 상인들이다. 삼면이 바다라 싱싱한 해산물도 많고 비옥한 땅이라 농산물도 좋다. 거래도 활발해서 도방 가운데는 하루 매출이 1억 5천만 원인 곳도 있다.

명절이면 고향 찾아온 이들이 몰려 장터 뒤편에서 막걸리대기 윗놀이판도 벌어진다. 경찰서에선 못하게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금방 40~50명이 모인다. 해남 인구가 7만 7천여 명, 해남읍에만 2만 5천여 명이 산다는데 그 숫자는 늘지도 줄지도 않고, 해남장은 여전히 전라도에서 가장 큰 호남 제일 장이다.

골목골목 엄니들이 지키고 있는 해남장

해남장 중앙2로 좌우는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들고 나온 아집들의 좌판이 차지한다. 끝내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한 아집은 치자물을 들여서 담았다는 노란 무(단무지)를 봉지 한가득 담아주며 5천 원이란다. 너무 많다고 아무리 손사래를 쳐도 소용없다. 공장에서 태어난 미끈한 단무지와 달리 가늘고 구불구불한 것이 굵기도 크기도 다 다르다. “다 내가 직접 농사지어 해 온 거여. 그니까 짜제. 고구마순도 썩도다 집에서 말린 거여. 나가 각시 때부터 ‘다깁 무(단무지용 무)’를 키웠당게.”



그 옆자리 오형심 아집은 “도라지도 국산, 냉이, 고구마, 호박 말린 거 다 국산이여. 냉이는 밀加里 묻혀 튀겨 먹으면 맛있제. 나가 낫(잔)돈이 없어서 잉, 2천 원 만 주소.”하며 검은 봉지 가득 냉이를 담아준다. 흙가루 하나 없이 다 다듬어 놓은 냉이. 2천 원은 다듬는 손 값도 안 된다.

해남읍장 275번지 젓갈 좌판에는 34년 공력의 호랑이띠 송공님 할머니가 계신다. “튀시기… 같이 허다 영감은 돌아가불고, 요즘은 김치를 잘 안 담그니까 장사가 잘 안 되제.” 영감님이 30년 넘게 앉으셨던 자리는 백년초 농장을 하는 딸이 물려받았다. 송 할머니의 토하젓 소개가 어찌나 맛나든지 눈앞에 해남 밥상이 한상 차려지는 듯했다.

“토하는 6월이 되면 새끼 칠라고 알이 빨갭게 통통하게 살이 올라. 7~8월은 잘잘하고. 요것을 고치가리, 깨가리 듬북 치고 쫓고치, 다마내기 쫓사 넣고 배나 있으면 갈아갓고 참기름 한 방울 탁 치면, 한 번 맛 본 사람은 언능 또 목장께 하제. 옛날에는 논에서도 잡고 저수지서도 잡았는데 지금은 약(농약)을 함께 못 잡고 논에서 키운 것을 쪼개 받아와.”

간척사업으로 다 망가졌다는 해남 갯벌. 이제 황산면 남쪽 바다 갯벌과 송지면 땅끝, 그리고 강진만을 앞에 둔 북일면 내동 갯벌 정도가 남았을 뿐이라지만 갯것전에는 여전히 단물이 배어나온 세발낙지며 그물망 가득 담긴 굴, 피조개, 켈꼬막, 참꼬막, 갯꼬막 등이 즐비하다.

갯것전 전진순 아집은 해남에 시집와서 10년쯤 다방을 하다가 아가씨들이 돈 떼먹고 도망가는 바람에 낙자(낙지) 장사를 시작했단다. “무조건 국산. 다 국산. 켈낙지, 진도 간재미, 북일 내동은 켈이 좋아서 켈 갯것이 많제.”

매생이 파는 아집은 “덜뜩덜뜩 하면 안 되제, 머리 빋듯 이쁘게…” 이쁘게 이쁘게를 연신 읊조리며 동백기름 발라 참빗으로 빋은 듯 곱게 다듬은 매생이를 좌판에 가지런히 놓는다. 매생이는 완도, 장흥에서 오는데 잡조류가 붙어 있으면 잘 안 팔리기 때문에 일일이 손질해야 한단다. 그 옆 아집은 새벽부터 맨손으로 자해(자하, 작은 새우)를 고르고 가르느라 손이 땡땡 불었다.

어물전에는 겨울이면 눈이 완전히 멀어 정신을 못 차리다 잡혀온 ‘눈 먼 숭어’, 오독오독 씹히는 게 제 맛이라는 진도 간재미, 해남에선 큰놈을 ‘병짜’라 부르는 병어, 전어, 대구, 쏜탕이, 우럭, 줄복, 까치상어, 참돔, ‘셋서방 고기’라 부르는 딱돔, 또가사리, 그리고 ‘소고기 보다 삼치’라는 해남 특산물 삼치 등 사방 출렁이는 바닷속 생명체들로 구경꾼 눈이 휘둥그레진다. 삼치회는 부드러워서 이 없는 노인들도 즐겨 드신다는데 살이 무르고 선어 보관도 어려워 내륙에서는 구경하기도 힘들다.

갯것전 초입에는 땡땡땡 쇠망치 소리가 요란하다. 해남장 대장간. 까만 쇠가 1,200℃불 속에서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오른다. 1,200℃까지 열을 가한 다음 900℃쯤에서 식히고 두드려야 좋은 연장이 만들어진다는데 그 적절한 온도는 35년차 대장장이의 감으로 알 수 있다는 최행복 씨. 녹슨 철판 화로 옆에 재래식 솥돌이, 좌판에는 호미며 낫, 썰이, 식칼이 가지런히 놓여있다. 대장간 일은 아버님 때부터 이어온 가업이다. 몸을 다쳐 쉬고 있다가 장터에 흥이나 더해볼까 싶어 다시 시작한지 이제 2년째란다. 행복 씨 옆으로 버스 시간 늦었다며 연신 재촉하는 할머니, 낫 들고 온 아집, 망치 자루 고치러 온 아재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땡땡 수선해줘야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행복 아재의 망치질은 아집, 아재들의 독촉에 더 빨라진다.

천대전 번영회장은 “정선오일장이다 어디다 전국 유명하다는 오일장을 다 다녀봤지만 부녀 위원이며, 시설, 규모, 매출에서 해남장은 빠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농협 하나로 마트를 못 짓게 하려고 4년을 싸웠는데 ‘유통산업발전법’에 저촉이 안 되서 결국 작년에 들어섰다고 한다. “시장에서 멀리 떨어진 데다 짓는 걸로 합의는 봤다.” 외지 사람 눈에는 마트가 생긴들 이 기운찬 해남장을 위협할 수 있을까 싶지만, 장꾼들의 걱정과 푸념은 만만치가 않았다. 그래서인지, 해남장은 이제 ‘해남 땅끝관광시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오일장 재개발’에 나선다. 도청과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시장 투어며 특산품과 연계한 축제, 해남 배추 체험 시장, 한옥 두부 공장, 한옥 대장간, 7080 휴게실 등을 계획 중이다.





갯물 팔팔, 어물전 유명한 남창장

아침 6시. 해남군 북평면 남창장은 오텡이며 튀김을 파는 트럭이 자리를 잡고 곳곳에 예의 깡통 불을 피워놓은 장꾼들도 보였지만 어딘가 허전하다. 이탈리아를 먼저 보고 프랑스를 가지 말라고 했던가. 호남 제일 장이라는 해남장을 먼저 봐버린 탓일까.

해남에서 완도로 넘어가는 경계인 13호 국도 근처에 자리한 남창장은 2일과 7일에 선다. 먼 단위 오일장 가운데서는 빠지지 않는 장으로, 특히 어물전이 유명하다. 특히 남창장은 바다가 바로 앞이라 갯물(해수)로 물을 댈 수 있는 장이다. 수도꼭지를 틀면 갯물(해수)이 쏟아져서 어물전에도 활어가 주종을 차지하고, 물이 좋아 광주에서 식당 하는 이들도 이곳까지 활어를 사러 나온다.

예전 사람들은 남창장을 두고 ‘허망한 남창장’이라 했다. 외지 사람들은 장이 서는지도 모르게 아침에 한 두 시간 열렸다가 금방 파장을 해서 그리 불렀다는 이도 있고, 어물전 물건이 워낙 좋으니 일찍 다 팔려버려서, 늦게 오는 이들은 물고기 구경도 못하고 돌아가기 십상이라 그리 불렀다는 이도 있다. 요즘은 새벽 다섯 시에 시작해 오후 세 시까지 문을 열지만 그래도 좋은 물건을 사려면 서두르는 게 답이다. 허망한 남창장이란 표현이 듣기 싫을 법도 한데, 장터에서 12년째 생닭을 팔고 있는 이순태 씨는 “그건 그냥 동네 사람들이 정겹게 부르는 말”이라며 사람 좋게 웃는다. “여긴 지역에서 잡히는 자연산 활어가 주종이라 바람이 불거나 물때가 안 좋으면 그만큼 장터도 활기가 줄어든다.”고 했다.





팔죽집에서 듣는 남창장의 어제와 오늘

일단 아침을 해결하고 장을 둘러볼 요량으로 닭집 옆 팔죽집에 들어섰다. 간판도 없는 팔죽집 창문으로 커다란 양채기 한가득 끓는 물이 김이 되어 흘러나오고 있었다. 팔죽집이라지만 실은 배달형 백반집에 가까운 이곳 주인은 이안나 씨. 딸 다섯에 아들 하나인 집안의 둘째딸이다. 딸 좀 그만 낳자고 이름이 ‘안나’가 됐단다. 4천 원짜리 백반을 해대느라 가스 불 위 양은냄비가 쉴 틈이 없다. 팔죽이 유명하다기에 시켰는데 팔 칼국수가 나왔다. 해남에서는 팔 칼국수를 두고 팔죽이라고도 하고 밀죽이라고도 부른단다. 장이 서는 날이면 안나 씨는 새벽 2시에 가게 문을 연다. 2시 반부터 모여드는 장꾼들은 짐을 풀어놓고 4시 반부터 아침을 먹는다. 옷이며 잡화는 외지 상인들이 많지만 농수산물물은 90% 정도가 인근의 남창, 북평 사람들이다. 거기에 북일, 송지, 또 다리 건너 완도 외면 사람들도 온다.

남창장은 1945년 해방 직후에 생겨서 1964년부터는 남창 농협 인근에서 장이 켜고, 2005년에 지금 위치로 옮겨와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어 장옥형 시장이 되었다. 1968년 해남과 완도를 잇는 연륙교인 완도교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오가며 완도 사람들이 꼭 거치던 장이었고 제주도에서도 물건이 왔는데, 다리가 놓이면서 세가 많이 줄었다. 그래도 해남과 강진, 완도를 잇는 교통의 요지이고, 북평, 북일, 송지의 싱싱한 해산물은 죄다 남창장에 모이기 때문에 완도를 오가는 관광객들에게 이름을 알리며 1980년대 후부터 다시 번성했다. 하지만 장터의 성쇠는 반복인지 시절이 또 변해서, 2011년 남창장 옆을 지나던 2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완도행 관광버스들도 이제 남창장을 그냥 지나친다. 해남군은 2001년부터 장터 시설을 확충하고 주변 도로 포장 공사도 진행하면서 남창장을 ‘풍물어시장’으로 탈바꿈하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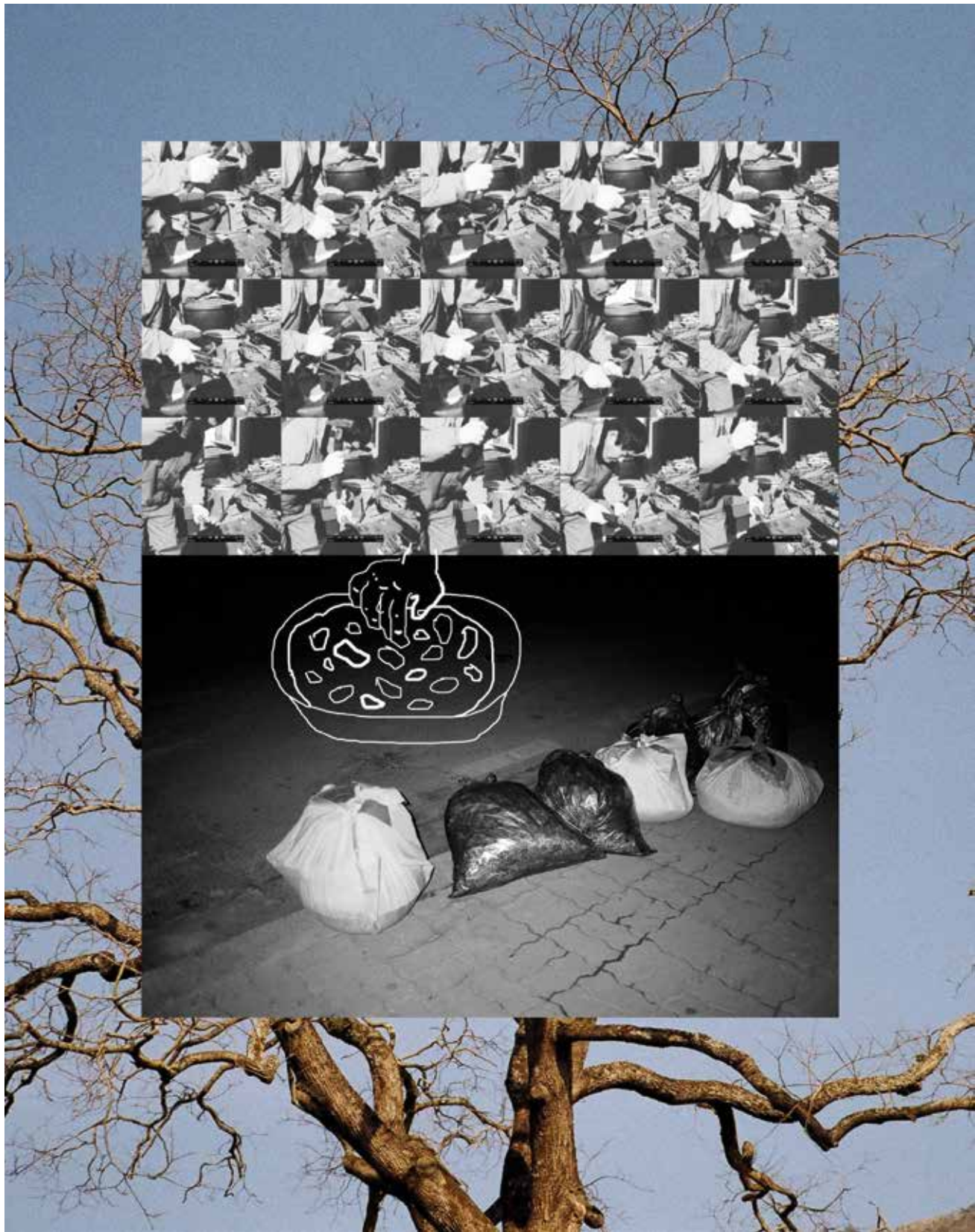
지역의 힘으로 이어가는 건강한 장터

외지 사람들은 해남 사람들을 일러 ‘해남 물감자’니 ‘풋나락’이니 한다. 천대전 해남오일장 변영희장은 “해남에 땅 가진 어르신들이 나락도 익기 전에 목포에 가서 화투치고 각시질을 해서, 추수하고 나면 나락 싣고 외상값 계산하러 간다고 풋나락이라 했다. 사람들이 순하고 부드러운니까 해남에 많이 나는 물감자에 빗대서 부르기도 했다. 외지 사람들도 많아서, 해남 중에서도 고도리 마을은 50%가 강진 사람이다. 외지 사람들도 다들 성공해서 잘 정착하고 산다.”고 했다.

이는 단단하기 때문에 빠져버리고 혀는 부드러운 덕에 끝까지 남아 있다고 했던가. 해남 장터는 그만큼 강진, 장흥, 완도 등 주변 지역들을 흡수하고 그 동력으로 특유의 생명력을 만들어왔다.

오일장에서 장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또 물건을 찬찬히 보다보면 “물건은 의미가 부여되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먹물 툴 소리가 말짱 허위러니 싶다. 요즘은 재래시장을 두고 생각도 많고 말도 많아졌지만, 오스카와일드가 전한 바 “시대를 움직이는 것은 원칙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다양한 개성이다.” 나는 그 말이 딱 들어맞는 곳이 장터라고 생각한다.

오늘도 새벽 2시가 되면, 해남 아집들은 이부자리에서 일어나 장사 채비를 서두를 태다. 장터는 지켜야 한다는 당위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있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것이다. ■



그림·오혜진(그래픽 디자이너)



홀로 자유를 즐기기 좋은 땅

가고 가고 또 가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땅과 바다와 하늘이
하나로 이어지는 황홀한
풍경을 만난다.
시선 닿는 풍경마다 꿈이
되고 영화가 되고 기어이
마음까지 빼앗아버리고야
마는, 어떤 이야기도 다
이루어질 것만 같은,
이곳은 해남.

글 · 정성일 (영화감독 · 평론가)

슬그머니 옛날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땅끝 마을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은 대학에
들어간 다음이었습니다. 이제 막 까까머리에 조금씩
숨털 자라듯 뽕송뽕송 나기 시작한 머리를 자랑스레
한껏 치켜들고 어울리지도 않는 신사복을 입은
다음 누군가는 하얀 와이셔츠에 구식 넥타이까지
매고 신입생 환영회에 왔습니다. 여학생들은
춘삼월이라지만 아직 경칩도 지나지 않은 찬바람
쌩쌩 부는 날인데도 원피스에 언니에게 빌려온 것이
분명한 핸드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걸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던 선배들은 술잔을 권하면서도 연신
긴장한 나머지 신병 같은 태도로 술잔을 받던 우리를
보며 킬킬 대고 웃곤 했습니다.

아마 그들도 언젠가는 그러했을 것입니다.
선배들은 마치 인생의 숨겨진 비밀이라도
가르쳐주듯이 어른이 되는 비결을 거짓말이 분명한
과장을 섞어가며 늘어놓곤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갑자기 큰 소리로
“진짜 사나이가 되는 법을 내가 오늘 가르쳐주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입생인 우리는 모두 긴장했죠.
그때 그 선배가 말했습니다.

“남쪽 길을 따라서 가고, 가고, 가고, 또 가는 거야,
더 갈 수 없을 때 거기 땅끝 마을이 있어. 땅이 끝나고
바다가 나오거든 거기 서서 니들이 진짜 하고 싶은 걸
세 번 목청이 터져라 외치고 오면 어른이 될 거야. 암
그렇고 말고.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무조건 혼자
가야만 해.”

신기하게도 다른 선배들이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땅끝 마을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혼자서 돌고
도는 시외버스를 타고 3박 4일에 걸쳐 땅끝 마을에
혼자가본 것은 부끄럽게도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난 다음, 그해 겨울 방학이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나서였습니다.



걸어서 해남까지, <577 프로젝트>

맨 먼저 땅끝 마을에 가는 방법을 99분 만에
터득하는 방법을 일러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기차나 버스가 아니라 걸어서 가는 길을 말입니다.
2011년 5월 26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백상예술대상
수상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남우주연상 발표를
위해서 하정우 씨가 나왔습니다. 진행을 맡아보던
하지원 씨는 하정우 씨가 봉투를 열기 전에 그저
지나가는 멘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을
받게 될 경우 대한민국 앞에 공약을 하나 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정우 씨는 전년에 이미 이 상을 <국가대표>
로 받았고, 이번에는 <황해>로 다시 후보 지명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경쟁자들의
명단도 쟁쟁했습니다. 하정우 씨도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저 흥을 돋우는 말투로 “제가
상을 받게 된다면 트로피를 들고 국토대장정 길에
오르겠습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러자 하지원
씨는 채 그 말이 허공에 사라지기도 전에 봉투를 열고
“네, 감사합니다. <황해>의 하정우 씨!”라고 수상자를
발표해버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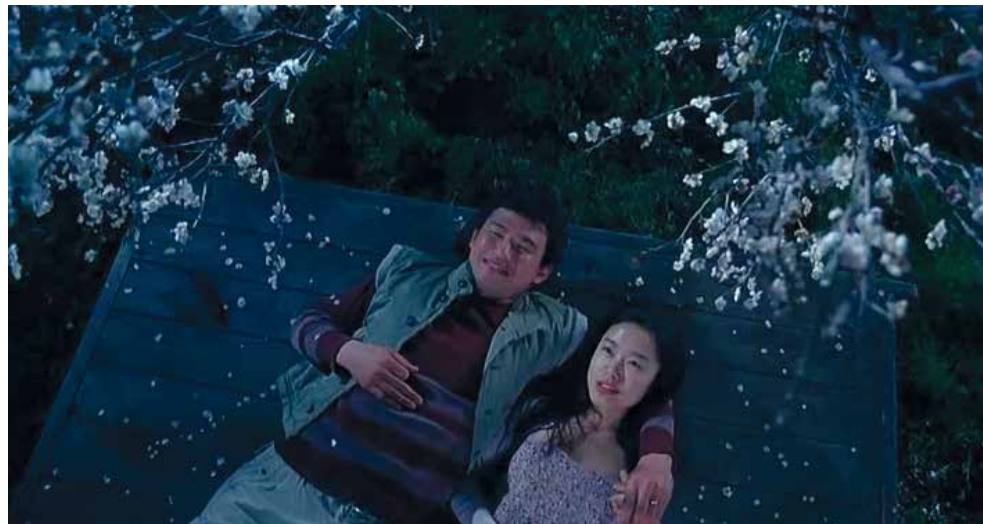
하정우 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이 되었고 게다가
이건 생방송이었습니다. 하정우 씨는 진짜 사나이인
모양입니다. <리브 픽션>에서 공연했던 공효진
씨에게 연락을 하고 그런 다음 16명의 신인 배우들과
함께 정말 해남 땅끝 마을까지 걸어서 ‘국토대장정’
에 나선 것입니다. 그걸 다큐멘터리로 담은 영화가
<577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에서 해남까지가
577킬로미터였습니다. 말하자면 이 다큐멘터리는
일종의 대국민 인증샷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했지만 577킬로미터가
주는 물리적 피로감은 웃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길바닥에서 점심을 먹고 가끔은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그래도 이들은 정말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해남까지 걸어서 갑니다. 그래도 썩썩한 하정우
씨는 시종일관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고마운 공효진
씨도 “내가 미쳤지.”를 연발하면서도 앞장서서 길을
따라 갑니다. 만일 당신께서 어느 날 문득 해남까지
걸어가고 싶으시다면 떠나시기 전에 예습삼아 이
영화를 보라고 권해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작 열흘이면 당신은 땅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봄날, 꽃잎처럼 찾아온, 너는 내 운명

그러면 당신께서는 언제 떠나면 좋은지를 묻겠지요. 열에 셋은 3월 29일부터 4월 7일 사이에 다녀오라고 충고합니다. 매화꽃이 천지를 덮는 장관을 구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말만 들었을 때는 그저 과장된 수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그 장소에 있다면 당신은 꽃잎들과 함께 바람결을 타고 날아오르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을 메우는 하얗고 혹은 붉은 매화 꽃잎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람 따라 하늘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누구는 그곳에서 슬픈 사랑의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말하자면 잔인한 시간.

박진표의 〈너는 내 운명〉은 봄날에 관한 몹시도 가혹한 사랑의 기록입니다. 다큐멘터리로 시작한 박진표는 이 이야기를 그저 그런 무미건조한 사건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황정민과 진도연을 주연으로 이 영화를 찍으면서 박진표는 배우들에게 간단한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주인공들과 객관적인 거리를 포기할 거예요. 이 불행한 연인들에게 이 영화가 마지막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 사랑을 보고 평평 울었으면 좋겠어요.”



시골 노총각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저 꿈이라면 통장 다섯 개와 젓소 한 마리로 목장 세우는 게 유일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 다방에 은하라는 차 배달 아가씨가 새로 옵니다. 아마 당신은 이 직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총각은 그만 한눈에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처음에는 은하도 이 남자가 웃겼지만 점점 그 진심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 남자는 종이에 간곡하게 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끝까지 책임지겠음.”

그런데 은하는 자기가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 때문에 젓소도 팔고 통장도 정리한 이 남자가 행복해지는 길은 자기가 사라지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알고 떠나지만 총각은 필사적으로 그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운명인 것을...” 사랑은 그렇게 봄날 꽃잎처럼 찾아오는 것입니다. 찬란하게, 정말 찬란하게 말입니다.



어떤 이야기도 이루어질 것만 같은

두 번째 영화는 〈연애소설〉입니다. 지환(차태현)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프레임 안으로 두 여자가 뛰어듭니다. 수인과 경희. 손예진과 이은주. 둘도 없는 단짝 친구. 지환은 수인에게 정중하게 사귀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도저히 포기할 수 없던 지환은 그러면 두 사람에게 친구가 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가까워집니다. 아마 그들의 여행지인 해남의 풍경이 어떤 마술적인 작용을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 사람 사이에 알 수 없는 균열이 시작되자 어느 날 갑자기 수인과 경희가 사라져버립니다. 지환이 이들을 찾지만 마치 세상에서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흔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어느 날 발신인을 알 수 없는 편지가 날아옵니다. 이제 이상한 사랑의 속편이 이어집니다.

언뜻언뜻 비치는 영화 속 풍경은 보는 이들을 홀리고도 남습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시나리오를 쓴 감독이 발길 닿는 대로 떠난 여행지에서 이야기가 떠올랐음에 틀림없습니다. 해남은 그런 곳입니다. 이 영화는 정말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해남의 풍경은 그래도 괜찮을 것만 같은 마법을 베풀어 줍니다. 시선이 가 닿는 풍경마다 오랫동안 잠들었던 상상의 나래를 깨워 당신을 간지럽게 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문인들은 해남에 가더라도 마음까지 빼앗기진 말라고 조심스럽게 충고합니다. 거기서는 어떤 이야기도 다 이루어질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임권택입니다. 전라도 전체를 마치 자기 손바닥처럼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는 언젠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남들보다 영화를 아름답게 찍을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그건 전라도 동네 구석구석 걸 어귀마다 내 손금 보듯 한다는 거요.” 이렇듯 뱃속까지 호남 사람인 노감독은 자신의 영감이 이쁠 때마다 해남으로 달려와 그 답을 찾아내곤 했습니다. <천년학>에서 바로 그 날, 매화가 온 세상을 뒤덮으며 휘날리는 바로 그 시간을 잡아채 우리에게 병풍처럼 펼쳐보였습니다.

이 장관의 순간에 나는 고맙게도 촬영 현장에 있었습니다. 마치 혼이 빠져나가는 것만 같은 경험. 그렇게 밖에 달리 말할 수 없습니다. 영화의 장면은 온갖 호사를 누리며 살던 백사 노인이 팔순 잔치를 마치고 죽어가면서 옆에 두었던 판소리 명창 소화에게 한 곡을 청하는 대목입니다. 눈이 먼 소화는 물론 이 장관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꽃잎이 휘날리는 소리를 바람결에 듣기라도 하듯이 우두커니 방문에 앉아 바라보다가 꿈타령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느린 중모리 장단. “꿈이로다, 꿈이로다, 모든 것이 꿈이로다. 꿈 깨이니 또 꿈이요, 꿈속에서 세상만사가 꿈이로다.”



이미 장자가 나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내가 저 꽃에 매달린 나비를 보는 것인지, 나비가 잠시 내가 세상 사는 꿈을 꾸는 것인지, 그렇게 세상을 소요(逍遙)하는 것입니다. 이미 청산도에서 지나긴 언덕배기 어귀 길을 따라 걸어오는 떠돌이 판소리 가족의 진도아리랑을 단 하나의 장면으로 사무치게 찍어낸 이 대가는, 다시 해남을 중심으로 진도와 장흥까지, 거의 황홀경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시간을 고스란히 선사합니다.

그러니 부디 이번 봄이 오면 당신께서는 오직 혼자서 열흘간 걸어 해남에 도착하신 다음 매화 꽃잎이 대지와 하늘을 연결하여 하나로 만드는 풍경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거기서 운명적인 사랑이 기다리고 있을 지도 모를 일입니다. 원래 세상일이란 그렇게 기적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던가요. 제가 아니라 기욤 뽐소의 봄날에 생길 지도 모르는 신기한 일에 관한 조언입니다. 그렇게 문득 설레는 봄이 멀리 저 땅끝 마을에 벌써 이른거리고 있습니다. ♪

남은 겨울도 따듯하게, 밝게, 가볍게!

by PROSPECS, Mont-bell, Jack Wolfskin



프로스펙스 'YUNA14' 워머형 후드 다운재킷(오렌지 / 화이트 / 네이비), 프로스펙스 YUNA14 우븐 스트레치 다운재킷(레드).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YUNA 스타일

프로스펙스 W의 'YUNA14'라인은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에서 완벽한 전설을 꿈꾸는 피겨 여왕 김연아의 특별한 도전과 우리 모두의 희망을 응원하는 스페셜 에디션이다. 특히 워머형 후드 다운 재킷 라인은 탈부착이 가능한 넥워머와 핸드 게이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700필파워(FP)이상의 프랑스산 몰라드(Mulard) 덕다운을 사용해 보온성이 매우 뛰어나다. 색상은 화이트, 오렌지, 네이비 3종. 컬러 조합도 산뜻해 워킹 등 겨울 스포츠 활동뿐 아니라 일상복으로 연출하는 데도 손색이 없다.

스타일과 기능성을 동시하는
몽벨 구스다운

다운재킷이라고 하면 자칫
어둡고 무겁게 보일 수 있는데,
몽벨은 구스다운 재킷들은
세련된 컬러 매치로 가볍고
생동감 있는 아웃도어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재구매율이 높은 몽벨의 700
필파워(FP) 구스다운 재킷으로
보온성이 뛰어나며, 초경량을
추구하는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
몽벨의 제품인 만큼 가벼울 뿐
아니라 방수, 방풍, 투습 기능
또한 탁월하다.



몽벨머이퀵남성 후디 야장 다운재킷(좌), 몽벨제이머투스윈드블록 헤비 구스다운 재킷(우)

더 가벼워진 러닝화,
더 완벽해진 등산화

프로스펙스 워킹화 W와
러닝화 R의 2014년 신제품은
라이트(Light) 테크놀로지를
적용해 더욱 가벼웠다.
세련된 컬러감의 잭윌프스킨의
‘스노우 패스 텍사포어’(Snow
Pass Texapore) 등산화는
텍사포어 O₂ 소재를 사용해
방수는 기본이며 특히 보온성과
접지력이 뛰어나다. 또한 내피
전체에 인슐레이션 라이닝
시스템(Insulation Lining
System)을 적용해 외부의 찬
기운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
방한 효과 또한 뛰어나다.



프로스펙스 헤리티지 103(좌), 프로스펙스 헤리티지 101(우)

프로스펙스 스페셜 에디션
‘헤리티지’

33년 전 ‘우리 세대에 맞는
우리의 프로스펙스로
스포츠 한국을 빛냅시다’
라는 광고 문구와 함께 등장한
토종 브랜드 프로스펙스는
86 부산아시아게임과
88 서울올림픽 공식 후원
업체로 선정되면서 당시 해외
브랜드들을 제치고 판매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프로스펙스 브랜드 론칭
33주년을 기념해 출시한
‘헤리티지 라인’은 1983년에
출시된 제품의 원형을 재현한
모델로, 복고풍 운동화의
디자인을 살리고 클래식한 로고
패턴을 적용했다. 천연 가죽을
사용하되 내피는 인조피혁으로
내구성을 높였고, 8mm 컵
인솔(안창)로 쿠셔닝을 보완,
착화감이 뛰어나다.



(왼쪽부터) 잭윌프스킨 ‘스노우 패스 텍사포어’ 등산화, 프로스펙스 R 2014년 S/S 신제품 2종, 프로스펙스 W 2014년 S/S 신제품 1종.

실컷 터트리고 달랜 다음

미련없이 떠나게 해주는 소리

글 · 박홍주 (굿연구소소장)

사진 제공 · 악당이반



칩머리당할머니와 해남 씻김굿

뽕짝도 레게도 삼현육각 시나위와 멋들어지게 어우러 진다면,

그런해도 국제적이었던 칩머리당할머니가 새로운 신화를 마다할리 없다.

보잘 것 없는 누구라도 그 가장 아픈 자리까지 어르고 감싸주는

굿쟁이의 본질과 자존을 잃지 않는다면.

Culture

보온성과 스타일을 한번에!

잭울프스킨 다운 재킷은 일본 소재인 'Pertex Shied'를 사용해 가볍고 눈과 비에 강하며, 최고급 헝가리 구스다운을 90:10의 비율로 사용해 보온성, 경량성, 복원력 또한 매우 우수하다. 안쪽에 고글 주머니, 안주머니 내장 및 별도의 수납 주머니가 포함되어 있다. 잭울프스킨의 '스노우 패스 텍사포어'(Snow Pass Texapore) 등산화는 겨울 산행뿐 아니라 동계 스포츠인 스노우 슈잉(Snow Shoeing)에도 바로 장착 가능하다. 스노우 슈잉은 전문 스노우 슈즈를 신고 눈길을 걷는 트레킹으로, 특별한 기술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어 유럽에서는 스키, 스노우보드와 함께 겨울 스포츠로 인기가 높다.

잭울프스킨 Shanshan 다운 재킷(좌), 잭울프스킨 Wikong 다운 재킷(우), 프로스펙스 W POWER 707(좌), 잭울프스킨 '스노우 패스 텍사포어' 등산화(우)



땅끝마을! 우리에게 많이 친숙한 지명이다. 많은 이들이 한번쯤은 다녀왔을 땅. 이미 대한민국의 관광 명소로 명성을 얻은 지 오래다. 땅끝, 한반도의 최남단. ‘끝’이라는 말이 던지는 묘한 호기심. 그것 때문에 마음이 싱숭거리고 몸이 생숭거리는 매력. 거기 가면 뭘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땅과 끝과 남쪽은 ‘땅끝’이란 말 속에 담긴 그늘이기도 하다. 땅이 중심이고 서울이 중앙이라는 의식이 불려온 호기심. 혹시 이런 그늘만 담고 떠나는 것은 아닌지.

땅끝? 바다가 끝나고 땅이 시작하는 곳!

땅끝마을은 행정적으로 갈두리에 속한다. 그곳 사람들은 첩머리라고 불렀다. 첩머리를 한자로 바꾸니 갈두리(葛頭里)가 된다. 땅끝마을 전당대가 있는 산이 갈두산이다. 갈두산에는 첩이 많이 났다고 한다. 그래서 붙은 이름이 첩머리이다. 그런데, 첩이면 첩이지 왜 ‘머리’인가? 첩에다 왜 ‘끝’을 붙이지 않고 ‘머리’를 붙였을까? 손끝, 발끝, 머리끝… 첩끝?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굳이 첩머리라고 했다. ‘우두머리’라고 할 때의 그 ‘~~머리’를 붙였다. 굳이 머리를 붙인 그 의식의 저변을 더듬다 보면 떠오르는 생각, ‘땅끝을 땅의 시작으로 본 것은 아닌지!’

바다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일이다. 바다가 끝나고 땅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곳. 물에 빨리 오를 수 있는 첫머리. 제주도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다.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올라온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사람들에게도, 조선으로 건너오기 위해 위험한 항해를 시작한 중국 강남 사람들에게도 이곳은 반가운 첫머리였을 게다. 제주도(탐라국)로 중국 땅으로, 집을 떠난 신라인·고려인·조선인들에게도 무사귀환을 축하하며 포근하게 안아줄 첫머리였을 것이다. 신천지를 향해, 새 세상을 개척하기 위해 한반도에 상륙한 남방 해양 세력들이 있었다면, 콜럼버스 원정대의 신천지 발견이나 다름 바가 없었을 게다. 장보고 선단에게는 ‘~~머리’가 새로운 세상을 펼쳐나갈 시작점에 불과했을 터. 그런 세월이, 그런 포부가 담긴 응어리였음도 분명하다.

첩머리당할머니의 너른 품자락

땅끝마을 앞바다에 떠 있는 섬사람들이 물에 일 보러 나올 땐, 이 땅끝에서 배를 내려 해남군내 버스를 타거나 본인 차를 몰고 목적지로 떠난다. 송지로 해남읍으로 목포로 광주로….

꼭 땅끝에서만 배를 타야 들어갈 수 있는 어느 섬으로 마을 대동치성(마을굿)을 보러간 적이 있다. 군고괘(이 지역에서는 풍물을 ‘군고’라고 부른다)가 굿(풍물을 치는 행위 일체를 굿이라고 부른다)을 이루더니 동구 밖으로 나서는 것이었다. 어느 지역에선 만나기 힘든 상황. 따라가며 던진 궁금증에 돌아온 답이 ‘혼맞이’ 행차였다. 자기 마을의 당산신을 모시는데 마을의 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구 밖으로 나서는 그 행렬. 그들의 당할아버지와 당할머니는 다른 곳에 계셨던 것이다. 바로 첩머리에 계셨다. 첩머리당. 그들은 그곳에 계신 당할머니의 자손들인 것이다.

동구 밖으로 나서 발두령에 죽 늘어선 다음 혼맞이 의식을 거행하던 군고괘 대장 대포수 어른의 당당함과 위엄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물론 방향은 첩머리당을 향한 북향이었다. 첩머리에서 사방을 바라보면 한양 쪽은 북향이고, 바다에 점점이 떠 있는 섬들은 남쪽이 되고 서쪽이 되고 동쪽이 된다. 첩머리는 중앙이 되니 바로 우두머리인 셈이다.

그 일대 크고 작은 섬들 가운데 첩머리당은 근본으로 모시는 섬들이 많다. 첩머리당에서 분가해 나간 당들인 것이다. 당이 분가해 나갔다는 것은 그 당에 대한 신앙심을 갖는 사람들의 후예가 여러 섬들로 흘러들어가 살아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에서 사는 삶을 포기하고 섬으로 들어가야만 했던 사연, 혹은 세월. 그건 큰 죄를 짓고 숨어들어간 삶이었을까. 새로운 밥벌이를 찾아 들어간 것일까. 인정할 수 없는 세상을 뒤엎으려 죽창을 들었다가 흘러들어간 것일까, 아니면 귀양살이를 위해 어쩔 수없이 첩머리에서 배를 탄 것일까. 첩머리를 바라보는 이 마음은 또 다른 애뜻함이 되어 ‘~~머리’에 담길 수밖에 없다.



2013년 6월 28일~30일에 열린 국립남도국악원의 〈굿음악 축제: 해남 씻김굿과 예인들〉중 함화자 당골이 벌린 해남 씻김굿의 실황 녹음 현장. 이날 굿 공연에는 제가(굿을 의뢰한 가족)가 참여했으며, 굿은 안당, 선부리, 성주풀이, 액백이, 오구풀이, 축원, 제석굿, 율리기, 고풀이, 씻김, 길담음, 퇴송으로 이어졌다. 굿판의 경과 피리는 한용호 고인(鼓人)이, 아쟁은 심재문 고인이, 장구는 박필수 고인이 맡았다.



반드시 첼머리에서 배를타야만 했던 사람들. 저마다의 아픈 사연을 가슴에 묻고 첼머리에서 섬으로 떠났던 사람들,그들 모두를 다 품에 안아 새로운 삶과 생명을 잇게 해주신 분이 바로 첼머리당할머니셨던 것이다.첼머리당할머니가 계심으로 해서 첼머리는 그저 방위상으로만 중앙이 아니라 ‘무슨 짓을 하고 어느 때 찾더라도’,아랫목에 매일 새롭게 물어뒀던 뜨신 밥 꺼내 한 상 급히 차려오시며 “내 새끼 왔능가.” 엉덩이를 두들겨 주실,한없이 아늑하고 포근한 할머니의 품자락으로서,중심이 된다.

삶의 정경이 진하게 엄습해오는 바닷가 찻김굿

그 첼머리당과 당할머니를 되새김하게 해주는 경건하면서도 흥겨운 의식이 ‘지만모시기’(마을굿)이다. 매년 음력 정초에 정성껏 음식을 마련한 다음, ‘섬사람들’이라는 질시와 거친 풍파에도, 일 년 동안 살아남아 이렇게 맛난 ‘괴기’(생선)를 듬뿍 올릴 수 있게 된 자부심을, 당할머니께 자랑하는 자리였다. “겨우겨우 살았습니다.”가 아니었다. 어떤 역경에서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씩씩한 기세를 북소리[軍鼓]에다 맘껏 실어 당할머니와 함께 밤새워 춤추고 소리하는 축제였다. 노 젓는 쪽배를 타고 오다 배가 뒤집어졌을 때, 해엄쳐 물으로도착하는 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았던 동네 여인 세 명, 사력을 다해 달라붙었던 세 여인까지 살려낸 횡간도 대표수 아저씨의 힘과 기세와 무용담이 동네 사람들에게 은은하게 스며드는 그런 지휘(Conduct) 현장이었다.

그 축제의 마지막은 반드시 ‘헌식굿’으로 끝났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 바다에서 맞이한 죽음들, 시신을 찾을 수 없는 불의의 사고, 태풍이 휩쓸고 간 마을 갯가에 얹어진 국적불명의 외국인 시신… 그 죽음을 달래는 굿이다. 그 죽음은 남의 것이 아니다. 언젠가 내 집안에도 닥쳤던 죽음이고, 어느 순간 내 식구에게도,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불행이다. 집집마다 ‘걸게 차린’ 상을 머리에 이고, 리어카에 싣고, 지게에 지고, 헌식 터로 조용하게 모여드는 마을 사람들의 행렬은 그래서 경건한 장엄이기도 하다.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모든 집이 동참하여 드리는 정성.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 저승에서도 천대받고 정처가 없을 잡귀 잡신들을 잘 대접한다. 바다에서 죽은 수비 영산들! 내칠 수가 없다. 내쳐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시신을 건질 수도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단골을 불렀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행방불명이 된 가족이 평소 쓰던 밥그릇에 쌀을 담아 길고 흰 ‘곱배’ 끝에 매단 다음, 바다에 던져 뉘을 건졌다. 그렇게 건져온 뉘을 모시고 하는 ‘씻김굿’. 그 선율에는 슬픔이 있으면서도, 흥겨움이 있고, 신명이 있다. 그를 기리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같이 아파해 주고, 흥으로 슬픔을 이기도록 밤새워 불러주는 소리와 춤이 있기에, 그리고 동네가 모두 잊지 않고 매년 헌식굿을 해줄 것이란 분명한 믿음이 있기에….

온갖 질시와 배고픔과 거친 바다와 당당히 대적하다 장렬하게 간 전사(戰士)를 기리는 일은나도그 전사와 다르지 않다는 자부심의 발현인 것이다. 이런 찻김굿에선 바다의 삶,아픔을 이겨내는 의지, 이를 나뉠대로 훌륭하게 성취해낸 멋과 만나게 된다. 그 정경과 세월이, 그마음이 찼나게 온 몸으로 엄습해 온다. 첼머리당 권역뿐만 아니라 전라도 서남 해안과 섬 지방의 찻김굿에는 대개 비슷한 ‘찼함’이 있다.

그런데 해남 찻김굿엔 이 맛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해남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해남을 3개의 문화권으로 나누고 있다. 첼머리당을 중심으로 살았던 ‘땅끝권’,그리고 ‘우수영권’, ‘두륜산권’이다. 두륜산권은 대흥사권과 해남읍권으로 세분하기도 한다. 한 개 군단위를 3~4개 권역으로 나눌 만큼 서로 다른 문화가 존재했던 것은 드문 사례일 것이다.

우수영은 위도 상으로 북쪽이지만 바닷가이다. 조선시대 전라우수영의 수영(정3품의 전라좌수사가 주재)이 있었던 곳이다. 우수영권의 바다는 섬이 없고 수심이 깊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어업보다는 농사를 많이 지었다. 영암·목포 쪽과 생활권이 연결된다. 예전부터 그랬다. 우수영과 화원엔 목포를 오가는 여객선이 있었다.

두륜산권은 내륙으로서 읍치(행정 치소)가 있는 지역이었다. 내륙과 북쪽의 중앙 문화가 유입되는 중심지였다. 특히 강진문화권과 직결됐다. 강진은 전라도의 육군사령부에 해당하는 병영이 있던 곳이다. 주기적으로 부임하는 문관 중심의 행정 권력이 병영의 무관들과 어우러질 수밖에 없었던 곳. 종6품 현감이 강진의 병영, 우수영 및 어란의 수군 수영, 그리고 만호진의 고위 무반까지 아울러야만 하는 드센 고을이었다. 한참 품계가 높은 전라우수사와 어란진만호(종4품)가 한 고을 안에 공존했다.

땅끝권은 해남의 남서쪽으로서 땅끝 마을이 있는 송지·어란이 문화의 중심지였다. 섬들이 많고 어업을 중심으로 한 수군 관할지였다. 이 권역은 구석기·신석기·청동기 유물이 동시에 출토될 정도로 장구한 역사를 지닌 지역이다.

이처럼 해남은 서로 상반된 문화가 공존해야 하는 인문지리였다. 어업과 농업, 무반과 문반, 수군과 육군, 갯가 사람과 물사람의 공존이었다. 또 있다. 대둔사(일제 강점기 때 대흥사로 바뀜)와 미황사라는 큰 절이 공존했다. 유학, 불교, 무교가 크게 혼재된 고을. 특히 바다와 어업을 대변하는 땅끝 문화권은 물과 농업, 그리고 주류로서 문반을 대변하는 해남읍(두륜산권)과의 대결의식이 남달랐고, 이는 해남 문화를 형성하는 양대 축 역할로 이어졌다.

내륙 굿과 해안 굿, 오구굿과 손굿의 혼재

이런 복합성은 굿과 무권(巫圈)에도 반영됐다. 해남읍 중심의 단골권, 우수영권(우수영, 화원면, 문내면, 황산면), 땅끝권(송지면, 어란, 산정, 북일면, 북평면)이다. 땅끝권은 다시 2개로 나뉘기도 한다. 호수 같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완도와 마주하는 북일면과 북평면의 독립.

해남읍을 중심으로 한 무권은 양반 문화의 정서와 내륙 굿의 성격이 강하다. 전라남도의 굿은 크게 내륙 굿의 성격과 해안가 굿으로 대별된다. 내륙 굿은 능주(현재 화순군 소재)와 순천이 그 중심축이다. 능주와 순천은 목사와 부사가 다스리는 큰 고을이었다. 이 고을의 신청(神廳) 소속 무부(巫夫)들은 관청의 공식 행사나 양반가의 잔치에서도 재인(才人)으로 활약했다. 재인과 광대. 재주가 넘치는 재주꾼이자 광대라는 뜻이다. 서로 넘나든 것이다. 양반가와 아전 관속들은 이들 세습무의 주요한 단골들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 지역 단골들의 행동거지와 대인 관계에는 양반가에 준하는 법도가 몸에 배어있다.

해남읍의 굿문서는 능주굿의 영향권으로 본다. 강진을 거쳐 해남읍으로 내려온 루트를 상정한다. 해남읍은 강진문화권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교류가 왕성했다. 굿거리 구성에 남겨진 흔적은 바로 오구굿과 선부리이다. 양반가를 위한 내륙의 세습무 문화가 남하하여 나뉠대로 꽃을 피운 그 끝단에 해남이 위치한다. 이는 굿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고(故) 안애임 단골은 진도굿을 “처음부터 너무 멋을 낸다. 멋이 너무 난무한다.”고 일갈했다. 천 번 해도 다 다른 것이 굿인데 진도굿은 “음악에 대한 여지가 없다.(음악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음악성을 최대한 발휘해야할 대목에서는 유감없이 그 예술성을 발휘하였다. 그 한 예로 여음을 무음으로 여러 장단을 끌면서 최대한 가지고 놀았던 놀이 감각을 들 수 있다. 음악성과 소리 공력이 없고는 불가능한 시도이다.

이런 내륙 굿에 비해 해안 굿을 대변하는 대표 굿거리가 있다. 손굿이다. 손굿의 주인공은 손님이다. ‘손 없는 날’의 그 손님이다. 손님은 무서운 마마신이다. 그 손님을 잘 대접 하는 것은 무서운 액운을 물리쳐달라는 축원인 것이다. 그런데 전라도 해안가의 손굿은 서사의 모티프가 배와 바다와 항해이다. 손님의 본(本)은 강남국이다. 조선으로 나오는 길이 바닷길이다. 손굿은 주로 한반도의 바닷가에 분포한다. 바다와 뱃사람들의 문화요 그들의 조상모심이라는 성격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손굿이 없는 전라도 지역은 오구굿이 성한데, 해남은 손굿과 오구굿이 혼재한다. 접경지대인 셈이다.

이제 해남굿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언제부턴가 전라도굿 하면 진도굿이고, 진도굿 하면 씻김굿이 돼버린 세상이다. 해남굿은 그 틈을 비집고 이제 막 얼굴을 내밀고자 한다. 그러나 안타깝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랄까... 해남굿 현장은 거의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해남뿐만이 아니다. 전라도 전역의 굿들이 대개 그러하다. 세습 단골 집안에 태어난 것은 천형이나 진배없었다. 판소리 명창이 되는 길이 최고의 돌파구였던 시절을 지나 어떻게든 대학교에 보내야 했다. 물론 굿판에서 번 돈이 그들의 뒷바라지였다. 그렇게 모두 떠나갔다. 생계를 위해, 내린 신을 어쩔 수 없어 단골판을 떠나지 못했던 몇몇 후예들마저 이제는 서너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더 큰 문제가 있다. 굿을 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굿을 안 한다.

굿하는 방식과 절차도 변해왔다. 물론 점점 쇠락하는 방향으로다 변해왔다.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바라지의 쇠락이다. ‘바라지’는 ‘뒷바라지’와 뿌리가 같은 말이다. 굿판에서 굿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것을 ‘바라지한다’고 한다. 굿상 차리고, 옷 챙겨주고, 설거지하고, 구경 온 동네 사람들 대접하는 것만 바라지가 아니다. 정치고, 장구치고, 피리 불어주고, 젓대(대금) 불어주는 것도 바라지다. 아주 중요한 바라지다. 남자 고인(鼓人, 악사)들이 삼현육각 편성을 갖추고 ‘시나위를 치면서’ 해주는 바라지가 있는 씻김굿. 그 현장을 맛본 사람들은 그 황홀함을 결코 잊을 수 없다.

단순히 악기 소리만 내는 바라지는 바라지랄 수 없다. 입에서 터져 나오는 사람 소리가 악기 소리 위를 춤추고 넘나드는, 그런 바라지 소리가 꼭 있어야만 한다. 막걸리 맛이 짜~악 배인 굵고 뭉뚝한 남자 목소리 여섯 가락이 저마다의 색깔을 갖고 박자마저 비튼 선율을 타고 제각기 춤을 출 때, 시나위의 진맛은 혀끝을 적신다. 그 ‘시나위’를 거느리며 판을 끌어가는 단골네의 소리, 그런 바라지 소리와 엷히고설켜야 시나위고 씻김굿이다. 또 있다. 유족들의 가슴을 헤집고 나오는 울음소리, 뉘두리 소리, 망자와 싸우는 소리, 추임새 소리가 꼭 어우러져야 한다. 또 있다. 멍석 깔린 마당 한 쪽에서 터져 나오는 “웃이야, 모야!”, 그 환호성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가 된다.

이런 소음(?)마저 싸안고 흘러가는 바라지 소리, 그 시나위를 만들어내는 삼현육각이란 악기 소리, 그 삼현육각을 타면서 구름 시나위까지 해주는 고인들의 목소리가 질펀한 굿판, 그 굿판 한 구석에 앉아 괜히 같이 눈물 찔끔거리며 꺾는 술맛, 이렇게 어느덧 유족의 마음이 된 구경꾼의 한 자리도 빠져선 안 될 바라지이다.

그런 바라지 맛을 본 사람의 눈과 귀가, 가슴이, 최고의 무대 장치에 그럴듯한 조명을 배경삼아 삼현육각을 ‘연주하고 있는 시나위’와 대면하게 된다면 그저 피식 웃을 수밖에 없다. 그 전함을, 그 맛을, 그 멋을 그리워해서다. ‘실컷’과 절제, 죽은 자와 산 자, 저승과 이승, 신과 인간, 정형과 부정형, 즉흥과 법도가 한판에서 동시에 만들어내는 그 어떤 리얼리티와 경지를 만날 수 없는 허전함 때문이다. 굿판이 만들어내는 부조화의 조화. 무질서의 질서. 제각각의 어우리짐은 어디 왔는가?

죽음마저도 소리와 춤과 뉘두리로 지지고 볶고 버무려서, 실~컷 터트리고 달래고 어른 다음, 희고 깨끗한 질베(저승길)를 지르밟고 미련 없이 떠날 수 있게 해주는 바라지 소리! 그렇게 망자도 유족도 구경꾼도 훌훌 털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굿 소리! 덩실덩실 춤추게 해주는 씻김의 소리! 그런 멋진 굿판을 만들어 내는 길잡이 소리가 바로 삼현육각쟁이들의 악기 소리와 바라지 소리였다. 그 소리는 여섯 개의 악기와 남자 목소리가 만들어냈다. 삼신(三神)의 소리를 겹으로 엮은 소리, 그래서 여섯 개의 소리였다. 망자를 점지해 주셨던 삼신할머니의 소리[三聲], 그리고 삼신할아버지의 소리[三聲]. 두 분이 운우지정을 나누니 터져 나오는 소리! 그런 소리를 만들어 내겠다면 어쩔 것인가. 그 기운으로 망자에게 새 생명을 주고 싶다면 어쩔 것인가.

고을마다 동네마다 삼현육각편성은 제각각이었다. 해남 씻김굿의 경우엔 쟁(쟁), 장구라는 타악기에도 피리와 젓대(대금)를 사용하였다. 어느 시기부터는 아쟁도 췌다. 피리는 쌍피리였다. 저승까지 도달한다는 피리 소리. 젓대와 아쟁은 빼더라도 피리는 뺄 수가 없었다. 쌍피리를 세우고 싶어 했다. 음양을 조합해야 새 생명이 탄생될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 삼현육각 편성을 짜기조차 힘들다. 돈이 있어도 불 줄 아는 고인들이 없기 때문이다. 영암에서, 멀리 광주에서 모셔온다 하더라도 숫자 채우기가 힘들다. 아쟁 하나만 있어도 감지덕지다. 고인 한 사람이 정말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한다. 젓대 불다 피리 불다, 아쟁도 뜯어주다가 재빨리 또 젓대 잡고…。 장구에다 피리 꽂아놓고 손은 장구를 다루면서 입은 피리 불고, 한 손엔 징채 잡고 또 한 손으론 피리 불고…。 하지만 묘기 행진을 할 수밖에 없던 안타까움마저도 이젠 지나가버린 세월이다. 더더욱 아쉬운 것은 굿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제 땅끝권, 해남읍권, 우수영권을 나눌 계제가 아니다. 점점 하나의 색깔로 통일돼 가지 않겠는가. 아니 기괴한(?) 변종이 태어날 수도 있다. 한탄만 해야 할까. 아니다.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문화의 토양이 바뀌었는데, 돈이 도는 맥락과 입맛이 달라졌는데….

예술가가 아니라 굿쟁이로, 땅끝이 아니라 첼머리로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야 할까. 아니 회생할 수 있을까? 이 대목에서 다시 첼머리당할머니를 생각하게 된다. 그분은 이런 신화(神話)를 가지고 있다.

경상도에 성질이 괴팍한 기생이 있었는데, 심술이 사나워 쫓겨나게 되자 이리저리 떠돌다가 늙어 해남으로 오게 됐다. 그때까지도 성질이 안 삭았는지 윤선도가 당포를 지날 때, 백주에 턱하니 말을 가로막으면서 말다리를 부러뜨려 하마시켰다고 한다. 고산이 꽤 씹해 노파를 쫓으니 노파는, “내 신세야 내 신세야 나는 뭘 먹고 살까, 내 살길 좀 마련해주요.” 하며 울더라. 이에 고산이 “사람 없는 곳에 좌정하고, 올라가는 배 내려오는 배한테서 물이나 얻어먹고 사시오.” 하며 당터를 지정해줬다.

그 여인은 기생 출신이고, 성질이 괴팍하며, 유랑인이다. 해남의 지체 높은 양반에게 감히 해코지를 할 정도로 대가 세다. 절박한 몸짓이지만 그 기개만큼은 하늘을 찌른다.

고산의 시각에선 바닷가 사람을 ‘사람’이 아닌 것으로 설정했다. ‘물’으로 상징될 지배 세력을 대변한 셈이다. ‘사람 없는 곳’으로 지정한 데는 갈두산이다. 그러나 그곳은 사람이 없는 곳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었다. 일본인들도 한반도를 거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첼머리를 지나야만 했다. 땅끝이란 지리 조건이 갖는 특권이었다.

바닷길이 고속도로로 철도던 시절이다. 경상도·전라도·충청도·황해도의 배들뿐 아니라 외국 배들도 한반도를 끼고 연안 항해를 할 때면 반드시 지나던 곳. 갈두산 한 자락에 안온하게 들어선 당하리마을은 배와 뱃사람들이 한 숨 쉬어가야 할 중간 기착지였다. 며칠 묵으며 물과 곡식을 재충전하고 객고도 풀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울돌목보다 더 위험한 당하리 앞바다를 무사통과하기 위해 바람과 조류를 살펴야 했으며, 국적과 출신을 불문하고 첼머리당할머니께 무사항해를 빌었다. 첼머리당은 당하리에 지금도 있다.

여인의 몸이다. 거친 뱃사람들이다. 일본인 등 외국 선원들까지 휘어잡을 수 있는 힘과 저력은 바로 기생 경력과 유랑으로 다져진 밑바닥 경험의 긍정적인 발현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노마드성과 보살심의 발현, 자기 실존에 대한 기세 유지와 포용력의 조화. 여전히 유효한 가치로 보인다. 토착성과 유랑성을 다 받아들여 조화를 이룬 포용력뿐 아니라, 잡귀 잡신까지 높이 받드는 포용력에 특히 주목하게 된다.

이제 첼머리당할머니는 끊임없이 물려드는 관광객들로부터 새로운 옷과 밥을 원하실 것이다. 새로운 신화로 거듭나고 싶으실 것이다. 먼저 땅끝이 아니라 첼머리란 이름을 되찾아 오길 바라실 것 같다. 해남굿이 막차가 아니라 첫머리어야 한다는, 첫머리가 될 수 있다는 기개를 원하실 것 같다. 다행스러운 것은 대학도 나오고 젊고 씩씩한 40대 남자 가장들이 고인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다. 자신을 찾아온 조상신을 거부하지 않고 내림을 받은 박수의 신분으로 과감하게 변신하면서…。 판소리 고법으로 일가를 이룬 국악인이 조상들의 본향이었던 셋김굿판에 돌아오기도 한다.

그들이 ‘뽕짝 시나위’도 만들어내고, ‘레게 시나위’도 만들어서 바라지를 멋들어지게 해 낸다면, 국제적이었던 첼머리당할머니는 분명 반기실 테다. 무대 위의 ‘폼 나는’ 예술가로서가 아니라 가장 아픈 자리를 포근히 안아주는 굿쟁이로서 그 본질과 자존감을 당당히 보여준다면, 당할머니는 덩실덩실 춤추실 것이다. 굿은 죽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다양한 영역에서, 수많은 변종을, 과감하게 생산하는 해남굿을 보더라도 첼머리당할머니는 전혀 놀라지 않으실 것 같다. ■



함화자 당골은 1942년 완도군 남도에서 태어나 열여섯에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무계 집안과 혼인해 전라도 세습무관의 굿을 익히고 해남군 옥천면에서 몇 십 년 '노닐고' 있는 해남 전통 세습무이다. 사람들은 굿의 구성이 길고 사설이 탄탄한 함화자의 셋김굿을 두고 “해남은 굿이 켜다”라는 표현을 쓴다. 전라도 굿판에서 해남 세습 무계로서 굿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몇 남지 않은 예인이다.
참고자료: <남도무형문화예술 발굴시리즈 4-함화자 해남 셋김굿> 음반 해설서.

글 · 김우성 (라디오 피디)

도무지 퇴적은 없고 풍화는 겁내기만 할 것 같은 수직의 세상에
수평의 단단한 바닥을, 땅을, 추임새를 만들어주는 해남 노래는
단단하게 퇴적된 삶의 흔적을 간직한 채
이 순간에도 더 낮은 곳으로 흐른다.

수직의 세상에서 수평의 노래를 듣다



감남중 고수(鼓手)

사람처럼... 그리고 바람처럼..., 우리 음악엔 고향이 있다. 땅에서 솟는 음악이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음악이 있다. 음악은 저마다의 고향을 품고서 사람을 스쳐 사람에게로 흐른다. 노래는 그렇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의 섭리를 닮아 흐르고, 사람들도 그 걸을 좇아 흐른다. 노래와 삶은 ‘흐르다’는 동사를 공유한다. 그렇게 높고 뽕족한 세상을 등지고 낮고 둥근 땅의 끝을 향해 흐르다보면 삶이 비옥하게 퇴적된 노래의 너른 하류를 만나는 곳이 나온다. 그곳은 땅 끝, 바로 해남이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지휘자, 고수(鼓手)

낮음의 순리를 품은 해남엔 그에 걸 맞는 음악색이 있다. 바로 쫓쫓하고 탄탄한 북의 고장이라는 점이다. 한국 음악의 수도 진도가 박병천이나 조공례의 소리로 무대를 사로잡는 소리꾼이라면, 이웃한 해남은 묵묵히 무대가 되어주는 고수다. ‘1고수 2명창’이라 했다. 판소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고수요, 소리꾼은 그 다음이지만, 고수는 소리를 서있게 하기 위해 스스로는 앓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지휘자다. 북소리라는 것 자체가 낮기에 모든 소리를 품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저 먼 유배의 땅 해남도 스스로를 낮춘 까닭에 미움 받고 버림받은 삶을 보듬었고 공감했다.

그래서인지 해남은 일찍부터 수많은 ‘고수(鼓手)의 고수(高手)’를 배출해 왔다. 고수들 수련장으로기도 이름을 얻은 해남 대흥사 입구 유선관을 거쳐 간 천하의 명고 김명환(중요무형문화재, 1989년 작고) 선생부터, 정철호(중요무형문화재), 감남중, 천대용, 추정남 명고 등이 해남의 기운으로 북의 맥을 이어왔다. 최근에 와서는 젊은 소리꾼 임현과 공병진, 공도순 형제가 전국 고수대회에서 수상하며 해남 북소리의 전통을 잇고 있다.

소리꾼을 올려다보며 자리에 앉은 고수는 소리꾼이 아니라 세상을 올려다본다. 그래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다시 높은 곳으로 순환하는 세상의 이치가 소리에도 담긴다. 그 이치를 위해 고수는 삶을 내어놓고 소릿길을 하나씩 얻는다. 그 길로 소리꾼이 동행한다.

북얼 잘 치면 소리허기 싫은 놈도
목구멍에서 소리털 북채로 꼬집어 낼 수 있고
소리털 질러나가다가 죽을 데가 있으면
어이 얼씨구 하면서 딱 메꿔 버리면
소리가 산다 안 허요
〈민중자서전 | 내 북에 앵글 소리가 없어요〉
(구술 · 김명환) 중에서

추임새, 점으로 이루어진 완성의 언어

수직의 세상에서 상처받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꿈꾸는 관계는 청명한 시간을 가로지르는 추임새일지도 모른다. 서로가 서로에게 추임새일 수 있을 때 말과 생각은 오해 없이 오고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음악, 특히 남도 음악의 특징 중 하나인 추임새가 그렇다. 즉흥적인 공감을 넘어 소통을 완성하는 화룡점정이다. 한 바탕의 소리나 들노래, 민요를 문장에 비유하자면, 추임새는 점이다. “., ! ?” 때론 마침으로 때론 쉼으로 때론 감탄으로 때론 궁금함으로, 짧은 점으로 이루어진 언어 추임새는 그렇게 소통을 완성한다. 고수는 삶이라는 문장에 없으면 안 될 깊고 진한 점이다.

해남 노래는 유명세를 탄 진도나 다른 남도의 음악과 달리 담담하게 점으로 이루어진 언어, 추임새의 역할을 한다. 고수의 앓은 모양으로 낮은 곳에서 잉태되어 저 높은 바람 소리까지 뗏어주고 풀어준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사람을 상처 입히는
수직의 세상을 지탱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수평의 세상이다. 수평으로 펼쳐진 들녘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수평을 상징하듯
낮아지고 낮아지는 해남에서는 구불구불한 낮음이
바다와 이마를 맞대고 있다.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바다인지를 재려 가보면, 설 새 없이 그 선을 지우고
날카로운 선을 재는 사람의 마음마저 지우는 파도를
만난다. 파도와 닮은 노래를 만난다.

삶이 퇴적되는 노래는 신비롭게도 자연처럼
풍화된다. 거슬거슬 닳아버린 마룻바닥처럼,
바닷가의 바위처럼, 김행님 어르신 의 목소리는
풍화된 노래로 잔잔히 파도친다. 느릿하고 여유롭다.
메기는 노래 뒤에 긴 한 숨을 켜고서 ‘구나~혜’
하며 공감하는 남도 육자배기처럼 해남 노래에는
비옥한 영토가 만든 여유로움이 있다. 슬픔을
숨기고 기쁨으로 바꾸는 다급함 대신, 슬픔이
충분히 풍화되도록 슬퍼하는 여유로움을
노래마다 담고 있다.

시작과 끝이 없는 노래의 고리, 강강술래

사람이 올라리가 된다. 손을 잡고 빙빙 돈다. 어디가
시작점이고 끝점인지 알 수 없다. 리더도 팔로어도
없이 둥글게 모인 힘은 강력하다. 위대하다. 전쟁을
축제로 만들고 축제를 전쟁처럼 강렬하게 바꾼다.
강강술래는 이처럼 전쟁의 이야기와 축제의
이야기를 모순처럼 담고 있다. 실제로 해남 우수영
김길임 명창의 강강술래는 축제 느낌 가득한 진도의
그것과 다르다.

무대에 오를 수 없는 숙명을 품은 듯 토속적이고
순박한 흥취의 해남 우수영 강강술래는 진도
강강술래에는 없는 ‘가마타기’를 인용하며 남도
계면과 다른 독특한 분위기가 있다. 한국 음악의
대 이론가 고 백대웅 선생은 이런 해설을 통해 해남
소리를 ‘본 바닥 소리’라고 강조했다. 무대 위나
책 속의 노래가 아니라 삶의 바닥에 울리는 노래라는
뜻이다. 바닥, 그것은 낮음의 상징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모든 것이 바닥으로 추락하기도
하지만 다시 바닥에서 튀어 오르기도 한다. 바닥은
끝인가? 시작인가? 해남, 땅 끝의 노래는 그런 훌륭한
바닥이다. 바닥의 다른 이름은 ‘땅’이고 ‘들’이다.
권력의 바닥으로 여겨졌던 유배지 해남에서 고산
윤선도와 다산 정약용은 바닥의 위대함을 쌓고서
역사에 길이 이름을 남겼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 바닥으로서 해남의 들소리는 딱딱하고 단단한
남성성을 품고 있다. 진도, 신안 등지의 들노래에서
푸근한 여성성, 어머니와 대자연을 느낄 수 있다면
2013년에 권오성, 변남주 교수가 45년 만에 복원한
전라 우수영 들소리는 남도에 흔하지 않은 남성성의
소리다. 타 지역의 들노래보다 오래된 고향의 모습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이 소리는 짝을 띄우고 부활을
노래하는 푸근한 땅 무른 바닥이 아니라, 전쟁과
바다와 땅을 딛고서는 우직함으로 다가온다. 첫 길을
트고 길을 들이는 단단함이 녹아있다. 평평하게
바다와 이마를 맞댄 해남은 그냥 땅 끝이 아니라
단단한 땅 끝이다.

삶이 단단하게 퇴적된 해남의 소리를 만난다. 도무지
퇴적은 없고 풍화는 겁내기만 할 것 같은 이 수직의
세상에 수평의 단단한 바닥을, 땅을, 추임새를
만들어주는 해남의 노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낮은
어디론가 ‘흐르는 노래’다. 그렇게, 사람도 자연처럼
수평의 세상으로 흘러야 한다는 순리와 이치를
담담하게 노래로 전해줄 것이다. 그 노래를 따라
해남으로 흐르고 싶다. ■

말은 가자 굵을 친데
임은 잡고 낙로 하네

1999년 1월 채록한 해남 논메는 소리 중

〈만별 소리〉(노래 · 김남동 외) 중에서



정철호 고수(鼓手)

1999년 1월 해남 금호도에서 채록한
〈해남 자장가〉(노래 · 김행임) 중에서

마라 마라 마라 마라
우리 애기 잠을 자고
놈 애기는 깨어주고
머리에 잠도 눈이로 내리고
귀에 잠도 눈이로 내리고 ∴

한국의 차 이야기는 해남 땅 두륜산 자락에서 시작한다.
대흥사 대웅보전을 뒤로하고 가파른 길을
한 시간쯤 오르면 나오는 암자에서 출발한다.
조선 후기 그곳에서 다만 맑고 가쁜한 기운을 바라며 초의차가 태어났고
다성(茶聖)의 마음은 백오십여년을 살아 오늘에 이어진다.

초의연구가 박동춘에게 듣는 차 이야기



일지암에 걸린 초의선사 영정.

물을 품평해 본 적 있는가. 돌 속에서 솟는 물, 모래에서 솟는 물, 흙에서 솟는 물의 품성이 어떻게 다른지 알겠는가. 물에 불이란 놈까지 슬쩍 엿어보자. 그물이 “게눈처럼 끓어오르다가 구슬이 연이어지듯 끓어오른 상태는 맹탕”이란 언어의 품을, 끓는 물이 익은 정도를 15가지로 분류하는 감각을 가늠할 수 있겠는가.

한국 차문화를 집대성하며 다성(茶聖)으로 손꼽히는 초의선사(1786~1866)를 알아가는 길은 큰 세계의 언덕을 거둬 넘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다. 물과 불을 장악한 시선을 읽는 것도 난제거니와, 찾있이 그 두 세계와 통달하며 이루는 ‘초의차’의 경지는 아무리 읽어도 눈에 담을 수 없는 글의 뿌리 같다. 펼쳐진 시간 속에서 단 하나의 찰나를 헤아려 찾는 일의 연속.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하루 늦춰만 찾있엔 향이 없고, 차를 ঢ우는 대술이 가마솥을 한 번 더 가로지르면 차의 정기는 사라진다. 물을 끓이다가 익는 찰나를 놓치면 물이 차의 기운을 눌러버리고, 찻잔에 차를 따르다가 한 순간 서두르면 차의 색·향·미가 드러나지 않는다.

초의차를 좇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소장을 찾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는 초의차 4대 종법손인 응송 스님에게 제다법과 차 이론을 배웠고, 1985년 ‘다도전계(다도를 전하는 시)’를 받으며 초의차 5대째 계보를 이었다. 35년째 차를 ঢ으며 초의의 다도와 한국 차 문화를 연구해온 박 소장에게 초의와 시대를 넘나드는 텍스트가 투영돼 있다. 그는 말한다. 차의 이 맑은 기운이 사라질까봐 차마 자신의 차를 상품화하지 못하겠노라고. 그건 오만이 아니라 차의 기운을 보호하려는 절박한 장치라고. 하지만 그런 뜻을 품으니 묘하게도 차를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은 저절로 만들어지더라고. “우리는 이렇듯 알 수 없는 조화 속에 사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박 소장에게서 초의차를 안팎으로 취했다.

차가 이어준 유불의 지극한 교유

“좋은 차는 몇 관이나 따셨습니까. 어느 때나 (차를) 연이어 부쳐주셔서 이 차에 대한 탐심을 진정시켜 주시렵니까. 날마다 바라고 바랍니다.”

해남 일지암에 머물던 초의에게 날아온 편지의 일부다. 애절함을 해학으로 에둘러 이렇게 간곡히 차를 재촉한 이는 누굴까. 다름아닌 조선 후기 최고의 지식인으로 꼽히던 추사 김정희다. 추사가 이 편지를 쓴 것은 1853년. 이미 완성을 본 초의차가 당대 유학자들에게 회자되며 ‘전다박사(煎茶博士)’라고 칭송받을 때다.

대흥사와 일지암에서 60여 년을 보낸 초의가 어찌 천릿길 밖 한양 인사들에게 초의차를 알릴 수 있었을까. 박 소장은 추사에 방점을 찍었다. 차, 불교, 시로 지극한 경지를 나눴던 동갑내기 초의와 추사는 유불을 넘나들며 교유를 이어갔다. 맑고 담백한 초의차의 경지에서 군자의 속성을 읽은 추사는 주변에 초의차의 애호층을 넓혀 후원 세력을 확보해줬고, 시문에 특히 능했던 초의는 홍현주·신위·다산의 자제 등 한양에서 권세를 누리던 세도가들과 시와 차를 나누며 마음까지 얻었다. 박 소장은 “초의가 문집 《일지암시고》를 엮었을 때 조선의 명망 있는 사대부들이 서문과 후발을 쓴 것으로 보아 초의의 위상과 시격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 후기 최고의 다인으로 꼽히는 추사와 초의는 60여 편의 서간문을 나눴다. 추사는 편지에서 관악산의 샘물에 우린 초의차를 치켜세우기도 하고, 뒤는 법이 지나쳐서 초의차의 정기가 사라지고 가라앉은 것 같다 지적하기도 한다. 초의차가 몽정차나 노아차 등의 중국 명차와 비교해 맛과 효능이 떨어지지 않는다 극찬하며 ‘명선(茗禪)’이라는 호를 주기도 했다. 추사의 제주도 유배 시절, 초의차가 약 이상의 효능을 준 사연도 있다. 편지에서 추사는 “설사병으로 탈진한 몸이지만 차의 힘으로 수명을 연장하노라.”, “병든 위가 감동하고 또 감동하였노라.”고 전했다.

차를 매개로 한 대화보다 더 마음을 끄는 것은 그 둘이 나눈 깊은 신뢰와 애뜻한 정회다. 다음은 추사가 세상을 뜨기 3년 전에 쓴 편지의 일부다.

“어찌 이런저런 갈등을 깨버리고 지팡이 하나로 멀리 와서 이 차의 인연을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게다가 요즈음에는 자못 참선의 선열에 대해 맛난 묘미를 느끼지만 이 묘제를 함께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스님과 더불어 눈썹을 치켜세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이 소망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차밭 없는 대흥사에서 초의는 어떻게 차를 만들었을까

조선 후기 지식인 사회를 사로잡은 초의차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 걸까. 박 소장은 “초의는 차밭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나주 운흥사(초의가 출가한 사찰), 불회사 등에서 제다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짐작했다. 그러나 생산량은 아주 적었을 것이다. 신라말 선종과 함께 유입된 차문화는 고려시대에 이르러 왕실과 사찰의 주도 하에 융성했지만, 억불 정책이 지속된 조선에선 사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차의 산지와 인접한 사찰의 수행자들이 차의 명맥을 유지할 뿐이었다.



일지암 전경.

9년간 이곳저곳을 떠돈 초의가 1809년 정착한 해남 대흥사 상황은 어땠을까. 당시 대흥사 인근은 기온이 낮아 차가 생육되는 여건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게 박 소장의 전언이다.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인근에 대량 재배 지역이 생겨났지만, 내가 백화사(대흥사 반야교 아래에 위치한 사찰)에 머물며 차를 배우던 1979~1984년까지만 해도 주변에 차나무가 없었다. 그래서 강진, 진도, 담양 등에서 차를 채취해 왔고, 그 때문에 매년 밤늦게 차를 만들었다. 아마 초의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따는 찻잎에도 이야기가 있다. «다신전»(초의가 명대 장원의 «다록»을 재편집해 편찬한 책)에선 밤새도록 구름 한 점 없는 날, 밤이슬에 흠뻑 젖어있는 차를 따는 것이 최상이라고 했다. 한낮에 따는 것이 그 다음이요, 잔뜩 구름 낀 날이나 비 오는 날에 따는 것은 좋지 않다고 돼 있다. “가장 청명한 날씨에 채다를 해야 맑음을 극대화한 찻잎을 얻는다는 말”이다. 채다에 날씨보다 중요한 것은 찻잎 따는 시기다. 중국의 다서들은 그 시기의 으뜸을 곡우(양력 4월 20일) 전 5일이라 전한다. 차에 식견이 없는 이들도 ‘우전차’라면 무조건 엄지를 치켜세우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하지만 초의는 «동다송»(초의가 조선 차에 대해 송(頌) 형식으로 저술한 책)에서 그 명제를 한반도의 기후에 견주어 풀며 “우리의 경우 입하(양력 5월 5일) 이후에 따는 것이 좋다.”고 했다. 겨우내 땅심을 다스려 솟아오른 새순에 자연의 기운이 가장 지극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

초의는 새순 돋는 시기의 미묘한 간극을 헤아렸고, «다신전»에서 “너무 이르게 따면 맛이 온전하지 않고, 늦어지면 차의 신령한 기운이 흩어진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찻잎에 응축된 자연의 정기가 가장 충만한 시점에 따라야 한단 말이다.

박 소장은 잎의 상태를 보아 채다 시기를 정한다고 했다. 일창일기, 즉 말린 속잎 하나에 퍼진 잎이 하나일 때가 가장 좋다고 본다. 이는 초의가 선택한 시기이기도 하다. 김명희는 «다시»에서 초의의 찻잎 다루기를 “일창일기, 엄격한 법도를 지키네.”라고 증언하고 있다.

차 한 모금에 샘의 원천이 보이고

“차는 물의 신(神)이요, 물은 차의 체(體)다. 알맞은 물이 아니면 (차의) 신묘한 세계가 드러나지 않고, 잘 만들어진 차가 아니면 좋은 (물의) 본질을 엿볼 수 없다.”

«다신전»에 서술된 물과 차의 이야기다. 그러나 제아무리 좋은 물이 좋은 차를 만났다 해도, 제대로 끓이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물 끓이는 일의 핵심은 “차가 물을 만났을 때 물이 제 기질을 드러내지 않고 차를 온전히 드러내는 타이밍을 찾는 것”이다.



일지암의 겨울, 눈속에 핀 차꽃.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학연구소가 발간한
«초의선사»(1997년)에서 재전재.)

그런데 차에게 몸을 내어준 물은 그 와중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박 소장은 예를 들었다. 잘 만들어 우린 차는 원천(源泉)이 가지고 있는 속내를 환하게 드러내는 통에 여간 곤욕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물을 맛볼 때 미처 느끼지 못했던 맑고 탁함뿐만 아니라 원천이 담고 있는 기질까지도 확연히 나타내는데, 그 엄정함이 유리처럼 투명하다고.



일지암 유천(乳泉). 초의선사는 생전에 이 샘물을 자신의 ‘젓샘’이라 부르며 아꼈다. 추사의 부친인 김노경(金魯敬)은 고금도 유배에서 풀려나 서울로 가던 길에 일지암에 들러 이 유천의 맛을 보고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겨 예찬하기도 했다. “다 함이 없는 산아래 샘물을 / 널리 산 속의 벗들에게 공양하노니 / 각자 표주박을 가지고 와서 / 모두 온전한 달을 떠 가시라.”

초의는 «다신전»에서 물이 끓는 모양, 소리, 증기의 형태에 근거해 ‘물이 알맞게 끓은 상태’도 논했다. 중국에서는 물이 익은 상태를 ‘순숙’이란 용어로 통일해 사용했지만, 초의는 순숙(純熟)·결숙(結熟)·경숙(經熟)으로 세분화해서 논한 것이 눈에 띈다. 초의가 끓는 물의 상태를 증기로 가늠한 구절을 보자. “한 오라기 김이 피어오르다가, 두 가닥 김이 피어나고, 서너 가닥 김이 피어나다가 어지러이 섞여져 구분할 수 없이 김이 피어오르면 모두 맹탕이다. 곧 김이 가운데로 모여 한 가닥으로 피어오르면 이것이 경숙이다.”

같은 물을 다르게 끓인 것만으로 정말 차이가 존재할까. 박 소장은 알맞게 끓인 물, 너무 오래 끓인 물에 같은 차를 우려 쫘다. 차이는 극렬했다. 순숙의 찻물에서 튀어 오르던 활기와 긴장감은 과하게 익은 찻물을 만나니 밋밋하고 순한 맛으로 돌변했다. 그럼 알맞게 끓인 물에 같은 차를 우리되, 그 물의 종류를 다르게 사용하면 어떨까. 박 소장은 최상의 샘물과 일반 생수를 준비해 같은 차를 우렸다. 맛의 차이가 극렬하진 않았지만, 둔한 미각으로도 눈치 챌 수 있을 정도였다. 초의는 «다신전»에서 발원지에 따른 물의 면면도 낱낱이 정리했다.

“산 정상에서 나는 물은 맑지만 가볍고, 산 아래에서 솟는 샘물은 맑지만 무겁다. 돌 속에서 솟는 물은 맑고 달며, 모래에서 솟는 물은 맑지만 달고 가볍다. 흙에서 솟는 물은 싱겁고 담백하다. 누런 돌에서 흐르는 물이 가장 좋고, 푸른 돌에서 솟는 물은 쓰지 않는다.”

박 소장은 여기에 물의 변수까지 덧붙였다. “물을 떠서 곧바로 사용하면 수성(水性)이 성성해서 차의 온건함을 상하게 할 수 있다.” 풀이하자면, 물을 막 떠냈을 땐 출렁임 따라 물의 기운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으니 그것을 고요하게 잠재우는 시간을 거치란 얘기다. 그 물이 안정을 찾는 시간은 대략 네 시간이라고 한다. 차의 입문이 물을 분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자명해진다.

삼매를 능히 꿰뚫은 자만이 불을 장악한다

초의는 두 종류의 차를 만들었다. 곡우 전 어린 새순으로는 덥음차를 만들고, 늦게 딴 억새고 큰 잎으로는 떡차(익힌 찻잎을 찼어서 떡처럼 만든 차)를 만들었다 전해진다. 다산 정약용도 «다산계절목»에서 덥음차와 떡차를 만들었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이는 당시 해남 대흥사와 강진 다산초당의 제다 풍습이었을 것이다. 특히 덥음차는 약성이 찬 잎을 불로 제어하는 차였기에 적잖은 공을 들여야 완성할 수 있었다. 초의는 그 제다 공정을 «동다송»에 이렇게 남겼다.

“새로 딴 차에서 묵은 잎을 가려내고 솔이 뜨거워지면 차를 덥는다. 솔이 몹시 뜨거워지면 차를 넣고 급히 덥는데 불을 늦춰서는 안 된다. 차가 다 덥어지면 꺼내서 대자리에 놓고 가볍게 둥글리며 여러 번을 깊이 비벼 다시 솥에 넣고 점점 불을 줄여가며 건조한다. 차를 덥고 말리는 데에는 법도가 있고 그 가운데 오묘함이 있어 말로 드러내기는 어렵다.”

‘말로 드러내기 어려운 오묘한 법도’는 곧 “불의 밀도를 장악하는 것”이다. 어린 순을 가마솥에서 알맞게 익히는 풍경을 상상해 보자. 불붙은 가마솥엔 숫자와 시간이라는 과학이 끼어들 수 없다. 손의 감각으로 헤아릴 일이며 미세한 순간을 파악하는 통찰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이다. 박 소장은 “불 위에서 변화하는 차를 한눈에 읽고 장악하는 정치한 통찰력 없이는 차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차는 삼매의 경지에서 만든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추사는 이미 그것을 헤아린 듯, 초의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보내주신 차는 정말 훌륭합니다. 다삼매를 능히 꿰뚫은 것입니까.”

덥음을 끝냈다고 불 사용이 끝난 게 아니다. 초의는 재건(再建)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소장은 이렇게 풀어준다. “초벌 덥기에서 차 익힘을 끝냈다면, 이후 낮은 온도에서 덥는 재건 과정은 차의 향을 안으로 집어넣는 작업이다. 차의 맛과 기운이 전자에서 결정된다면, 향을 넣어 차를 온화하게 만드는 것은 후자의 몫이다. 이 두 과정은 불 쓰임 자체가 다르다. 초벌 덥기에 문(文)과 무(武)의 불이 고르게 머물러야 한다면, 재건 작업에선 아주 은근한 문(文)의 불을 써서 달랜다.”

달랜 후에는 잠을 재워야 하는 이치일까. 차는 그날부터 며칠 동안 잠을 잔다. 불안정한 불기운을 빼기 위한, 불에서 정신없이 나뒹던 기운을 가라앉히기 위한 시간이다. 초의는 이를 “차의 본성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했다. 성품을 회복하기 위해 잠재우는 시간이라니, 그 며칠의 시간을 표현하는 말 가운데 이보다 더 그럴 법한 말이 또 있을까.

유리알처럼 극명하게 드러나는 차의 세계

차는 오감으로 마신다고 했다. 귀로는 찻물 끓는 소리를, 코로는 향을, 입으로는 맛을, 눈으로는 다구와 차를, 손으로는 찻잔의 온도와 감촉을 느끼라는 얘기다. 다구를 다루고 차를 음미하는 것도 다도의 일부인 것이다. «다신전»에선 다관이 너무 뜨거워서 차의 향과 맛이 달아나지 않도록, 청결하지 않은 다호에 물의 성정이 묻히지 않도록 두루 살피야 한다고 했다. 박 소장은 특히 따르는 온도를 강조했다. “초의의 음다법은 92도의 뜨거운 차를 마시는 것이다. 차가운 차는 차의 본질을 중화시킨 상태에서 취용하는 것이다. 뜨겁게 마셔야 차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다.”

다도는 차를 만들고 마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다. 차에서 취하는 것은 향과 맛 너머의 ‘맑음’이란 표상이다. 차는 한번만 다른 것에 물들면 그 본성을 잃는다 했던가. 하여 선비들에게 차는 순일한 마음과 통하는 무엇이었다. 그들은 차를 마시며 마음의 정화를 꿈꾸고 군자라는 당대의 이상향에 다가갔다. 박 소장의 얘기도 그와 일맥상통한다. “차에는 만드는 이의 한 해 마음가짐이 그대로 드러난다. 차는 너무나 투명하기 때문에, 유리알처럼 극명하게 드러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차를 지난 한해를 반성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당나라 시인 노동은 “좋은 차를 일곱 잔째 마시니 겨드랑이에서 맑은 바람이 스멀스멀 일어난다.”고 했다. 초의도 다르지 않았다. «동다송»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화로에 물끓는 소리 잦아드니 맑고 가쁜한 몸, 정신마저 또렷함이라. 오직 백운과 명월 두 객만을 허락하니 도인의 자리, 이것이 최상의 경계라.” 卍



추사가 초의선사에게 써준 «명선»(57.8×115.2cm), 간송미술관 소장,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학연구소가 발간한 «초의선사»(1997년)에서 재전제.

이하곤은 유배를 당한 장인의 면회를 이유로 집을 나섰지만
내심 버르고 별러온 호남 유람이었다.
삼개월여 남도의 풍광에 흠뻑 빠졌던 그는 이백오십여 편의 시와 함께
긴 여행기 ≪남유록 南遊錄≫을 남겼다.
그가 삼백여 년 전 해남 땅을 찾은 사연도 그 안에 있다.



이하곤, 스치듯 해남과 조우하다

정조 치세이던 1794년 젊은 시인 심노승(沈魯崇)은 제주목사로 가는 아버지 심낙수(沈樂洙)를 뵈러 길을 떠났다. 천릿길을 말을 타고 내려온 그는 제주로 가는 최단 포구인 해남의 이진(梨津)에서 배를 기다렸다. 풍교롭게도 비바람이 거세어 순풍을 기다리는 열흘 동안 그는 해남의 관아와 이진의 성 안팎, 대흥사 등지를 둘러보는 기회를 얻었다. 그때 십여 편이 넘는 시를 지어 해남과 이진 포구의 경물을 묘사했는데 그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강남땅 천릿길을 끝내고 난 곳에
푸른바다 홀연히 말 앞에 가로 놓였네.
장풍 불어 비린내가 사방으로 흩어진 뒤
비 내리는 외로운 성, 저녁 뿔피리 울어대네.
行盡江南千里程
忽看滄海馬前橫
長風吹散魚龍氣
煙雨孤城暮角鳴

천릿길을 말 타고 와서 처음 목도한 남해 바다는 호쾌함에 앞서 바다 내음과 비바람 탓에 감개함과 울적함을 가져왔다. 서울과 제주로 떠나기를 기다리는, 크고 번잡한 포구의 소란스러움이 그에게는 이국 풍경처럼 다가왔다. 지금과 달리 이진은 왜적을 막기 위해 작은 성으로 둘러싼 성읍이자 포구로서 해로의 중심지 역할을 충실히 하던 곳이었다. 먼 육지 손님에게 해남 바닷가는 한적한 어촌과는 다른 인상을 심어주었다.

이하곤의 남도 여행기 남유록(南遊錄)

한반도 서남쪽 끝에 자리 잡은 해남은 여전히 서울에서 가장 먼 곳의 하나다. 한 세기 전에는 여행자의 발길이 단기가 더더욱 힘들었으리라. 옆 고을인 강진이나 영암도 사정은 다를 바 없었으나 전라도 병영(兵營)이란 군사거점이 있었던 강진은 해남 보다야 외지인의 출입이 많았다.

해남은 먼 곳의 여행객을 사로잡을 특별한 그 무엇이 없었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탓에 호남 여행에서도 크게 눈에 띄이지 않았다. 다만 심로승 같은 특별한 여행객들에겐 제주도를 포함해 진도나 완도 등지로 가는 길목이라서 들러가기가 쉬웠다. 승려들은 두륜산 대흥사나 달마산 미황사를 찾으러 왔다. 그리고 강진에 온 여행객들이 간혹 해남까지 함께 여행했다. 저명한 시인인 정학연(丁學淵)은 아버지 다산 정약용을 찾아뵙고자 강진에 왔을 때 해남 두륜산을 유람하고서 ≪유두륜산기(遊頭輪山記)≫란 아름다운 등산기를 남겼다.

숙종조의 저명한 문인, 담헌(澹軒) 이하곤(李夏坤, 1677~1724)의 호남 여행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1722년 1월 장인인 송상기(宋相琦)가 정치 사건으로 강진에 유배되었다. 그는 장인을 찾아뵈러 가는 길에 호남의 풍광을 마음껏 누려보리라 작심을 했다. 이하곤은 10월 13일 충청도 청주를 떠나 3개월간 전라도 일대를 두루 여행했다. 산수 탐방을 즐긴 여행객의 일생에서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의미 깊은 여행이었으니 시 250여 편과 긴 여행기 ≪남유록≫을 쓴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때는 겨울을 거쳐 봄을 맞이하는 계절이었다. 길을 떠나며 쓴 시에서 이하곤은 해남 대흥사의 장춘동 골짜기에서 꽃을 보고 싶은 꿈에 들떴다. 금강산과 속리산을 오른 이래 풍광이 멋진 호남의 산수를 구경하려던 바람이 이루어졌다.

말채찍을 휘두르니 절로 천리 길도 가벼워,
장춘동 만 그루 매화꽃을 구경하고 싶네
揮鞭已自輕千里
要賞長春萬樹梅



해남 두륜산 자락에 위치한 대흥사(大興寺). 두륜산을 대둔산(大菴山)이라 부르기도 했기 때문에 원래의 사찰명은 대둔사(大菴寺)였으나, 근대에 대흥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느릿느릿 명승을 돌아보는 조선의 여행법

이하곤은 목적지를 향해 돌진하지 않고 행로에 있는 명승을 천천히 구경하면서 가는 그 시대의 여행법을 따랐다. 공주와 연산, 여산을 거쳐 호남으로 들어갔고 삼례와 전주, 금구, 금산, 태인, 정읍, 장성, 광주, 나주를 거쳐 목적지인 강진에 도착하였다. 거치는 곳마다 꼭 명승지 한두 곳을 들렀다. 강진에 도착해 장인을 뵙고 위로한 뒤, 이하곤은 주변 명승지를 차례로 구경하러 다녔다. 전부터 꼭 구경하리라 생각했던 월출산과 천관산, 대둔산이 가까운 고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하곤은 먼저 장흥으로 가서 천풍산(天風山)이라 불리는 천관산을 올랐다. 송림(松林)이 줄지어 늘어선 모습에 감탄했다. 승려로부터 팔만대장경을 배에 싣고 오다가 이 산 위에서 멈췄다는 석범봉(石帆峰) 전설도 듣고, 정상에서 남해가 보이는 천하장관에 꽤재를 붙렸다. 스승인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이 이곳을 거쳐 제주까지 가보려 했던 일을 떠올리고, 그때 자기가 막은 것을 후회했다. 실제로 등반해보니, 현지 사람들이 영암 월출산은 비단 도포 속에 헤진 솜옷 입은 모습이고 장흥 천풍산은 베로 만든 도포 속에 비단옷을 입은 모습이라고 비교해 품평하는 것에 공감이었다.

그는 다시 강진 남당항(南塘港)을 거쳐 이번에는 해남으로 떠났다. 눈 쌓인 대둔산을 바라보며 해남으로 들어가는데 해가 바뀌는 때라 그런지 나이 들어 시골에 묻혀 사는 처지에 대한 한탄이 절로 나왔다. 그가 찾아간 백련동(白蓮洞)은 현재의 해남읍 연동리다.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 1587~1671)의 고택이 있는 곳이다.

18세기 초, 녹우당의 어느 늦겨울 밤

시에서 밝힌 것처럼 이하곤은 저녁 무렵 녹우당(綠雨堂)에 도착했다. 그는 호남에서 가장 운치가 넘치고 잘 보존된 고택의 하나인 녹우당 방문기를 상세하게 남겼다.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 일이다. 지금은 너무도 유명한 곳이지만 19세기 이전에는 녹우당을 방문하고 기록을 남긴 인물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해남이 워낙 멀기도 하고, 강경한 남인 골수의 집안인 까닭도 있다. 그 특별한 장소를 이하곤은 일부러 찾았다. 녹우당 주인의 한 사람인 저명한 화가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緒, 1668~1715)와 친하게 지낸 인연 때문이었다. 해남 가까이에 가면서 7년 전에 작고한 친구의 고향집을 찾아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친구의 아들 윤덕희(尹德熙, 1685~1776)가 그를 반갑게 맞았다. 역시 유명한 화가인 그는 주안상을 내와 술을 권하며 보관하고 있던 귀중한 예술품을 보여주었다. 특히나 윤두서의 한 평생 득의작만을 모은 화첩을 내놓았다. 그의 그림은 세상 사람들이 보물로 여겨 그리자마자 가져가는 바람에 집안에 남아 있는 것이 없었는데 윤덕희가 다른 그림으로 바꿔서 거두어들였고, 그중에서 수작만을 따로 엮은 것이었다. 현재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국보와 보물급 화첩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윤덕희도 대단히 유명한 화가이지만 이하곤 역시 회화 감식안으로 당대에 매우 유명했던 평론가다. “시를 짓는 것은 화공(畫工)이 초상화를 그리는 것과 같아서 머리털 한 가닥 수염 한 가닥도 똑같이 그려야 비로소 그 사람을 제대로 그렸다고 할 수 있다.”라는 화론(畫論)이 그의 명언이고, 윤두서의 자화상은 그런 화론의 전형이다. 윤덕희는 생황과 당금(唐琴)까지 꺼내 보여주고 집안 노비에게 연주를 시켜서 술맛을 돋우었다. 대단히 정교하게 제작된 악기로, 보기 어려운 물건이었다.



〈유하백마도〉(보물 제481호)
윤두서, 비단에 수묵채색, 32.2×40cm,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 소장.



해남 윤 씨 고택의 사랑채 녹우당으로 들어가는 문.



〈윤두서 자화상〉(국보 제240호)
윤두서, 비단에 채색, 38.5×20.5cm,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 소장.



〈세마도〉윤두서, 비단에 설채, 37.8×52cm,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 소장.

이하곤이 본 그림 중에는 틀림없이 윤두서의 그 유명한 자화상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 자화상에 붙인 진찬(眞贊)을 이하곤이 지은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그는 “육척이 채 되지 않는 몸으로 사해(四海)를 뛰어넘으려는 의지를 지녔고, 긴 수염을 휘날리는 얼굴은 불그레하니, 보는 이들이 신선이나 검객인가 의심하네.”라고 윤두서를 묘사했다. 지금 자화상을 봐도 그가 묘사한 인상이 그대로 살아 있다. 그날 밤 녹우당의 대화는 당대 최고의 화가와 평론가가 음악을 듣고 술잔을 기울이며 작품을 평하는 뜻 깊은 장면이다.

담헌보다 더 깊이 볼 수 있을까?

해남에서 본격적인 여행은 대둔산 등반이었다. 녹우당에서 자고 일어난 다음날 그는 윤덕희와 함께 20리 떨어진 대둔산, 곧 지금의 두륜산을 함께 등반하였다. 그렇게 보고 싶던 장춘동 동백꽃이 온 산에 흐드러지게 핀 기이한 경관을 구경하였다. 지금은 이름이 대흥사로 바뀐 대둔사는 입구로부터 고목들이 양쪽에 늘어서 있고, 나는 듯한 누각이 계곡물에 걸려 있었으며, 건물이 곳곳에 늘어서 있어 어디로 가야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만큼 규모가 컸다. 승려의 수가 천 명이나 되어 남방에서 규모가 제일 큰 절이라고 했다. 지금도 큰 절이지만 당시의 규모를 생각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다.

수십 년 뒤에 정조 임금의 배려로 서산대사를 기리는 표충각이 이 절에 지어졌다. 당시까지만 해도 승려를 기리는 그런 시설이 없었다. 대둔사 스님들은 서산대사의 유적과 유물을 자랑스럽게 보관하며 선비들에게 과시하였다. 담헌은 대흥사를 뒤로 하고 정상에 있는 북미륵암(北彌勒庵)에도 올라 바위에 새겨진 미륵상을 구경하였다. 그 미륵상이 금강산의 명승인 안양암(安養庵)보다도 더 웅장하다고 느꼈다.

이하곤은 그날 진도 쪽으로 하산하여 20리 떨어진 백포(白浦)의 윤덕희 아우 집에 가서 잤다. 현재의 현산면 백포리로 윤 씨 집안 소유의 해장(海庄)이 있던 곳이었다. 지금도 거기에는 윤두서의 고택 하나가 남아 있다. 담헌의 눈에는 연못과 누정이 아름답고 골과 유자,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름다운 풍치가 있었다. 다만 바닷가에 위치하여 황량한 느낌이 드는 것이 아쉬웠다. 그는 여기서 윤덕희와 헤어져 강진 만덕사로 향했다. 아쉬운 점은 그가 달마산 미황사를 찾지 않은 것이다. 당시에는 미황사의 명성이 지금만 같지 않은 탓이 아닐까?

이하곤은 이후 강진 보림사, 무위사, 수인사, 도갑사를 비롯해 영암 월출산까지 차례로 탐방하였다. 귀로는 올 때와는 다른 경로를 택하여 남평, 능주, 동북, 창평, 남원, 임실 등을 거치며 소쇄원과 광한루 같은 각지의 명승을 찾아 구경하였다. 이하관은 세 달이 걸린 호남 여행에서 해남에 겨우 사흘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다. 그래도 누구보다 해남의 멋을 충분히 느끼고 글로 썼다. 지금 해남을 가도 그가 거쳐 간 것보다 더 깊이 볼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



〈주마상춘도〉윤두서, 비단에 수묵, 29×21cm,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 소장.



글 · 김은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세계민족무용연구소 상임연구원)
사진 · 구범석

잠시나마 그 가락에 공명했기를.

이제 나무판자로 남은 고산유금(孤山遺琴)도

영산회상 한바탕을 치례(致禮)의 심정으로 연주한다.

연주자는 자신의 먼 윗대 조상들께서 생전의 음악을 흠향하도록

맑은 거문고 가락이 울린다.

오백여 년 된 비자나무 숲을 배경으로, 해남 윤 씨 고택 사랑채 녹우당에

해남 윤 씨 가의 거문고 이야기

수백 년 묵은 오동나무는 이제 더 이상 소리를 담지 못한다. 소란한 심사를 달래주던 명주실 여섯 줄도, 손끝으로 섬세하게 울음을 잡아가며 옮겨 다니던 열여섯 개의 꾀(楸)도, 힘차게 내리치는 대점을 부드럽게 받아내던 대모(玳瑁)도 모두 사라졌다. 곡선의 울림통은 절반이 날아가고 남은 절반마저 끊어졌다. 시간은 이 악기가 그저 나무였던 본연의 모습만 허락하였다.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 한편에 누워있는 나무판자들.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한다.

소리로 마음을 다스리던 고산 윤선도

360여 년 전, 노래와 음악을 즐겼던 고산 윤선도의 거문고 사랑은 유별났다. 어린 시절을 보냈던 한양에서 처음 해남 땅으로 내려가는 길에 거문고 수리 약품까지 꼼꼼히 챙겨갈 정도로 그는 노래와 음악을 좋아했다. 녹우당과 금쇄동에 머물며 정치에서 멀어져 있을 때도, 보길도 낙서재에서 삶의 험 험함을 자연에 위로받을 때도, 그의 곁에는 늘 음악이 함께 했다. 오죽했으면 “눈에는 청산이요 귀에는 거문고 소리, 이 세상 어떤 일이 내 마음에 들어오랴”라고 읊었겠는가.

한번은 고산이 해남 수령으로 왔던 지인에게 거문고를 빌려준 일이 있었다. 그런데 몇 년이 흘러 유배지였던 함경도 삼수(三水)에서 주인 없는 거문고가 있다는 말을 듣고 가져오게 했더니 몇 년 전 자신이 빌려준 그 거문고가 아닌가! 남쪽 땅 끝 해남에서 빌려준 거문고를 북쪽 땅 끝 삼수에서 만났으니 고산의 기쁨이 어떠했을까. 사연인즉, 지인이 해남을 떠나 삼수 수령으로 갔을 때 그곳 유배객에게 빌려주었다가 그대로 삼수에 남게 되었던 것이다. 가족이라도 만난 듯 고향 생각에 몽클해진 고산은 이 모든 게 조물주가 자신을 위로하려고 베푼 일이라며 놀라워했다.

오랜 벗 거문고를 만난 기쁨에 유배의 처지도 잊고 음악에 몰입하던 고산은, 그러나 정치적 적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벗의 편지를 받게 된다. 혹독한 자기반성과 절제도 밍보일 판국에 음악에 심취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라는 힐난이었다. 윤선도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예기»와 «소학», 그리고 정이천과 주자의 옛말까지 인용하여 벗의 우려를 일축한다. 남의 눈에 방탕하게 보일 것을 우려하여 오히려 음악을 멀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고루하고 낡은 틀에 갇혀 옛 성인의 참뜻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탄식하였다. 요컨대 그에게 음악은 어지러운 마음을 수습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수신의 방법이었다.

금재를 찾아 금강산 만폭동을 헤매던 선비들

조선 후기 사대부의 거문고 사랑은 각별했다. 거문고는 스스로를 경계하려는 경중이었고 풍류를 애호하는 상징이었으며 때로는 시류에 부합하려는 기호품이기도 했다. 사대부에게 연주를 잘 하는 일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물 흐르듯 맑은 소리는 더없이 중요했다. 당연히 울림이 좋은 거문고를 얻는 일은 일생의 낙이었다. 맑은 소리를 내는 거문고의 재료는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자란 까닭에 목질이 강하고 결이 곧은데다 진액의 기운이 다 건조된 바위 위 묵은 오동나무였다.

조선의 선비들은 금강산 만폭동의 바위 위에서 자란 오동나무를 최고의 악기 재료로 쳤다. 윤선도와 교유하였던 허목과 조경이 금재(琴材)를 구하기 위해 함께 금강산 만폭동에 들어가 바위 위에서 자라던 오래된 오동나무를 채취하였다는 일화는, 이들이 호사가의 취미를 넘어 거문고를 얼마나 진지하게 바라보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좋은 목재는 공재 윤두서의 벗 이서가 구한 오동나무였을 것이다. 이서는 금강산 만폭동 석상 오동 중에서도 벼락 맞은 것을 얻어 거문고를 만들었다. 어찌나 소리가 청량했던지 듣는 이의 정신까지 여윌롭게 만들었다는 이 거문고를 당시 사람들은 ‘군자금’이라 불렀다. 선율이나 리듬 이전에 악기 소리 자체가 인간의 사특한 마음을 바르게 평정하였다는 함축적 의미다.



고산 윤선도가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하는 거문고
‘고산유금’. 현재 하판 1편과 상판 1편이 남아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다. 형태가
온전한 것은 국립국악원이 복원하여 기증한 것이다.



孤山遺琴

악기는 대를 물리고 음악관은 가풍이 되어

고산의 손끝에서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길들여진 거문고는 후손들의 글씨와 낙관이 더해지면서 한 집안의 역사가 되었다. 고산의 4대손 낙서 윤덕희는 울림통 뒷판에 ‘고산유금(孤山遺琴)’이란 명문과 함께 그의 낙관을 음각하였다. 또 5세손 윤준은 울림통 앞판에 고산이 지은 ‘금객이 시를 구하니 금계를 지어주었다(琴客求詩爲作琴誠)’라는 제목의 5언 절구를 음각하여 음악으로 성정을 다스리고자 하였던 선대의 유지를 더욱 강조하였다.

고산의 음악적 가풍을 한층 심화시킨 이는 증손인 공재 윤두서였다. 공재에게 거문고는 상고(尙古)와 교유의 매개체였다. 서화에 뛰어났고 경학·병법·천문·수학·기하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에 능했던 공재는 근기남인(경기도 인근에 살던 남인 세력)이 정치적으로 위축되자 정계로 나아가지 않고 학문에 힘썼다. 그는 몸으로 체득하고 실사에 비추어 증험하고자 하였던 실득적 방법론으로 고학과 고법을 실천하였다.

음악도 마찬가지였다. 거문고에 투영된 유가의 악론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공재는 이 답을 찾기 위해 중국 유학자들이 수신(修身)의 악기로 삼았던 철현금을 직접 실측하고 제작하여 철현금의 상징성에 실증적으로 접근하였다. 게다가 철현금을 제작하는 과정을 《회명퇴정시》라는 제작 보고서에 기록해 두기도 하였다.

생각해보라. 사대부가 팔을 걷어 부치고 자귀와 대패로 나무를 다듬어 치수를 재고 톱질을 한 후 명주실을 꼬아가며 악기 만드는 모습을! 당시 궁중 음악 기관이었던 장악원에서조차 중국에서 철현금을 수입해야 했고 연주법도 중국까지 악사를 파견하여 배워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옛 문헌과 자신의 수치를 비교 수정하며 악기를 제작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했을 것이다. 마치 수영 한 올 한 올까지 섬세하게 표현했던 그의 자화상 제작 과정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윤두서의 철현금 제작은 그 옛날 윤선도가 비난을 감수하고 유배지에서 음악에 몰두하였던 것처럼 유가의 악론을 내면화하려는 적극적인 음악 행위라는 점에서 그 본질이 닮아 있다.



고산이 거문고 제작과 사용법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 《회명퇴정축》.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 소장.

공재에게 거문고는 벗들과의 교류 방식이기도 했다. 음악이야 새벽이나 저녁으로 조용하고 한가할 때 현을 골라 혼자 즐기면 족했다. 스스로 기록을 없애고 천기를 펼치자는데 요란스럽게 악회나 가단이 무슨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러나 고급의 음악을 담은 악보를 돌려보고 서로 거문고에 금명을 새겨주며 음악 담론을 나누는 즐거움은 포기하지 않았다. 당대 최고의 금객이었던 김성기의 제자 최탁지는 자주 그에게 악기 제작에 관해 문의했고, 형제처럼 가까웠던 옥동 이서와의 교류는 거문고를 매개로 자손들까지 이어졌다. 금객 김성기 사후에 그의 거문고 음악을 모아 편찬했던 《낭옹신보》가 현재 이 집안에 가전한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해남 윤 씨 가문의 음악적 교류는 천릿길을 넘나드는 폭진한 만남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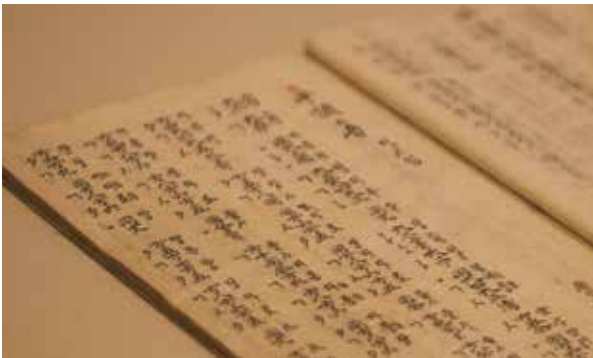
고산유금과 아양금, 세상과 재회하다

얼마 전, 녹우당에 거문고 소리가 울렸다. 한국 악기에 최적화된 연주 공간은 한옥이기에 이곳에서 생생한 원음을 살리려는 의도로 기획된 연주였다. 재미난 것은 그날 거문고를 연주한 박희정씨 해남 윤 씨 가의 먼 외손이라는 사실이다.

그녀는 어린 시절 이따금 어머니께 먼 외가의 지난 일을 전설처럼 듣고 자랐다. 해남 윤 씨 가의 여성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을 당시 가전하는 선조의 유물을 땅속 깊숙이 묻어 지켜냈다는 그런 이야기였다. 그러나 스스로 거문고를 전공하면서도 그 유물 속에 고산유금이나 아양금의 울림통이 남아있다는 사실이나 자신이 늘 연주하는 영산회상의 옛 가락이 《낭옹신보》에 들어 있다는 것은 한참 후에야 알았다. 대학원 시절 은사로부터 처음 이 유물들에 대해 들었을 때, 그녀는 자신이 거문고를 전공하게 된 일이 우연만은 아닐 거라 생각했다. 고산유금에 새겨진 가문의 유풍이 후천적 학습을 넘어 몇 세대를 거치며 DNA에 새겨진 것이라면 지나친 해석일까.

거문고를 업으로 삼으면서 박희정은 고민이 많았다. 과거 거문고는 악기 중의 으뜸이라며 ‘백악지장(百樂之丈)’이라 칭송받았지만 규모가 큰 서구 무대와 국악관현악단의 화려한 악기 편성이 일반화된 요즘, 거문고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변화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서 그녀 역시 음량을 키운 개량악기나 서구 기법이 도입된 창작 음악을 연주하며 거문고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기도 했다. 그러나 박희정은 지난한 시행착오 끝에 해남에서 그 답을 찾았다. 거문고는 국악기 중에서도 자기 절제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악기다. 끊임없이 궤 위의 현을 밀어 일정한 장력을 유지하면서 현의 탄성을 공기의 밀도 속에서 둥글고 맑은 소리로 전환 하는 일은 연주자에게 한 치의 흐트러짐도 허락하지 않는다. 현란한 테크닉이나 기교는 그녀가 찾던 거문고의 본질이 아니었다. 360여 년 전 고산 윤선도가 힐난을 무릅쓰고 거문고 소리에 자신을 투영했듯, 마음의 티끌을 털어내고 소리 자체에 몰입했을 때 듣는 이에게도 진정한 감동이 전해진다는 것을 이제 그녀도 깨달았다.

사람은 가고 악기 역시 형체만 남아있다. 몇 해 전 국립국악원은 해남 윤 씨 가문에 남은 유물을 토대로 고산유금과 아양금을 복원해 기증하며 연주회를 가졌다. 잠시나마 녹우당에서 애탄하던 거문고가 세상과 재회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연주자 박희정은 자신의 먼 윗대 조상들께서 생전의 음악을 흠향하도록 영산회상 한바탕을 치례(致禮)의 심정으로 연주한다. 모처럼 녹우당에 감도는 맑은 거문고 가락이 나무판자로 누워있는 전시관의 고산유금과 아양금을 오랜 잠에서 깨우지 않을까.■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이 소장하고 있는 《낭옹신보》 필사본. 《낭옹신보》는 낭옹 김성기의 제자 이설 등이 스승에게 배운 가락을 정리해 1728년에 만든 책자이다. 김성기는 젊어서는 활을 만드는 조공장이었으나 거문고를 배워 뛰어난 기량을 보였고, 노년에는 서호에 배를 띄우고 소일하면서 제자들에게 거문고를 가르쳤다.



녹우당에서 거문고를 타고 있는 연주자 박희정. 그녀는 해남 윤 씨가의 먼 외손이다.











Photo © Bryan Ku



Việt Nam

CÀ MAU



베트남, 미완성의 내러티브

베트남을 바라보는 영화에서 베트남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다들 멋대로 상상하거나 추억에 잠겨 지나가버린 시간과 장소를 더듬거리거나 혹은 어리둥절해하면서, 반복해서 질문할 뿐입니다. 여긴 어딘가? 당신은 누군가? 어디로 가는가? 베트남을 꿰는 기호와 형식의 내러티브는, 그래서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글·정성일(영화감독·평론가)

나는 물론 여기서 당신께 베트남 영화들을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 영화들은 당신께서 단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제목들 일 것이며, 게다가 그 어떤 영화감독들의 이름도 귀에 익지 않을 것입니다. 미안하게도 베트남 영화는 아직까지도 세계 영화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지나치게 긴 전쟁 기간 동안 영화는 폭격과 (양쪽 모두의)검열 속에 희생되었으며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사회주의 건설의 경직된 프로파간다가 되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나는 여기서 당신이 한번도 보지 못한 제목과 (더 심각한 것은)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영화에 관련된 전문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거의 불 가능성이 없는 영화를 소개하는 것이, 내 정보를 뽐내는 것 말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글을 두 번째 쓰고 있습니다. 다시 쓰는 글은 방점을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만나는 영화들은 베트남을 바라보는 영화들입니다. 시인 네르발은 “이미 오래 전 사진 속의 희미한 이미지라도, 반복해서 그걸 들여다보고 있으면 상상 속의 지리가 자신의 기억을 차지하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1

미쳐가는 전쟁, 〈지옥의 묵시록〉

한 번도 베트남에 가보지 못한 이들에게 베트남의 풍경은 정글로 떠오를 것입니다. 아마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한 사내가 더위에 지친 얼굴로 권태로운 표정에 잠긴 채 천장만을 하염없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월라드 대위, 미군 특수부대 소속. 베트남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사이공. 그는 지금 임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무언지는 그도 모릅니다. 하염없이 돌아가는 선풍기. 어디선가 나지막하게, 마치 저승에서 호소라도 하듯 짐 모리슨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여기가 끝이야, 거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 그걸 건너서 내게 와.”

갑작스러운 호출 명령. 임무는 간단하지만 괴상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 국경에서 전쟁을 수행 중이던 월터 E 커츠대령이 갑자기 미쳐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스스로 왕임을 선언한 뒤 모든 명령을 거부하고 있으니 가서 사살하라.” 월라드 대위는 마치 기계처럼 일어나 네 명의 부하를 이끌고 비밀리에 메콩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이 베트남전쟁에 관한 가장 철학적인 영화 〈지옥의 묵시록〉의 시작입니다.



〈지옥의 묵시록 (Apocalypse Now)〉, 1979

코폴라는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면서 조셉 콘래드가 1899년에 출간한 식민지 약탈 소설 〈암흑의 핵심〉을 원본으로 삼아 자유롭게 월라드 대위를 쫓아갑니다. 물론 콘래드 소설의 무대가 된 곳은 메콩 강이 아니라 아프리카 콩고 강 유역입니다. 코폴라는 “메콩 강과 콩고 강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지?”라고 반문하기라도 하듯 정글로 이어진 강처럼 그냥 이어 붙여 버립니다.

영화에서 베트남은 신화적인 풍경의 원시림처럼 보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드. 여기에는 당신이 종종 다른 할리우드 영화에서 보던 미군과 베트남의 전투 장면은 없습니다. 오로지 학살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미국인들은 모두 미쳐가고 있습니다. 커츠 대령을 쫓아 정글 한복판에서 사진을 찍고 있던 미친 사진 기자는 월라드 대위에게 마치 발견이라도 한 듯 비밀스럽게 말합니다. “여긴 정글 전체가 정신병원이야.” 무언가가 이들 모두를 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평가 짐 호버만은 〈지옥의 묵시록〉을 “영화를 보았다기보다는 마치 사이키델릭 마리화나 파티에 다녀온 기분”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2

두 발로 기록한 베트남, 〈위도 17도〉

베트남에서 그들은 어둠의 심연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정신적인 카오스, 자꾸만 잃어가는 영혼의 윤곽들. 월라드는 자신의 목표에 다가갈수록 점점 현실 감각이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분명히 좌표를 올바르게 맞춰 놓았는데도 미로에 접어들면서 점점 가라앉는 것만 같은 이 무시무시한 기분. 어쩌면 베트남은 지도상에만 존재하는 정글이라는 신기루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요리스 이벤스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바람구두를 신은 예술가’라고 불리는 이 다큐멘터리 감독은 세상을 찍기 위해 마치 바람처럼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베트남에 미국이 폭격을 시작하자 그것을 영화가 느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내이자 동료인 마르슬랭 로리당과 함께 1968년 정글 속 깊이 자리 잡은 베트남 마을을 방문합니다. 이 마을은 너무 깊숙이 자리 잡아서 미군 부대도 수색을 포기한 지역이었습니다. 요리스와 마르슬랭은 단 한 대의 카메라와 녹음기 한 대로 그들의 일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중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평화로운 풍경. 그러나 갑자기 종이 울리면 논에서 일하던 사람들과 요리스 부부는 재빨리 땅 밑 어두운 참호로 피신해야 합니다. B52 폭격기가 폭탄을 쏟아 부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종소리가 나자 허겁지겁 참호로 숨는 요리스와 함께 흔들리는 화면을 영화는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모든 할리우드 영화가 헬리콥터 위에서 베트남을 내려다보았다면 요리스 부부는 대지 위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베트남을 기록합니다.

지도 위 베트남을 가리키는 지표인 ‘위도 17도’를 제목으로 한 이 영화는 베트남 인민들의 공포를 관객들의 시청각 체험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요리스 이벤스 부부는 어쩌면 이 영화를 찍다가 함께 죽을 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때 카메라가 거기 있어야 한다는 건 영화의 윤리가 나에게 내리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트남은 그때 휴머니즘에게 윤리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대지였습니다.



〈위도 17도 (17th Parallel)〉, 1968

나는 지금 두 편의 한국 영화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한 편은 안정효 작가가 1983년에 소설을 쓴 다음 영화로 옮긴 〈하얀 전쟁〉이고 다른 한 편은 1969년 가수 김추자 씨가 부른 동명의 노래를 주제가로 삼아 만든 〈님은 먼 곳에〉입니다. 두 편의 영화 모두 배경은 베트남전쟁입니다. 차이는 간단합니다. 〈하얀 전쟁〉은 베트남에 가서 그 전쟁을 정말 본 사람이 만든 영화이고 〈님은 먼 곳에〉는 그 전쟁을 전해들은 세대의 영화입니다. 소설을 쓴 안정효 작가뿐만 아니라 주연을 연기한 안성기 씨도 베트남전쟁에 참전을 했었습니다. 언젠가 인터뷰에서 안성기 씨에게 그때의 기억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대답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왜 거기 있는 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있지 말아야 할 장소, 〈님은 먼 곳에〉에서 순이는 그곳에 간 남편을 찾아서 위문부대 가수가 되어 베트남으로 향합니다. 영화는 그 무시무시한 시간을 대중가요의 멜랑콜리한 가사처럼 종종 슬프긴 하지만 그저 낭만적으로 슬그머니 건드릴 뿐입니다. 나는 여기서 베트남을 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느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얀전쟁〉, 1982



〈님은 먼 곳에〉, 2008



〈연인 (L'Amant The Lover)〉, 1992

베트남을 아주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프랑스 누보로망의 작가인 마르그리트 뒤라스입니다. 그녀는 1914년 4월 4일 베트남 사이공 근처에 있는 지아딘에서 태어나 거기서 17살 때까지 자랐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일 겁니다. 뒤라스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 다. 그러다가 갑자기 일흔 살의 나이가 되었을 때 «연인»이라는 이름으로 자서전적인 소설을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된 뒤라스는 소설에서 거의 어제 일처럼 자신이 “열다섯 살, 그리고 절반이 된” 소녀 시절 사이공에서 만난 중년의 중국 남자, 그리고 그와 나눈 첫 번째 성 경험의 나날을 우아하면서도 적나라하게 고백합니다. 마치 손에 잡힐 듯한 무더운 공기의 문장들. 아버지 없이 혼자 세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와, 백수건달에 폭력이나 휘두르는 큰 오빠와, 그 오빠 밑에서 주눅 들어 사는 작은 오빠. 그리고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서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아주 세련되고 호사한 복장의 돈이 넘쳐나는 것만 같은 중국인 중년 남자에게 한눈에 빠져든 소녀.

뒤라스는 소녀의 위험한 감정의 모험을 그 내밀한 심리까지 마치 사이공을 떠도는 파리 떼를 관찰하듯 쫓아들어 갑니다. 베트남 특유의 향이 만져질 것만 같은 단어들.

그렇습니다. 뒤라스는 어린 시절 베트남에서 자기가 맡았던 냄새를 다시 기억해내려고 필사적입니다. 향기와 숨결의 교차. 그 사이로 강기슭의 수평선과 소리도 없이 유유히 흐르는 강 위의 태양이 반짝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남자를 만나러 갈 시간. 뒤라스는 할머니가 되어 세느 강을 거닐며 내려다본 수면에서 문득 메콩 강을 내려다보던 자신의 소녀 시절이 떠올라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소설을 장 자크-아노가 〈연인〉이라는 동명의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소설을 읽은 다음 영화를 본 사람들은 제인마치가 너무 예뻐서 감흥이 떨어졌다고도 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뒤라스의 소녀 시절이 얼마나 예뻐했는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 몽환적인, 꿈에 잠긴 듯한 소녀의 눈을 말입니다.

그러면 베트남은 정말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1975년 4월 30일 사이공 함락과 함께 많은 베트남 사람들은 보트피플이 되어 조국을 떠났습니다. 14살의 트란 안 홍도 부모와 함께 그렇게 떠나서 프랑스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그는 뤼미에르 영화학교를 나와서 세트에서 베트남 소녀의 성장담을 찍은 〈그린 파파야 향기〉로 칸 영화제에서 신인감독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 찾아가 두 번째 영화를 찍었습니다. 이제는 호찌민 시로 이름이 바뀐 사이공의 빈민가. 우리가 그 전에는 (영화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베트남 도시의 진짜 빈민가.

여기서 삼륜 자전거를 운전하는 한 소년의 이야기가 시작 됩니다. 〈씨클로〉는 강패들에게 삼륜자전거를 빼앗기자 대여료를 갚기 위해 그 조직에 들어가 일하면서 점점 사악한 기운에 청춘이 산산이 찢기는 한 소년의 고통스러운 몰락을 홀린 듯이 따라잡니다. 여기서 호찌민 시의 빈민가는 종잡을 수 없는 카오스로 펼쳐집니다.



〈그린 파파야 향기 (The Scent of Green Papaya)〉,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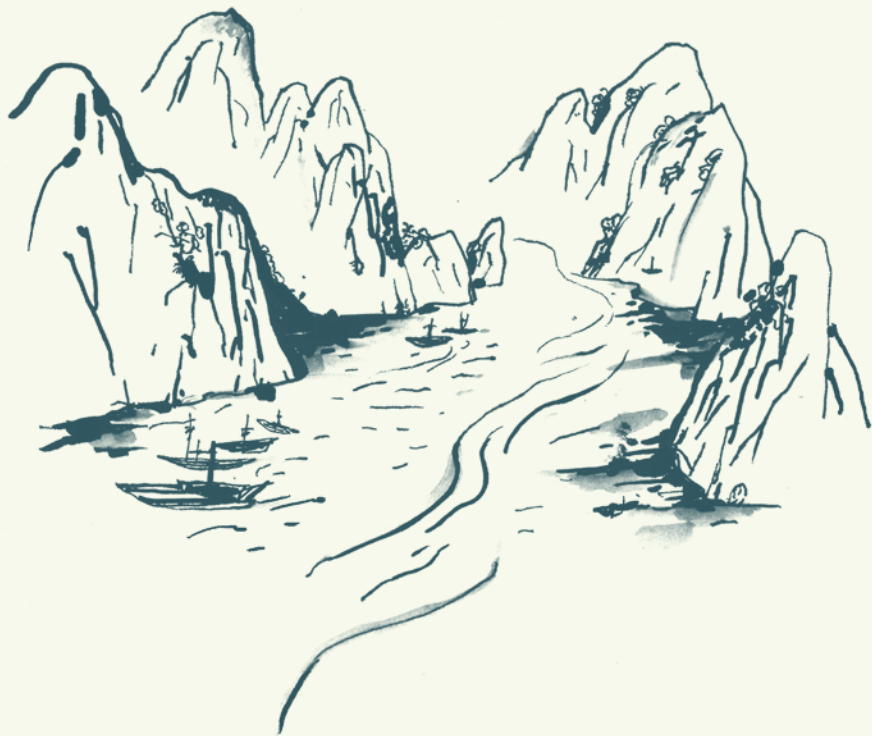
〈씨클로 (Cyclo)〉, 1992

이 영화의 가장 유명한 장면. 디스코 클럽에 들어서자 영국 록 밴드 라디오 헤드의 ‘크립(Creep)’이 쏟아지듯 스피커에서 터져 나옵니다. 이때 라디오 헤드의 멤버 조니 그린우드 가 녹음 중에 기타를 떨어트리는 바람에 만들어진 피드백 노이즈는 마치 주인공의 찢어지는 마음을 대변하듯 울려 퍼집니다. 이 영화는 트란 안 홍의 금의환향에 관한 찬가가 아닙니다. 그러기는 커녕 고향을 떠나 낯선 파리에서 실패를 보낸 우울한 베트남 청년이 돌아오기는 했지만 모든 것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호찌민 시의 밀바닥에서 비통한 심정으로 그린 초현실주의에 가까운 지옥도입니다.

나는 영화에서 아직도 베트남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거기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두들 제멋대로 상상하거나 아니면 추억에 잠겨서 이미 지나버린 시간을 마치 아편을 피듯 떠올리거나, 그도 아니면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곳이 어딘지 어리둥절하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남은 방법은 한 가지 뿐일 것입니다. 거기에 가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트남은 당신을 기다리는 나라입니다. 언젠가 그곳에 가게 되면 정글 앞에 서서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

베트남 이야기가

이야기하는 베트남



세상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러하듯이 이야기도 탄생과 소멸을 거듭한다. 어떤 이야기가 출현했다는 것은 그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있었다는 뜻이다. 어떤 이야기가 소멸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화와 전설, 민담은 가장 강한 생명력을 지닌 이야기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그 이야기에는 이야기가 출현한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그 사회를 지탱해온 중요한 가치와 규범이 담겨있다. 그것은 한 나라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보여주는 마음의 지도이기도 하다. 여기, 베트남으로 가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다. 베트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는 오늘을 살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이 내면화하고 있는 가치의 지형도가 압축돼 있다. 베트남인,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글·방현석(소설가)
그림·최진영(일러스트레이터)



#1
목 없는 미찌우 공주:
조국을 배반한 비련의 사랑

꼬로아는 하노이 서북쪽에 있는 오래된 마을이다. 이 마을에는 달팽이 모양으로 지은 성이 있는데, 이제는 희미한 흔적으로만 남은 이 성에는 슬픈 사랑 이야기가 얹혀있다.

기원전 257년, 수백년간 반랑국을 다스리던 홍 왕조가 점차 쇠퇴하고 안즈엉이 반랑국을 점령하며 왕위에 올랐다. 안즈엉은 홍 강 유역의 평야 지대에 새로이 나라를 세워 ‘어우락’국이라 칭했다. 그는 도읍을 꼬로아로 옮기고 성을 새로 쌓아 국방을 튼튼히 하고자 했다. 그런데 아무리 성을 쌓아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곧 무너져 내렸다.

안즈엉 왕이 상심에 젖어 있을 때, 성 밖에 황금거북이가 나타났다. 그는 거북이를 성 안으로 모셔 극진하게 대접했다. 왕의 정성 어린 대접을 받은 거북이는 성이 자꾸 무너지는 이유를 가르쳐 주었다.

“나라를 잃은 반랑국 왕자의 원혼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이요, 근처 객주집 딸이 가지고 있는 흰 닭 또한 요괴로서 사람들을 해치는 것입니다. 성을 완성하려면 그 흰 닭과 객주집 딸을 죽이시오.”

나그네로 변장한 왕은 거북이가 시킨 대로 하였고 요괴를 물리쳤다. 성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고, 공사 보름 만에 둘레가 천 장이나 되는 튼튼한 성이 완성됐다. 달팽이처럼 꾸불꾸불한 모양을 한 성은 적이 내습하기 어려웠다.

나라가 안정되고 걱정이 사라졌다. 황금거북이는 성에 머문 지 삼 년 만에 그만 돌아가기를 청했다. 왕은 몹시 아쉬웠지만 더 이상 붙잡을 명분이 없었다. 왕은 마지막으로 황금거북이에게 장차 외침을 막을 비책을 부탁했다. 황금거북이는 자기 발톱을 하나 내어주며 말했다.

“적이 쳐들어오면 이것으로 석궁을 만들어 쏘십시오.”

황금거북이는 그 말을 남기고 동해로 돌아갔다.

그 후, 짜에우다가 지금의 중국 땅 남쪽 광둥성 일대에 남비 앳을 세우고 중원을 장악한 환과 맞섰다. 그는 한고조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으며 남쪽으로 세력을 더욱 확장하고자 했다. 그리고 마침내 안즈엉이 다스리는 어우락을 넘보기 시작했다.

짜에우다의 대군이 물밀듯 몰려왔다. 그러나 꼬로아 성은 끄떡없었다. 황금거북이의 발톱으로 만든 석궁은 한번에 수많은 화살을 쏠 수 있었다. 시위를 한 번 당기면 적군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어우락의 군대는 순식간에 적을 섬멸했다. 적의 군대는 공포에 떨었고, 짜에우다는 더 이상 공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얼마 후, 짜에우다는 안즈엉 왕에게 화전을 청하는 서찰을 보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우락을 침략할 의사가 없고, 화전의 뜻으로 내 아들 종 투이를 보내 어우락의 공주와 혼례를 올리도록 하고 싶소.”

안즈엉 왕에게는 미 짜우라는 아름답고 착한 공주가 있었다. 안즈엉 왕은 짜에우다의 뜻을 받아들여 공주를 종 투이 왕자와 혼인시켰다.

그러나 이것이 짜에우다의 계략이었음을 안즈엉 왕도 미 짜우 공주도 알 리 없었다. 어느 날 종 투이는 공주를 시켜 황금거북이의 발톱으로 만든 석궁을 빼오게 했다. 착한 미 짜우 공주는 사랑하는 남편이 자신의 나라를 섬멸하기 위해 석궁을 훔치려고 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시아버지의 음모에 따라 움직이는 남편을 믿었던 공주는 석궁을 건네주며 이 불가사의한 무기를 다루는 기술까지 알려주었다. 가짜 석궁을 만들어 진짜와 바꾸어치기 한 종 투이 왕자는 꼬로아 성의 지형과 방어 태세 등 모든 정보를 손에 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쥬 투이는 부모님을 뵙고 오겠다고 공주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이렇게 말했다.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치지 않게 피신하여야 하오. 피신할 때는 거위 털로 된 옷을 입고, 가는 길목에 깃털을 남겨 두시오. 내가 반드시 당신을 찾아가 구할 것이오.”

아들 쥬 투이가 목적을 이루어 귀국하자, 쥬에우 다는 곧바로 꼬로아 성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안즈엉 왕은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태연히 바둑을 두었다. 황금거북이의 발톱으로 만든 석궁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쥬에우 다는 그렇게 당하고도 내 석궁이 두렵지 않느냐.” 안즈엉 왕은 적군이 코앞에 들이닥친 다음에야 석궁을 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석궁은 아무런 구실도 하지 못했다. 가짜 석궁을 가진 왕은 속수무책이었다. 그사이 적군의 화살은 비 오듯 쏟아졌고, 성문은 무너졌다.

안즈엉 왕은 말을 타고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딸 미 쥬우를 찾아뒤에 태웠다.

“걱정하지 말거라. 내 너만큼은 꼭 지켜낼 것이다.”

왕은 포위망을 떠돌리고 필사적으로 질주했다. 그러나 잠시 숨을 돌리려던 어느새 적들이 추격해왔다. 왕의 등에 매달린 미 쥬우는 쥬 투이가 시킨 대로 달아나면서 길목마다 거위 깃털을 뿌리고 있었다. 쥬 투이의 군대는 뿌려진 거위 깃털을 보고 안즈엉 왕을 쫓아왔다. 추격의 발길이 점점 가까워졌다. 안즈엉 브엉 부녀의 눈앞에는 오직 막막한 바다가 놓여 있을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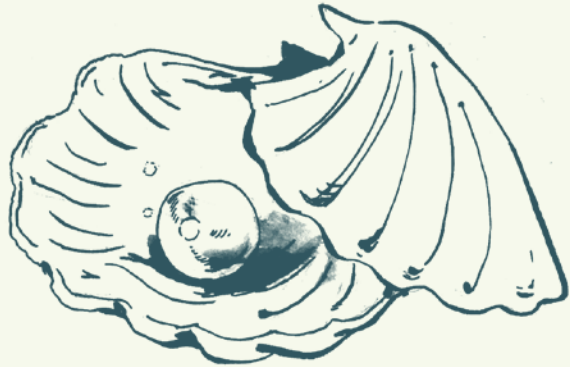
안즈엉 왕은 목 놓아 부르짖었다.

“하늘이시여, 정녕 나를 버리시나이까? 황금거북이님은 어디에 계시옵니까!”

왕의 애절한 외침에 황금거북이가 물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황금거북이는 냉정하게 말했다.

“누구를 원망한단 말이오. 적은 바로 당신 등 뒤에 있소이다.”

안즈엉 왕이 뒤를 돌아보니 딸이 뿌린 새하얀 거위 깃털을 보고 적군이 흠뻘지를 일으키며 쫓아오고 있었다. 절망과 분노에 찬 왕은 칼을 치켜들었다. 미 쥬우는 아버지의 칼을 피하지 않았다. 다만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다.



“소녀가 만일 반역의 마음을 품어 아버지를 해할 생각이 추호라도 있었다면 죽어서 티끌이 되게 하소서. 그러나 만일 소녀가 속아서 이렇게 되었다면 죽어서 진주가 되게 해주소서. 내 진주가 되어 결백을 증명하고, 원수를 갚으리다!”

안즈엉 왕은 칼을 내려 그었다. 미 쥬우 공주의 목은 땅에 굴러 떨어졌고, 왕은 말을 달려 그대로 바다에 뛰어들었다. 미 쥬우 공주의 피도 바다로 흘러들어 갔다. 바다의 조개들이 그 피를 들이마시자 피는 영롱한 진주로 변했다.

장인을 추격해 왔던 쥬 투이는 목 잘린 아내를 발견하고 나서야 소스라치게 자신이 한 행동을 깨달았다. 자신을 사랑 하여 끝까지 믿었던 아내의 시신을 부둥켜안고 쥬 투이는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비통한 마음으로 아내의 시신과 아내의 피를 머금은 진주를 수습하여 꼬로아 성으로 돌아왔다. 쥬 투이는 아내를 평소 함께 거닐었던 양지바른 언덕에 묻어 주고, 아내의 핏물을 머금은 진주는 그녀가 예전에 자주 자신의 그림자를 들여다보곤 했던 우물에 뿌려주었다.

진주를 삼킨 우물은 거울보다 더 청명해졌다. 쥬 투이는 우물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을 배신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용서받지 못할 한 인간의 얼굴이 있었다. 쥬 투이는 우물에 몸을 던져 용서할 수 없는 그 얼굴을 부숴버렸다.

이야기가 하는 이야기

미 쥬우와 쥬 투이는 베트남인들의 뇌리에 가장 확고하게 각인되어 있는 연인의 상징이다. 두 사람의 사랑과 배신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미 쥬우에 대한 질책도 있고 동정도 있다. 쥬 투이에 대한 비난도 있고 용서도 있다. 베트남이 외세의 침략을 겪으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 미 쥬우는 철없는 악녀가 되었다. 시인 또 흐우는 이렇게 그녀를 나무랐다.

심장이 잘못하여 머리 위에 놓이니
어처구니없게도 신의 석궁이 적의 손에 넘어가
국가의 사명이 바다 속 깊이 가라 앉았네

그러나 평화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절대적인 사랑과 믿음을 그리워했다. 거짓에 속더라도 완전한 사랑을 꿈꾸는 이들에게 ‘사랑뿐이 난 모르는’ 미 쥬우는 무모해서 위대한 사랑의 전설로 남았다. 그래서 시인 안 응옥은 이렇게 그녀를 옹호했다.

아름다운 이는 머리가 떨어져 나가도 아름답고
사랑은 거짓에 속더라도 온전한 사랑이라네 (중략)
비록 우리의 가슴이 사무치도록 아파도
미 쥬우를 죽음에서 구할 수는 없네
바다 조개들이 사람을 대신하여
품속에서 사랑의 진주를 키울 것이네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는 안즈엉 왕을 기리는 행사도 있지만 미 쥬우 공주와 심지어 쥬 투이를 기리는 행사도 있다. 모든 사랑이란 어리석고 서투르고, 무모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것이 또 사랑이 되는 것이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서야 사랑이 채고 따지는 세상의 일과 어떻게 전혀 다른 것일 수 있겠는가.

하이바쥁(쥁 자매):
두 자매의 3년 항전이 남긴 베트남인의 DNA

중국 한나라는 베트남을 정복한 뒤 세 개의 군을 설치하고 태수를 파견해 통킹만 일대를 통치했다. 한반도에 한사군을 설치한 것과 같은 시대의 일이다. 통킹만 일대를 통치한 역대 태수들 중에서 백성들에게 가장 모질게 군 이는 쑤딩이다. 사람들은 상아, 진주, 백단향, 과일, 직물, 금은 세공품 등 공물을 바치느라 등이 휘었다. 상아를 얻으려고 코끼리를 잡다가 다치고, 진주를 캐다가 죽는 이들이 즐비했다.

쥁 자매의 아버지는 통킹 지방 메 린의 영주였다. 그는 부유한 영주이자 어려운 백성들을 돌보는 어진 사람이었다. 생각이 고루하지도 않아서 두 딸에게 무술도 가르쳤다. 언니인 쥁썩과 동생인 쥁니는 성장하면서 부드러운 심성과 능률한 무예를 겸비한 독특한 아름다움을 갖추었다.

활달한 성격의 자매는 메 린과 인근 지역 젊은이들의 모임 에도 나갔다. 모임의 젊은이들은 베트남을 점령하고 횡포를 부리는 중국을 몰아내기 위해 뜻을 모으고 기회를 엿보았는데, 그 가운데에는 티 짜익이라는 청년도 있었다. 무장의 아들로 의협심이 강했던 그는 무예가 뛰어나고 태도 또한 사내 못지않게 능률한 쥁썩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쥁썩이 티 짜익의 청혼을 받아들이면서 둘은 부부의 연을 맺었다. 그러나 혼인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티 짜익이 한나라 태수 쑤딩에게 체포되고 말았다. 한나라에 대항하려던 계획이 발각된 것이다. 체포된 티 짜익은 가혹한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중국 지배의 부당성과 독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태수는 티 짜익을 교수형에 처하고, 목을 거리에 내걸었다.

쥁썩은 내걸린 남편의 목을 보고 울지 않았다. 대신 그가 이루지 못한 꿈을 위해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했다. 물론 쉽지 않았다. 쑤딩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고, 티 짜익과 그 동료들이 효수당하는 것을 본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망설였다. 티 짜익을 따랐던 사람들마저도 해봐야 안 된다는 패배감에 주저앉고 있었다.

쥁 자매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일으키기 위해 호랑이 사냥에 나섰다. 잡은 호랑이 가죽을 벗겨 껍질을 축구하는 격문을 써서 돌렸다. 여성인 이들의 투지와 용맹스러움을 보고 저항 대열에 합류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났다. 그 중에는 레 쩐 이라는 여성도 있었다. 하이퐁 인근의 안비엔에 살았던 그녀는 미모가 출중했다. 쑤딩은 그녀를 첩으로 삼으려다 거절당하자 그녀의 부모를 모함해 살해했다. 쥁 자매의 궤기 소식을 들은 레 쩐은 단숨에 달려와 합류했다.



서기 40년, 마침내 3천 명의 병력을 규합한 쥁 자매는 중국에 대항하는 전쟁을 선포하며 이렇게 선언했다.

“하늘에 맹세코 우리는 기필코 빼앗긴 조국을 되찾는다.”

베트남 저항 세력들은 이 맹약 아래 하나로 집결했다. 병력과 무기는 한나라에 비교할 수 없이 부족했지만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결의와 형제자매를 학정에서 구하겠다는 투지는 하늘을 찔렀다.

코끼리를 탄 쥁 자매가 최전방에서 전투를 이끌며 한의 군대를 물리쳤다. 거친 콧김을 내뿜는 코끼리를 타고 거침없이 돌격하며 전투를 진두지휘하는 쥁 자매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항군들의 기세에 눌려 적은 공포에 떨었다.

메 린에서 시작된 봉기는 베트남 전역으로 번져나갔다. 쥁 자매는 한나라의 군사가 숲을 돌릴 틈을 주지 않고 몰아쳐서 순식간에 65개의 현을 장악했다. 한나라의 태수 쑤딩은 허둥지둥 도망쳤다.

항전은 승리했고, 백성들은 쥁썩을 쥁왕으로 옹립했다. 그녀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가혹한 세금을 덜어주며 선정을 베풀었다. 베트남에 평화가 찾아왔고 백성들은 시름을 잊었다.

그러나 한나라 광무제는 베트남을 재침략하기 위해 군대를 재정비했다. 나이 예순의 백전노장 마위안이 이끄는 2만 명의 한나라 군대가 다시 공격해온 것은 서기 42년의 일이다. 베트남 군대는 용감하게 맞섰으나 한나라 군대는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다. 쥁 자매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분투했지만 예전과 같은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겁에 질린 지배층이 먼저 도망을 쳤고, 패배가 이어지면서 병사들의 사기는 추락 했다. 한나라 군대가 여성들로 구성된 베트남 군대를 향해 옷을 벗고 공격한다는 소문도 퍼져나갔다.

패전의 기운이 역력한 가운데서도 여장군 풍 터 친은 전쟁 중에 낳은 아기를 한 손에 안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나가 싸웠다. 그러나 기울어진 전황을 되돌릴 순 없었다. 전장은 피로 물들었다. 목이 잘린 베트남군의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 한나라 군대는 마을을 불태우고 여성들을 겁탈했다. 쫓 자매는 홍 강의 지류인 핫 강까지 밀렸다. 한나라 군대는 흠먼지를 일으키며 물러오는데, 쫓 자매를 태운 지친 말은 거친 숨만 내쉴 뿐 맞서 달려 나가지 못했다. 말에서 내려 달려 나가며 적장을 향해 쓸 마지막 화살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장렬하게 죽지조차 못하는 것이 원통했다. 서로 마주 보던 쫓 자매는 두 손을 잡고 강을 향해 돌아섰다. 장렬하게 죽을 수 없다고 해서 치욕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붉은 강물을 바라보는 자매의 시야에 지난 3년의 세월이 아련하게 지나갔다. 말은 필요치 않았다. 쫓 자매는 두 손을 마주잡은 채 몸을 날렸다. 쫓 자매를 거둔 붉은 강물은 말없이 홍 강을 향해 흘러갔다.

이야기가 하는 이야기

20세기 베트남의 역사는 불가사의하다. 베트남은 당대 최강의 전력을 가진 프랑스, 일본, 미국, 중국과 차례로 전쟁을 하고도 끝내 패배하지 않았다. 특히 미국이 철수한 다음, 국경선을 둘러싸고 중국에 맞서 전쟁을 감행하는 베트남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베트남을 베트남이게 만들고 지탱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 힘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이야기해주는 것이 바로 쫓 자매 이야기다.

쫓 자매의 항쟁은 불과 3년을 넘기지 못했다. 쫓 자매가 패배하고, 베트남은 다시 9백년 간 중국 지배를 받았다. 그러나 베트남인들의 심장에 각인된 이들의 항쟁은 지워지지 않는 DNA의 일부가 되었다. 외세에 맞서 토착 지배 세력과 민중이 힘을 합쳐 대항한 최초의 기억인 쫓 자매의 이야기를 모르고 성장한 베트남인들은 아무도 없다. 20세기 최강국들에 맞서 독립을 쟁취한 베트남인들의 기억 첫 페이지에 쫓 자매가 있다.

호찌민 시 중심을 관통하는 도로의 이름은 ‘하이 바쭙 (쫓 자매)’이다. 호찌민 시에만 하이 바쭙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노이를 비롯한 베트남의 모든 도시에 하이 바쭙 거리가 있고, 그곳이 바로 도시의 중심이다. 베트남인들은 오늘도 그 거리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



#3
티엔과 디아:
디아의 것을 디아에게 돌려주다

베트남의 한 마을에 티엔과 디아라는 가난한 고아 둘이 살았다. 그들은 동네의 논밭 일을 거들어주며 어렵게 살았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았다. 티엔은 무엇이든 한번 들으면 금방 이해하고 기억했다. 디아는 이렇게 머리 좋은 티엔이 일을 하느라고 공부를 못하는 것이 마음 아팠다. 착한 디아가 어느 날 티엔에게 말했다.

“오늘부터 너는 일하지 말고 공부를 해.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너를 먹여 살릴게.”

“지금도 힘든데 어떻게 너만 고생 시켜. 그럴 순 없어.”

티엔이 고개를 저었지만 디아는 물려서 지 않았다.

“네가 나중에 과거에 급제해서 성공하면 나를 도와주면 되잖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면 둘 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티엔은 디아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거려다.

“고마워. 너의 우정을 절대 잊지 않을게.”

“고맙긴. 우린 친구잖아.”

티엔은 그날부터 공부에 매진했다. 디아는 새벽부터 밤이 늦도록 논밭에서 일을 해서 얻은 수입으로 티엔을 뒷바라지했다.

둘의 고생이 헛되지 않아 티엔이 마침내 장원 급제를 했다. 논에서 일을 하다가 이 소식을 들은 디아는 기뻐서 어찌할 줄 몰랐다. 마을 사람들도 디아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그런데 하루이틀이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흘러도 티엔으로부터 연락이 없었다. 기다리다 못한 디아가 티엔을 찾아갔다. 그런데 티엔은 남루한 차림으로 자신을 찾아온 디아를 만나주지 않았다.

친구로부터 외면당한 디아는 강가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다. 그때 신선이 나타나 디아를 위로하며 나룻배 한 척을 주었다.

“이 배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면 남의 논밭 일을 하지 않고도 넉넉히 살 수 있을 것이야. 열심히 살게나.”

그러나 디아의 별이는 늘 실통치가 않았다. 시집간 자식들의 집을 찾는 노인이며 먼 길을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그냥 태워주다 보니 그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기 일쑤였다. 뱃사공을 그만두고 다시 남의 논밭 일을 나갈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신선의 호의를 저버리기 어려웠다. 뱃사공이 없으면 갑자기 아파도 강 건너 의원에게 갈 수 없는 마을 사람들도 마음에 걸렸다.

부모님의 제삿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이었다. 제사상을 차릴 돈이 없어 걱정을 하며 해질녘 나루터에 앉아 있는데 아름다운 아가씨 한 명이 다가와 강을 건너겠다고 했다. 강을 건너는 사이 날이 저물었다. 배를 묶어두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디아에게 아가씨가 물었다.

“갈 길이 먼데 날이 어두워졌어요. 혹시 하룻밤 재워주실 수 있을까요?”

디아는 자신의 오두막을 아가씨에게 내주고 자신은 밖으로 나왔다. 추녀 아래에 웅크리고 잠이 들었는데, 아가씨가 다가와 결혼을 했느냐고 물었다. 디아가 결혼하지 않았다고 하자 아가씨는 그의 아내가 되겠노라고 했다. 어리둥절해서 이유를 묻는 디아에게 아가씨가 말했다.

“나는 하늘나라에 사는 선녀입니다. 성품이 착한 당신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해서 도와주려고 왔습니다.”

선녀의 말의 끝나자 오두막은 커다란 궁전으로 바뀌었다. 궁전 안에는 양식이 넉넉했고, 밖에는 하인들이 대령했다. 선녀는 디아 부모님의 제사상도 부족함 없이 차렸다.

이튿날 디아는 친구가 생각났다. 디아가 티엔을 초대하고 싶다고 하자 선녀는 그의 집으로 가마를 보냈다. 하인들이 디아의 집에서 보내서 왔으며 가마를 대령하자 티엔은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우리 집에서 그 집까지 양탄자를 깔아주면 가겠다고 전해라.”



선녀는 티엔의 말대로 양탄자를 깔아주었다. 가난한 디아가 어떻게 길바닥에 양탄자를 깔 만큼 부자가 되었는지 궁금해진 티엔이 가마를 타고 디아 집으로 왔다. 디아의 집과 아름다운 부인을 본 티엔은 질투심에 불타서 디아에게 제안했다.

“자네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게 되었으니 이제 서로 자리를 바꿀 때가 되었네. 자네의 부인과 집, 직업과 내 부인과 집, 관직을 서로 맞바꾸세.”

디아는 펄쩍 뛰었다. 그러나 티엔은 완강했다.

“내가 과거에 급제해서 성공하면 자네에게 보답하기로 한 약조를 잊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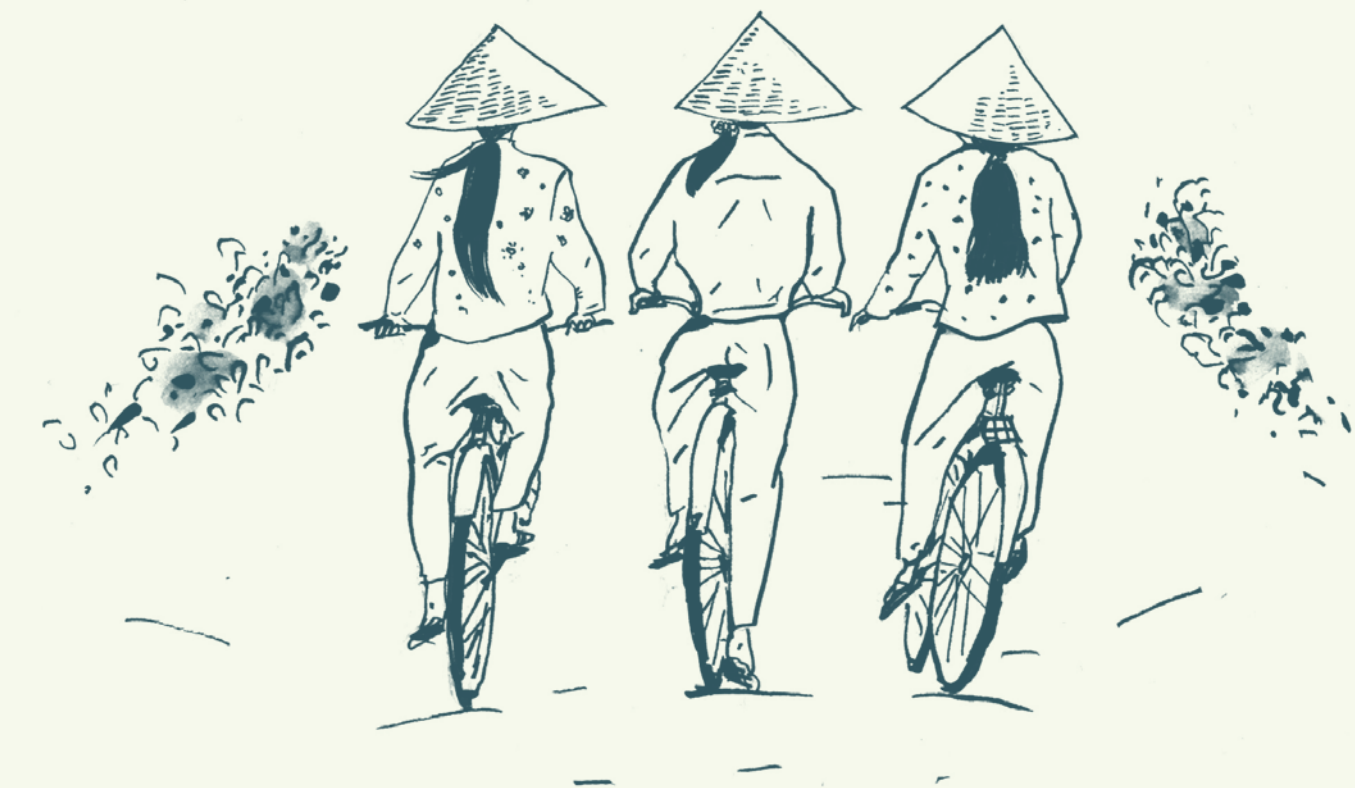
디아는 그래도 거절하려 했지만 선녀가 자신을 바라보고 그윽하게 웃으며 그렇게 하라고 하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제사 음식을 먹고 나서 디아는 티엔의 집으로 가고, 티엔은 디아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곯아떨어졌다. 다음날 아침 티엔이 눈을 떠보니 집은 오두막으로 변해 있었고, 선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날부터 티엔은 뱃사공으로, 디아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두루 살피는 어진 관리로 둘 다 행복하게 살았다.

이야기가 하는 이야기

베트남에서는 친구와 이웃을 건성으로 대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돈이 최고고, 돈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들이 친구와 이웃에게 기울이는 정성을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하던 일이 남았는데도 친구와 약속이 있다며 퇴근 시간에 초침이 닿기 무섭게 일어서는 베트남 사람들을 보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인들은 혀를 차곤 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친구를 만나서 즐겨야 할 시간을 포기하고 돈을 벌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이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친구와 이웃을 돈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들이 이상한 것일까, 돈이 행복을 보장해준다고 믿는 세상에 아주 익숙해진 사람들이 이상한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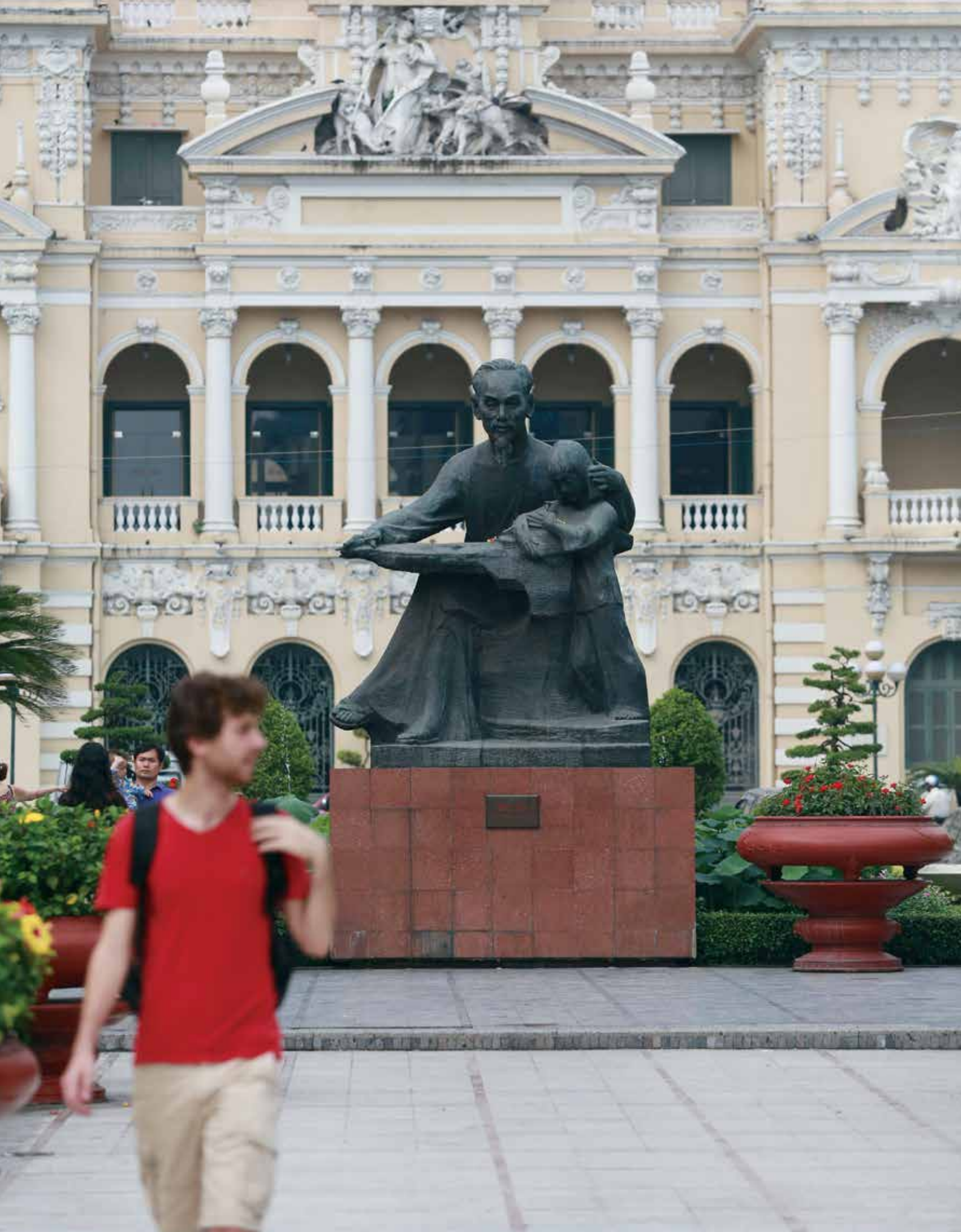
티엔과 디아의 이야기, 우정과 배신은 어느 나라에서나 있는 이야기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어디에나 있는 것이 아니다. 관리가 된 디아도 행복하게 살았지만 뱃사공이 티엔도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 베트남은 티엔이 뱃사공이 된 것은 부와 권세를 잃고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되찾은 행운이라고 이야기한다. 티엔이 만약 뱃사공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는 인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끝내 괴물로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의 차림새나 그가 쥐고 있는 명함이 아니라 그의 눈빛을 바라봐야 한다. 손님을 맞이하고 사람을 대하는 그들의 각별한 정성을 행여라도 상대가 돈푼이나 있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우쭐한다면 그건 정말 엄청난 착각이다. H











파도를
가르는
땅

까마우
Cà Mau

베트남 남쪽 끝,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땅, 까마우.
호찌민에 비하면 아주
시골로 보이는 그곳에는
지금 베트남 문단과 독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응웬 옥 뜨가 살고 있다.
그곳에서 그녀는 ‘글을
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고독하다’고 말한다.
이곳 사람들 이야기는
충분히 다 쓴 듯 해도 어느새
보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응웬 옥 뜨가 들려주는 고향
까마우와 그곳 사람들 이야기

글·응 웬 옥뜨(소설가)
번역·하재홍
사진·박정훈



내 고향에 대해 말할 때면 나는 항상 난감하다. 그것은 마치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 정색하고 설명을 해야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궁이의 연기와 나무 사다리가 놓인 구석, 물결의 무늬와 지붕의 이끼가 이웃들과 모두 비슷한, 설명할 여지조차 없이 지극히 익숙한 것이 집의 풍경이다. 그래서 타지에서 친구들이 찾아오면, 그들을 늙은 농사꾼들에게, 이 땅의 살아 있는 역사책이라 불리는 이야기꾼들에게 안내해서 술잔을 나누게 한다. 그분들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친구들에게 이곳의 진수를 알려준다. 술잔과 찻잔과 주름진 얼굴 위로 흘러지는 담배 연기 사이로 이야기는 백 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오두막집은 옛날에는 정말 높이 지어야 했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호랑이들이 숲에서 나와 주위를 어슬렁거렸거든.”

어떤 책도 이 숲과 늪을 처음으로 개간한 사람들에게 대한 기록을 빼먹는 법은 없다.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이어지는 남북조의 끝없는 전쟁은 베트남 중부 지역 사람들이 고향을 버리고 남쪽 땅 깊숙이 내려오도록 만들었다. 남쪽은 전란과 봉건 왕조의 가혹한 수탈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나라의 지도를 더 크게 다시 그리게 된 것은 맹수의 발자국이 가득한 땅을 개간했던 이들이 짙어진 작은 숙명에서 비롯했다. 그들 중에는 수배를 받은 이도 있고, 노역을 피해 도망친 이도 있고, 군대를 탈영한 이도 있고, 떠돌이들도 있고, 나의 조상처럼 땅을 빼앗긴 이들도 있다. 또한 청나라에 복종하기를 거부한 명나라 유민들이 배를 타고 와서, 드문드문 홀로 살고 있는 크메르 민족의 터전 옆에 집을 짓고 살기도 했다. 어딘가에 발걸음을 멈추면 그곳이 집이 되었다. 그리고, 더 멀리 가고자 결심한 이들이 걸음을 멈춘 곳이 삼면이 바다인 까마우(Cà Mau)다. 이곳은 그렇게 멀리서 이주해온 사람들의 차지가 되었다. 나무와 수풀이 무성하고, 개간하고 집 지을 만한 빈 땅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생선, 채소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그렇게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맹수들의 발걸음을 지웠다.

나는 까마우 시내 한 가운데의 카페에 앉아 있을 때면 문득 생각하곤 한다. 이곳이 3백 년 전에는 숲이 아니었을까. 호랑이의 포효 소리를 들으며 열대성 고열에 시달리면서, 온몸을 후들거리며 땅을 개간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곳이 아니었을까.

맹그로브나무처럼, 삶에 대한 강렬한 갈망

베트남 사람들은 선조의 고향을 자신의 본관으로 삼는데, 나는 ‘덤지이’라는 지명에서 내가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는, 모래바람이 부는 머나먼 중부 지역을 떠올린다. 조상들이 흘러온 과거는 언제나 우리 집안사람 모두에게 다른 지역을 친척처럼 여기는 특별한 감정을 갖게 한다. 까마우에 비가 길게 내리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떠나온 땅, 중부나 북부 지역에 곧 태풍이 들이닥칠 것을 의미한다. 남부 지역의 우기는 중부의 태풍 시기와 겹친다. 비는 이주민들에게 자신들이 떠나온 뿌리를 떠올리게 만든다.

그리움은 그리움일 뿐, 이 땅을 개척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곳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야.” 내 할아버지는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한해는 우기와 건기로 나뉘는데 이는 두 종류의 바람이 부는 것과 상응한다. 온순한 기후라 대략 백 년에 한번 아주 작은 태풍이 거쳐 간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나는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배고파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지극히 게으른 자를 제외하고.”

내 고향의 노인들이 말하기를, 까마우는 ‘검은 물’을 뜻하는 크메르어 ‘커마우’에서 왔다고 한다. 옛날에 이 땅은 맹그로브나무, 카주푸나무들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다. 강물에 떨어진 나뭇잎들이 물빛을 점점 검게 만들었다. 그렇게 검은 물결의 강이 되었다. 지금까지, 그가설이 가장 많은 동의를 얻는다. 내가 본 우민 숲의 수로는 언제나 검은색이다. 사람들은 까마우를 젊은 땅, 토양이 좋은 땅이라고 부른다. ‘마르지 않은 갯벌만 만 리’라고 한다. 이곳의 땅은 충적토로 갯벌과 더불어서 밀물이 가져다준 모래로 이루어져 있는데 맹그로브, 코르크 등의 수생나무들이 뿌리로 땅을 붙잡고 있다.





짚물 숲의 맹그로브나무는 또한 삶에 대한 갈망의 강렬한 표상이다. 나뭇가지에서 바로 몸체를 만들어서 때가 되면 나무에서 떨어져 내려와 갯벌에 바로 꽃힌다. 아랫부분은 뿌리를 뺀고 엄마나무 바로 옆에서 성장을 한다. 갯벌에 바로 떨어지지 못한 나무들은 강물이 다른 갯벌의 나무 뿌리 근처로 데려다준다.

까마우 강은 서해와 동해 사이를 순하게 흘러간다. 절대로 홍수를 일으키지 않는다. 거미줄처럼 열기설기 수많은 개천과 시내는 그수를 헤아릴 수 없다. 조수의 차이로 몇 시간 만에 강가가 드러났다가 다시 물이 가득 차오른다. 까마우 강은 맑지 않고, 축적물이 가득한 탁한 색이다. 축적물 속에는 맹그로브 새끼 나무와 같은 씨앗들이 가득 들어있다. 그 씨앗들은 어딘가에 걸리게 되면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 짚물 숲 수풀들의 삶은 이 땅을 처음 개간한 사람들의 삶처럼 매일같이 떠돈다.

바피 아저씨의 이야기가 깃든 우민 숲

나는 찢 강을 가로지르는 강변에서 자라났다. 빠꾸기가 밤낮으로 강변에 신음 같은 소리를 한가득 뿌려놓았다. 내 기억 속의 강은 왜 그렇게 슬픔만 가득했는지 알 수 없다. 야자나무, 코르크나무, 맹그로브나무는 제 몸을 비스듬히 강가에 의지해서 자란다. 그 나무 앞으로 그물을 쳐놓으면 밤새 물고기와 새우들이 들락날락하다가 그물 안에 갇힌다. 거룻배를 타고 물건을 팔러다니는 상인들은 맹그로브나무 아래에서 저녁밥을 짓는다. 강가 양쪽에 띄엄띄엄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강가를 지키고선 나무들 뒤로 숨은 듯이 집을 짓는다. 썰물 후의 강가는 물속에 내내 잠겨있던 나무들의 냄새, 곰삭은 나뭇잎 냄새, 갯 태어난 어린 씨앗들의 냄새를 사방에 풀어놓는다. 어린 열매들은 밀물을 기다리면서 어딘가로 흘러가야할 자신의 존재를 향기로써 드러낸다.

나처럼 시골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연 환경의 풍요를 누렸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언제나 호수 아래에서 물고기가 요동치는 모습, 우기가 시작할 무렵 개구리가 우는 소리, 알이 가득한 새 둥지, 정원에 있는 벌꿀 가득한 벌집의 모습이다. 새우나 물고기들을 잡는 철이 되면 그 수가 도저히 처치 곤란할 만큼 많았다. 외할머니는 남은 것들은 천천히 먹을 수 있도록 말리거나 소금에 절였다.

역사책에 쓰여 있기로는 우민 숲의 벌꿀은 응우옌 군주에게 바치는 조공품이었고, 새의 깃털은 중국에 내다 팔았다고 한다. 아주 많은 작가, 기자들이 물자가 풍부한 이 땅의 모습을 묘사하려고 애썼는데, 그 중 가장 재미있는 것은 바피 아저씨의 이야기다. 이 이야기에는 아주 과장되긴 했지만 남부의 특징적인 매력이 강조되어 있다. 바피 아저씨는 숲속에 사는 농민이었는데, 항불 독립군들이 그 집에 들러서 얘기를 들은 후 전국으로 퍼뜨렸다. 이를테면 베트남 전국에 퍼져있는 이야기에서 우민 숲은, 뱀이 고목나무만큼 크고, 새우와 물고기는 양식장에 있는 것처럼 바글바글하고, 새떼는 한번 날면 하늘을 뒤덮어서 사방을 어둡게 한다고 묘사된다. 일곱 살 이후부터 나는 ‘거북이 배’와 같은 종류의 이야기들을 외우게 되었다.

“그해 건기에 쓸 돈이 모자라서, 나는(바피 아저씨) 독 강에 내다 팔기 위해 거북이를 잡을 방법을 생각했다. 나는 거룻배 하나를 빌려서 룡짬에 가서 세웠다. 바람을 등진 쪽으로 배 양쪽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그물을 강물에 한 바퀴 빙 둘러서 쳤다. 그리고 그물 양쪽에 달린 나뭇가지를 똑바로 세웠다. 그리고 난 후, 나는 바람을 등진 쪽으로 다시 가서 수풀에 불을 붙였다. 이곳의 건기에는 불길이 한번만 튀면 쉽게 전체로 불이 번진다.

불길이 치솟기 시작할 때, 나는 강가로 올라가서 기다렸다. 담배 하나를 다 태울 때쯤, 나는 거북이들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것 볼 수 있었다. 불길은 이글이글 소리를 내며 타올랐다. 거북이들은 한 줄로 늘어서서 꼬리를 물고 강가로 올라왔다. 모두들 목을 길게 빼고 눈은 한결 같이 겁에 질려 있었다. 불길이 한번 크게 일자 불이 아래로 길게 퍼졌다. 뒤에 있던 거북이들이 혼비백산해서 앞으로 밀려들었다. 더 이상의 질서는 없었다. 금거북, 은거북, 동거북, 철거북, 회거북...들이 강가로 올라오더니 거룻배까지 올라왔다. 거북이들은 불을 무서워한다. 그들은 세 발로 달려오면서 한발은 들어서 얼굴을 가렸다. 모두들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렸다.

거북이들이 충분히 올라왔을 때, 나는 그물 가에 앉아 큰놈은 거룻배에 타도록 하고 작은 놈은 잡아서 강물로 다시 던져 주었다. 얼마 후에 거룻배 안에 거북이가 가득했다. 나는 그물을 걷은 다음에 시장을 향해 배를 저었다. 그런데 강물에 풀어준 작은 거북이들이 배를 계속 따라오더니 커다란 한 무리를 이루었다. 그러고는 한 발로는 배를 밀고 나머지 세 발로는 헤엄을 쳤다. 그렇게 거북이 떼가 배를 수십 킬로나 뒤로 멀리 밀어냈다. 나는 껄껄 웃으면서 노 뒤편에 앉아 담배 연기를 하염없이 내뿜었다.”

강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매력

내가 만나 뵈 생각을 하고 바피 아저씨를 찾았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다. 대신 나는 우민 숲가에 끝없이 향불 냄새를 피워내고 있는 아저씨의 산소를 참배했다. 아저씨가 땅속에 몸을 누인 뒤에도 아저씨의 이야기는 강을 따라 길을 따라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이곳 사람들은 베트남 전역의 사람들이 까마우를 찾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피 아저씨의 이야기 덕분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베트남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백 년간 분단되어 있었던 나라의 땅끝 마을에 와서 한번 쯤 갯벌에 발을 담가보고 싶어 한다. 이곳에 와서 놀다보면 강물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다.

집을 나서려면 배를 타야 한다는 것이 외지인의 눈에는 신기하게 보인다. 작은 거룻배는 이곳 주민들의 발이나 마찬가지다. 아이들은 6~7세만 되면 헤엄 치고도 젓는 법을 배운다. 아예 배 위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강을 이동하면서 배 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다. 시장도 강 위에 형성되는데 생기가 넘친다. 내 친구들 가운데 몇몇은 보건소로 가는 도중에 배 위에서 태어났다. 이곳에서 호찌민까지 일을 다니고 있는 한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강물 위를 떠다니더니, 이제 전국을 떠다닌다.”고 농담을 한다. 그들은 나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나올 때부터 강 물결의 여울을 몸에 드리우고 다닌다.

까마우를 다룬 문학 작품은 강과 그 강에 사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내용으로 가득 넘친다. 강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생활력도 강하고 마음도 넉넉해서, 일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어떤 낯선 사람이라도, 아무 집이나 들어가면 식사와 술대접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집주인은 몇 잔 술이 들어가면 쌀이 얼마나 있는지 채소가 얼마나 있는지 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과 마을의 숨은 얘기까지 모두 털어놓는다. 사돈을 맺자고 청하기도 한다. 다음 농사를 위해 준비해놓은 벼 모종까지 손님 대접을 위해 아낌없이 써버리는 까마우 여인들의 심성은, 단 한번 스쳐간 손님들에게 깊은 감동으로 영원히 기억된다.

엄마는 통일 이후 몇 해 동안 바뜨엥 늪의 하이티 아저씨가 우리 집에 해준 일에 대해 수없이 얘기하곤 했다. 하이티 아저씨는 두세 달에 한 번씩 물길로 50km가 넘는, 한 나절이 걸려야 올 수 있는 뱃길을 따라 쌀과 참쌀, 야자, 물고기, 오리 등을 가득 싣고 와 우리 집에 주고 갔다. 그 아저씨와 우리 집 사이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었지만 우리 형제자매들은 그 아저씨를 친척보다 더 반겼다.

하이티 아저씨와 나의 아버지는 전쟁 시절 의형제를 맺은 사이였다. 당시 아버지는 하이티 아저씨 집에 머물면서 함께 땅을 개간하고 채소를 기르고 물고기를 잡았다. 몇 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형제처럼 지내는 두 분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 내 가족의 중요한 일들이 그 아저씨 가족의 보호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들은 부모님의 혼례를 치러주었고, 큰 언니가 두 번의 폭격 사이, 호치민 아저씨가 돌아가셨다는 라디오 뉴스를 들으면서 지하 대피소에서 무사히 태어날 수 있도록 보살펴주었다. 우리 가족들은 바뜨엥 늪에 갈 때면 항상 그곳 사람들에게 마음의 빛을 진 듯한 기분이다. 하지만 그들은 빛을 돌려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





그들은 늘 싱그러운 미소를 짓고,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낙관한다. 그들은 전쟁 중에 마당 한 가운데 폭탄이 떨어져 구덩이가 패여도 “정말 행복해, 미군들이 내게 연꽃을 기를 수 있도록 연꽃을 만들어주었네.”하면서 웃어넘겼다. 폭탄에 집이 산산조각 나도 “슬프긴 뭐가 슬퍼, 사람이 죽어야 슬픈 거지, 집이야 금방 다시 지으면 돼.”하면서 손바닥을 툭툭 털었다.

최근에 집에서 아버지와 친구들이 술자리를 하는 중에, “까마우를 방문한 노르웨이 왕립과학원의 지질 전문가들이, 만약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50년 후에는 기후 변화, 해변 간척, 부분별한 벌목 등으로 까마우가 바닷물에 잠길 것이라고 예견했다.”는 TV 뉴스를 보게 되었다. 아버지 친구들은 “단단한 충적토는 그대로 남고, 묽은 진흙만 빠져나가는 건데 무슨 걱정이야.”라고 반응할 뿐이었다. 10년 전에도 아버지 친구들은 아주 낙관적으로 말했었다. “이 충적토가 계속 쌓이면 몇 십 년 후에 베트남 땅은 말레이시아까지 닿을 거야.”

그러나 해류의 흐름이 바뀌어서 최근에는 쌓이는 땅보다 잃는 땅이 많고, 바다가 숲의 흙바닥을 점점 굽어내기 시작했다. ‘지키지 않으면 풍요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경고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과도를 가르는 땅’이 지금은 거꾸로 ‘사람의 뒹꾸무니를 쫓는 바다’로 변했다.

그래서인지 얼마 전부터 이곳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이곳이 더 이상 살기 쉬운 땅이 아니게 되었다는 뜻이다. 고향과 친척의 묘지 등 모든 것을 버릴 자세를 가지고 있던 선조들의 후예로서, 이들은 세상을 겁내지 않는 혈통으로 언제든 떠나면 땅에 온몸을 던질 수 있다. 그 피는 수십 세대를 흘러와서 여전히 후손들에게 많이 남아있다. 외국인과의 결혼식을 볼 때면, 나는 그 결정을 내린 신부들에게, 결코 쉬지 않고 세상을 떠도는 조상의 피가 유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자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지만 조상의 산소가 있고 부모님이 하루하루 늙어가는 이곳으로 또한 빠르게 돌아온다. 호찌민에 비하면 아주 시골로 비취지는 이곳에서 나는, 글을 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고독하다. 이곳 시골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다 쓴 듯해도 어느새 보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시골에서 술자리를 가지면서 전쟁 때 서로 적군이었던 두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금세 흥미가 동한다. 한 침상에 나란히 앉아서, 한 손이 없는 남자는 노래를 부르고, 늑골에 흉터가 깊은 남자는 박자를 두드린다. 때때로 술잔을 부딪친 후에 ‘카~’ 소리를 내며 마시고, 다시 차를 한 모금한다. 나는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두 아들이 총을 겨누며 싸울 때 부모가 느끼는 고통’을 아직 글로 표현해보지 못했구나 생각한다. 그리고 해먹이 놓인 길거리 카페에 들러 야자수를 마시노라면 주인 아주머니가 무심결에 “이따 오후에 옛 남편이 부인과 함께 들릴 예정이라서, 그들을 대접할 닭죽을 끓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

나는 까마우의 순박한 미소 뒤에 있는, 상실과 상처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글로 쓰기 위해 내 고향 까마우에 산다. ■

수련꽃 (째째)

이른아침 뜰에 나가 수련꽃을 땀네
폭탄구덩이 아래 어머니가 심은 수련꽃
아아, 어디가 아프길래 물밑 바닥부터
잔물결 끝도 없이 일렁이는가

몇 해 지나 폭탄구덩이 여전히 거기에 있어
야자수 이파리 푸른 물결을 덮고
아아, 우리 누이의 살점이던가
수련꽃 오늘 더욱 붉네



땅끝 마을의 달밤 (쭈언 꾸인)

“그대여 나와 함께 달빛 속을 걸어요
색다른 도시, 색다른 부둣가예요.”
멀리서 달려온 태평양은 푸른 땅끝을 토닥이며
하염없이 자장가를 부르지만
드넓은 바다를 향해서 푸른 땅끝은
이 순간도 여전히 앞쪽으로 달려가지요
맹그로부 나무숲을 하염없이 비추는 달빛
이 달빛 속을 언제까지 걸어볼까요

“그대여 나와 함께 달빛 속을 걸어요
색다른 도시, 색다른 부둣가예요.”
여전히 젖어있는 갯벌의 노래 소리는
푸른 땅끝을 끝없이 일깨우지요
나는 그대와 영원히 함께 걸어요
조국의 맨 마지막 땅끝에서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맹그로부 나무를 따라서
달빛이 사그라들지 않는 곳으로 하염없이 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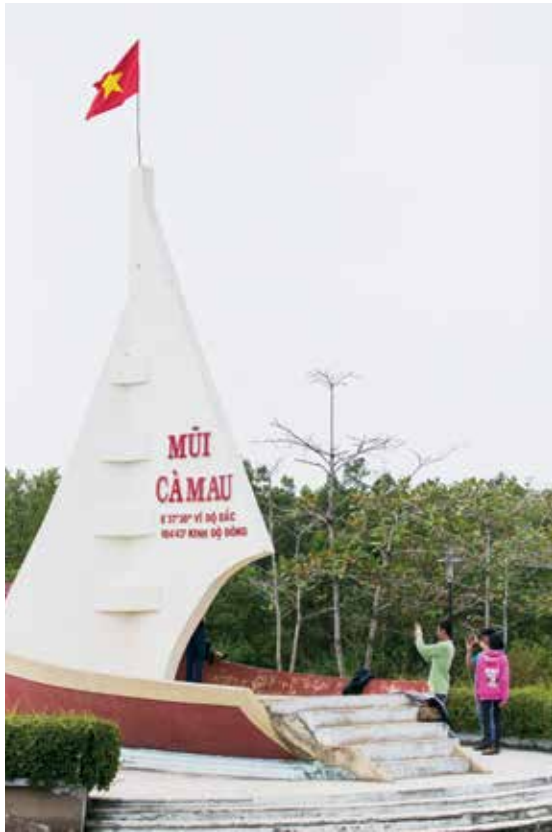
“그대여 나와 함께 달빛 속을 걸어요
색다른 도시, 색다른 부둣가예요.”
가슴을 저미는 바람의 노래 소리는
기나긴 밤 내내 땅끝을 꿈틀대게 하지요
수많은 배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땅
끝없이 누군가를 부르는 바람 소리 속에서
달빛이 앞쪽으로 드넓게 펼쳐지네요
이 달빛 속을 언제까지 걸어볼까요

“그대여 나와 함께 달빛 속을 걸어요.”

비 (쭈언 싹)

까마우비 속을 배를 타고 가네
새하얀 빗줄기가 숲을 지우고 얼굴을 지우네
신비롭게 떨어지는 빗줄기는
강과 강변을 하나로 만들고
숲과 풀을 하나로 만들고
집과 앞마당 뒷 정원을 하나로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로 만들어버리네
수많은 세대를 거쳐 켜켜이 층을 이룬 비옥한 땅은
어린이를 위한 자연의 선물이라
광활한 땅과 하늘
향그럽고 싱그러운 황야
나무 열매는 물고기들을 떼로 키우고
안개를 마신 벌들은 젖을 만들고
맹그로부 나무 뿌리는 나란히 겹겹으로 줄을 서서
집채를 비밀처럼 뒤쪽에 숨기네
숲속에는 물가 양쪽으로 새들이 둥지를 틀고
새우들이 나날이 살이 찌네
바다에서부터 숲을 거쳐
멀리 떨어져있는 수상시장으로 가면서
문득 나는 영혼이 젊어지는 것을 느끼네
손마다 열매들 가득하니
내 나라는 이렇게 부자라네 그대여
열대 밀림의 비와 열대 밀림의 태양
광활한 우리의 땅을 아직 다 살펴보지 못했네...
비가 그치면 나뭇잎은 옥색으로 빛나고
쉽 없이 펄럭이는 백로의 날갯짓이
내가 탄 배의 돛 폭을 부풀려서 앞길을 이끌어주네





까마우 땅끝
(호앙 히엵 작사·작곡 / 냐 프엉 노래)

그대여 까마우의 땅과 바다로 오세요
사방으로 펼쳐진 맹그로부 나무 밀림 숲의
싱그럽고 푸르른 초목들
햇살과 품고 사람들을 실어다주는 땀장 강을 따라서
머나먼 저의 고향땅끝으로 오세요
남간의 푸른 하늘에는 날쎈 바람 불고
갈매기는 드넓은 바다를 날지요

그대여 까마우 땅과 바다로 오세요
드넓은 하얀 소금 벌판을 볼 수 있어요
내 고향은 은빛 물고기 금빛 새우와 함께
내 고향은 땅도 점점 자라나지요

멀리 있는 그대여 저의 고향으로 오세요
사랑이 더욱 깊어질 거예요, 저의 고향까마우에서

아아 까마우, 순수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
날마다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찰 거예요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아아 까마우, 수백수천 번 사랑스러운 곳
바다로 나아가는 충적토가 숲을 늘려서
사람들의 발걸음을 빠르게 하지요
생각도 빠르게 만들고 꿈도 빠르게 이루게 하지요
까마우의 땅과 바다에 오면
세상이 더욱 넓어지지요











순간,
그들의
등에서

날개가
펼쳤다

다섯 시간 비행기를 타고
두 계절을 거슬러 올라갔다.
호찌민에서 가는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바쁘엥 늪의 물 위에서
오는 해의 첫날을 맞았다.
노천에서 250원짜리
냉커피를 마시고,
수상가옥에서
해먹에 몸을 맡기며,
결코 닿을 수 없을 듯한
삶의 형식을 만났다.

글·방현석(소설가)
사진·박정훈



길을 떠나며

내가 다닌 대학 근처에 개미집이라는 작은 술집이 있었다. 이 집을 드나드는 주된 손님은 동네 노무자와 문창과 학생, 두 부류였다. 드럼통 모양의 테이블 다섯 개 가운데 한 둘은 노무자들이 차지하고, 나머지 두 셋은 문창과 학생들이 차지하는 형국이었다. 어느 하루도 조용하게 지나가는 일이 드물었다. 안주는 시키지 않으면서 끈질기게 술병을 비우고, 외상을 하면서도 터무니없이 당당하다는 점에서 노무자들과 문창과 학생들은 비슷했다. 개미집 아주머니는 그런 최악의 손님들을 즐기며 다룰 줄 아는 주인이었다. 여유와 긴장, 침울함과 시끌벅적함이 절묘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머니의 타고난 낙천성 덕분이었다. 세상에 지나가지 않는 일이란 없다는 것을 아는 분이었다.

수소문 끝에 여러 해 전에 문을 닫은 개미집 아주머니와 연락이 닿았다. 이제는 일흔이 넘은 아주머니를 모시고 저녁을 먹고, 개미집이 있던 골목에서 늦도록 막걸리를 마셨다. 여럿이 돈을 모아 만든 금반지도 끼워드렸다. 아주머니를 배웅할 때는 숙을 가장 많이

썩힌 순서대로 조폭들 처럼 택시 옆에 도열했는데 다들 머리가 희끗희끗했다. 아주머니가 택시 창문을 내리고 말했다. “고마워. 너무 고마워.” 고마운 건 우리라고 하는 나에게 건넨 아주머니의 마지막 말이 가슴을 흔들었다. “이게 마지막이겠지.” 뭐라고 대답을 하기 전에 택시는 떠났다. 겨울밤은 깊고 바람은 찬다. 멀어지는 택시를 바라보고 있는나의 뇌리에 반레, 그의 얼굴과 함께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앞으로 이 친구를 내가 몇 번이나 더 만날 수 있을까, 한번, 아니면 두 번..., 친구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그것이었어.”

편선넛 국제 공항

흔들리는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을까. 며칠 뒤 〈보보담〉에서 베트남 남부에 가자는 제안이 왔다. 나는 호찌민의 반레에게 연락을 했다.

12월 30일 오전 11시 10분 인천을 이륙한 베트남항공 407편은 현지 시간으로 2시 40분에 호찌민 편선넛 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시차를 적용하면



5시간 30분 만에 겨울에서 여름으로 두 개의 계절을 거슬러 온 셈이다. 일본 정부의 공적 개발 원조를 받아 옛 청사 옆에 들어선 새 청사는 첨단 시설을 갖추었다. 옛 청사에 국내선을 남기고 국제선은 모두 새 청사로 옮겨왔다. 활주로 건너편에 남아있던 오래된 격납고도 자취를 감추었다. 베트남 공군은 얼마 전까지 미군 전투기들이 사용하던 격납고를 그대로 사용했었다. 반원형의 퇴색한 격납고가 줄지어 엮드려 있던 자리에는 산뜻하게 도색된 사각형의 격납고 몇 개가 들어섰다.

편선넛 국제공항 청사에서는 이제 지난날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그것은 가려진 것일 뿐 이 공항 활주로에 새겨진 베트남의 역사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1914년 편선넛 마을에 공항을 건설하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였다. 프랑스의 에어 오리엔트(Air Orient)가 마르세유와 호찌민을 오가는 국제선에 취항한 것은 80년도 더 전인 1931년이다. 마르세유에서 열 개의 나라 열여덟 개의 도시를 경유해 호찌민에 닿으려면 열흘이 넘게 걸렸지만 몇 개월이 소요되는 배와는 비교할 수 없었다.

40년 동안 식민지를 통치하던 프랑스 관리들과 장교들 차지였던 편선넛의 작은 공항이 지금의 규모를 갖춘 것은 1956년이었다. 베트남에 전투병을 파견하면서 전쟁에 뛰어들 미국은 편선넛 공항을 크게 확장하고 그 주위에 핵심 병참 기지를 건설했다. 공항 남쪽에는 주월 미군 사령부의 지하 벙커를, 활주로 건너편에는 미 공군 격납고를 배치했다. 주월 미군 사령관 웨스트 모어 랜드와 미태평양지구 공군 사령관 보트의 관저도 편선넛 공항의 스물두 겹 철책 안에 자리 잡았다.

프랑스가 건설하고 미국이 확장한 편선넛 공항의 옛 흔적을 베트남을 가장 짧게 지배했던 일본의 원조를 받아 깨끗하게 지운 숲속에 감탄하며 나는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섰다. 이제 전자 시스템이 완비되어 출입국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이 여권만 내밀면 된다. 그런데 내 여권을 들여다보던 제복의 사내가 돌아갈 항공권을 제시하라 한다. 너무 간소화된 절차에 방심했던 것일까,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하려면 15일 내에 출국하는 항공권이 있어야 한다는 걸 깜빡했다. 전자 항공권을 출력해 오지 않은 나는 휴대폰을 들여다 보며 데이터 사용을 차단하고 온 걸 후회했다. 내 항공권이 이메일에 들어 있다고 하자 제복의 사내는 와이파이를 열어보라고 한다. 거짓말처럼 와이파이가 터졌다. 이메일을 열어 전자 항공권을 보여주고 입국 심사대를 빠져나오며 나는 새삼 베트남의 변화를 실감했다.



민망황제의 4대손 빈 투언

숙소에 짐을 넣어두고 찾아간 곳은 카페 응우엣 켄이다. 베트남 마지막 왕조의 후손이자 전통악기장인 빈 투언 씨가 전통악기를 가르치고, 예약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후에 궁중악악을 들려주는 곳이다. 악도에는 분명히 절반당 거리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택시를 타고 몇 바퀴를 돌아도 카페 응우엣 켄은 보이지 않았다. 택시 기사는 몇 번이나 차에서 내려 사람들에게 물어본 다음에야 작은 골목 입구에 데려다주었다.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기찻길 옆 좁은 골목을 따라 두 번 꺾어 들어가자 가정집 대문 위에 걸린 조그만 간판이 보였다. Cafe Nguyet Cam. 대문에는 베트남어로 ‘단짠(베트남 가야금)을 가르칩니다’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우리를 맞이하는 빈 투언 씨의 그윽하면서도 형형한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흰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가녀린 몸매에는 예인의 풍모가 깃들었지만 기품있는 몸가짐은 그가 왕족의 후예임을 일깨운다.

그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집 안에는 예인의 전통 복장을 갖추어 입은 ‘사절 아악(四絕雅樂)’단이 저녁상을 차려두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네 명으로 구성된 사절아악 단원은 그의 아내와 딸, 두 아들이다. 아내 투이 씨가 차린 후에 전통 음식으로 저녁부터 먹었는데, 빈 투언 씨뿐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너무나 조용하다. 말과 행동은 물론이고 눈빛마저 조용하다.

식사를 하며 빈 투언 씨에게 어떤 이유로 평생 궁중 음악을 하며 살게 되었는지 물었다.

“외할아버지가 후에 궁중의 최고 악공이셨죠. 그래서 말보다 악기 소리를 먼저 귀에 익히면서 자랐습니다.”

그래도 나는 왕조의 직계 가족인 그가 왜 음악을 업으로 삼고, 직접 악기를 만들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렇습니다. 저는 민망황제의 4대 손입니다.”

그는 조금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제 친할아버지 쩌유가 왕이 되었는데 어찌면 저도 다르게 살았을지 모르지요. 프랑스는 20세기 초에 프랑스 유학을 다녀온 할아버지를 왕으로 앉히려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허수아비 왕이 되길 거절했어요.”

쩌유는 왕이 되는 대신 후예에 세워진 국립학교 ‘국학’의 선생이 되었다. 남베트남의 대통령 고딘디엠과 그와 대척점에서 싸운 베트남 전쟁 영웅 보응웬잡 장군이 모두 이 학교를 나왔다. 베트남의 정신적 지주 호찌민은 쩌유에게 직접 배웠다. 프랑스 지배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쩌유는 결국 선생도 그만두고 산으로 들어갔다. 황무지를 개간해서 엄청나게 큰 농장을 일군 그는 한때 ‘쩌유 같이 부유하고, 레파처럼 악랄하다’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대단한 재력가가 되었다. 레파는 당시 프랑스 총독의 부인이었다.

“1945년 베트남이 독립을 하면서 부자들의 재산을 다 몰수했는데, 지수성가한 할아버지도 예외일 수 없었죠.”



그가 가르친 고딘디엠과 호찌민이 나란히 남과 북의 공화국 최고지도자가 되었지만 어느 쪽도 옛 왕조의 후예를 지켜주는 바람막이가 되어주진 못했다.

연주자 넷, 관객 넷

빈 투언 씨는 후에 국립음악원에서 단짠(가야금)과 띠바(비파)를 전공한 다음 사이공 국립음악원에서 클라리넷을 전공하며 서양 음악도 배웠지만 후에 국립음악원으로 돌아가서 띠바를 가르치는 길을 선택했다. 그는 세상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궁중악을 가르치고 이어가는 일에 전념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남베트남 정권의 붕괴와 함께 후에 국립음악원도 폐쇄되었다. 사범 대학에 자리를 얻었지만 어느 학생이 던진 질문에 답변 한 번 잘못하는 바람에 곧 쫓겨났다.

“예전에는 후예를 가로지르는 향가에 아름다운 시를 노래하는 사공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왜 없습니까?”

“사공들이 모두 신 경제 지구로 보내지고 있지 않은가. 강을 아주 조용하게

만들어준 혁명세력에게 감사할 일이지.” 그리고 이후 그가 걸어야 했던 굴곡진 삶이 그윽한 눈빛에 어른거렸다.

식탁을 정리하고 사절악의 연주가 시작되었다. 기타 모양의 단응윳을 연주하는 아내 투이, 16현 가야금인 단짠을 연주하는 딸 쩐, 베트남 비파인 띠바를 치는 둘째아들 룡, 해금과 유사한 단니호를 켜는 셋째아들 탄이 ‘사절’을 이루어 들려주는 후에 궁중악은 감미로우면서도 슬펐다. 빈 투언은 교통사고로 어깨를 다쳐 이젠 악기를 다룰 수 없다. 팔짱을 끼고 아내와 자식들의 연주를 지긋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의 눈빛 너머로 하나의 세기가 흘러가고 있었다.

베트남 쌀국수, 펌(Pho)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점심은 쌀국수로 정했다. 호찌민에서 쌀국수를 먹는다면 선택지는 세 개가 있다. 펌25. 베트남에서 가장 번창하고 있는 쌀국수 체인점이다. 주방은 어떤지 모르지만 인테리어가 깔끔해서 현지 젊은이들이 데이트코스로 선호하는 집이다. 시내

여러 곳에 매장이 있다. 펌2000.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다녀가서 외국인들에게 일약 유명해진 식당이다. 클린턴이 묵은 뉴월드호텔과 벤탄시장 사이에 있는 집인데 이번에 보니 1층에 있던 매장이 2층으로 올라가 있었다. 펌2000이 있던 1층에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건 ‘커피빈’이었다. 펌 호아. 베트남 현지인들이 최고의 맛집으로 꼽는 오래된 식당이다. 파스퇴르 거리 260번지에 있는 이 집은 닭 국물이 특히 환상적인데, 가격도 저렴하다.

호찌민에서 여러 쌀국수 집을 찾아 다닐 기회가 없다면 선택은 당연히 펌 호아다. 펌 호아는 고객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다. 진하면서도 시원한 국물맛과 매끈하면서도 부드러운 면발, 이것이 바로 쌀국수 맛이다. 닭고기까지 듬뿍 얹은 쌀국수 한 그릇이 6만 동, 우리 돈으로 3천원이 채 되지 않는다. 맛있는 숙주나물은 얼마든지 덤이다. 주방을 앞으로 빼서 손님들이 조리 과정을 다 볼 수 있는 것도 뒷맛을 깔끔하게 만드는 펌 호아의 미덕이다. 느긋하게 포만감을 즐기며 시내를 어슬렁거리는 사이에 해가 기울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저녁을 함께 보내기로 한 사람의 집에 찾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시인 반레가 된 게릴라 레지투이

반레, 그는 나의 가장 오래된 베트남 친구다. 나이는 나보다 많지만 베트남에서는 나이로 친구와 선후배를 나누지 않는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건 벌써 십수년 전이다. 베트남을 배경으로 한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 자격으로 나는 영화감독인 그를 만났다. 번역자를 사이에 두고 함께 작업을 하면서도 나는 그를 그저 베트남 국영 영화사에 일하는 다정다감하고 유머러스한 감독의 한 사람으로만 알았다. 그가 시인이자 소설가이며 본명은 레지투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동안 나는 여러번 놀랐다.

육지의 하롱베이로 불리는 닌빈이 고향인 그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17세의 나이로 자원입대해서 베트남 전쟁이 끝난 1975년까지 10년 동안 전쟁터에서 싸웠다. 전쟁이 끝났을 때, 입대 동기 300명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다섯 명뿐이었다. 그는 전쟁터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목숨을 함께 나누었던 친구들을 잃었고, 전쟁터에서 만난 사랑도 잃었다. 나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스스로 묻고 또 물어야 했던 그는 전쟁이 끝난 이듬해 문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시인이 되었다. 그는 당선작을 자신의 이름인 레지투이가 아닌 ‘반레’란 이름으로 발표했다. 반레는 전쟁터

에서도 늘 시집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읽고 틈만 나면 시를 썼던 그의 친구였다. 시인이 되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한 채 끝내 전쟁터에서 생을 마감한 친구의 이름으로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영화를 만들며 오늘까지 살아온 사람이 그였다.

며칠째 비가 쏟아지는 우기의 어느 날이었다. 장대처럼 퍼붓는 빗줄기를 아득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던 그가 내게 말했다.

“이런 날은 너무 슬퍼. 제대로 묻어 주지도 못했던 친구들이 생각나서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해.”

무엇으로도 위로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서있는 나에게 그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친구를 만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였는지 아니? 앞으로 이 친구를 내가 몇 번이나 더 만날 수 있을까. 죽기 전에 한번, 아니면 두 번...”

무엇인가를 잃어본 사람만이 그것의 소중함을 아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상대가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허술하게 대하는 일이 없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함부로 말하는 것 역시 본 적이 없다.



새해 첫날 호찌민에서 마주친 거대한 말춤

아담한 반레의 집 마당 한쪽에는 연꽃이 예쁘게 피어있었다. 거실 장식장에는 베트남영화제에서 받은 두 개의 최우수 감독상 트로피가 눈에 들어온다. 그 두 트로피 사이에 놓인 기념패는 그의 소설 《그대 아직 살아 있다면》이 한국에 번역 출판된 것을 기념해서 ‘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 회원들이 한국에서 만들어 가지간 것이다. 어느새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기념패에 새겨진 글자의 일부는 흐릿해졌는데 천진한 반레의 얼굴은 예전과 다름이 없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인데 만날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유쾌했다.

“무슨 말이야. 네가 오기만 한다면, 나의 올 한 해는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것이지.”

고향 님빈에서 보내온 술을 권하며 그는 먼저 이번 여행의 일정을 다시 물었다. 베트남 전쟁시기에는 총을 들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카메라를 메고 베트남 전역을 누비며 살아온 그보다 훌륭한 여행 자문역을 찾기는 어렵다. 내일 가게 될 까마우에 대한 이야기는 가까운 식당으로 옮겨서도 계속되었다.

“베트남 남부 사람들은 손님 대접하는 걸 좋아해. 남부에서도 까마우 사람들은 특히 그래. 친구가 오면 빛을 내서라도 대접을 하는 게 그곳의 문화야. 내일 가보면 알 거야.”

야채 무침과 생새우가 나온 다음 밥을 시키려는 반레를 말리며 내가 농담을 던졌다.

“밖에 나왔으면 퍼(쌀국수)를 시켜야지 왜 껌(밥)을 시켜요.”

베트남에서 퍼는 애인을, 껌은 부인을 뜻하는 은어로도 쓰인다. 그는 한참 웃고 나서 새로운 은어를 알려주었다.

“애인은 아군, 부인은 적군. 적군과 아군이 싸우면 나는 적군 편을 들 수밖에 없어. 하지만 적군 곁에서도 늘 아군을 그리워하지.(웃음)”

서울과 호찌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한참 주고받는 사이 밤이 깊었다. 반레와 작별을 하고 새해 카운트다운을 보기위해 시내로 향했다. 거리는 오토 바이와 인파로 거대한 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야경이 근사하게 잡힌다는 렉스호텔 꼭대기의 야외 식당에도 착했을 때, 무대 위 사회자는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다. 나는 인파로 가득 찬 시청 앞 광장을 내려다보았다. 멀리 사이공강변에서 쏘아 올리는 폭죽이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새해가 시작했다. 다음 순간, 고성능 스피커에서 터져 나오는 노래는 귀에 익숙한 것이었다. 야외 식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사이의 ‘강남 스타일’에 맞춰 일제히 말춤을 추기 시작했다.

렉스호텔은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지어진 건물이다. 베트남전쟁 당시에는 미군들이 장교 숙소로 사용했다. 지금 이 호텔 옥상에서 사이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말춤을 추는 사람들은 대부분 프랑스인과 미국인들이다. 나는 옥상 난간에 기대 선 채, 말춤을 추는 그들과 호찌민 동상 뒤로 펼쳐이는 베트남 국기를 번갈아 바라보며 새해를 맞았다.







‘까마우의 보석’이라 불리는 작가,
응웬 옥뜨

까마우로 가는 교통편은 장거리 버스와 비행기가 있다. 그러나 호찌민에서 가는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까마우의 수상가옥에서 오는 해의 첫날을 보내려면 비행기를 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장거리 침대 버스는 아홉 시간이 걸리고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일반 버스는 열두 시간도 더 걸린다.

05시 55분 발 까마우행 비행기를 타려고 새벽 4시에 숙소를 출발했다. 편선 공항의 국내선 청사 앞에 기다리고 있는 비행기는 66인승 쌍발기였다. 베트남항공의 자회사인 베트남항공 서비스가 운영하는 쌍발기에는 예전의 베트남항공 로고가 그대로 붙어 있었다.



이륙 출발선에서 대기하고 있던 쌍발기는 6시10분에 활주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쌍발기의 오른쪽 프로펠러가 맹렬하게 돌아가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이내 잠이 든 나는 착륙 안내 방송을 듣고서야 겨우 눈을 떴다. 비행기에서 내려 청사까지 걸어오자 화물이 바로 뒤따라 왔다. 화물 벨트 같은 것은 없다. 청사 입구에 내려주는 가방을 직접 받아들고 까마우공항을 빠져나왔다. 숙소 입구에서 작가 응웬 옥뜨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새해 첫날을 까마우에서 보내려고 한다며 시간을 내줄 수 있는지 물었을 때, 응웬 옥뜨의 대답은 따뜻했다.

“새해 첫날부터 그렇게 멀리서 손님이 온다니, 올해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까마우 시내에 있는 숙소에서 8시 40분에 출발한 차는 10분 만에 편도 1차선의 한적한 시골 도로로 접어들었다. 지나가고 있는 마을이 자신의 고향인 바디유라고 응웬 옥뜨가 말했다. 까마우 시 외곽에 있는 이 농촌에서 태어난 응웬 옥뜨는 중학교까지밖에 다니지 않았다. 너무 심심해서 책을 읽고 혼자서 글을 썼던 그녀는 스무 살이 되던 2,000년 호찌민시 작가협회가 주최한 ‘스무 살 문학창작대회’에서 단편소설 «꺼지지 않는 등불»로 1등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등단했다. 발표하는 작품마다 화제와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소설 «끝없는 들판»은 발간 이틀 만에 초판 5천 권이 매진되면서 그녀를 베트남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들어주었다. 거룻배를 타고 오리를 치며 메콩 델타를 떠도는 한 가족의 삶을 통해 부조리한 세상과, 짓밟히면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는 아이들의 내면을 그린 이 소설은 그녀에게 영광과 함께 시련도 안겨 주었다. 까마우 성의 사상교육위원회는 ‘사상·도덕·작가 덕목’ 위반으로 그녀를 소환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끝없는 들판»에 대한 열풍을 더욱 확산시켰다. 독자들과 언론들, 또 작가들은 그녀의

작품을 옹호했다. 특히 ‘사상·도덕·작가 덕목’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선배 작가들, 이를테면 반레와 같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작가들이 어린 후배작가에게 가해지는 압력에 반기를 들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베트남 작가들은 비판 한 가운데 놓여 있던 «끝없는 들판»에 2006년 베트남작가동맹 최고상을 안겨줌으로써 응웬 옥뜨를 지켰다. 응웬 옥뜨의 고향마을을 지나 10분을 더 달리자 그녀의 외갓집이 있는 나편이 나타났다. 그녀는 고향인 바디유와 외갓집인 나편을 오가며 자랐다. 두 마을을 오가는 길 위에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대한 연민이 그녀로 하여금 글을 쓰게 만들었다는 것을 나는 나편의 들판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으로 알 수 있었다.



베트남 땅끝 마을, 덧무이

베트남 땅끝 마을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선착장 남쪽에 도착했을 때는 9시 40분이었다. 보트를 타고 메콩 강을 따라 땅끝 마을로 가는 강변에는 크고 작은 마을들이 쉼 없이 이어졌다. 큰 강가에는 큰 마을이, 작은 강가에는 작은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강둑에 잇대어 강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의 집안 풍경은 강을 향해 활짝 열려 있었다.

까마우에서 강은 어장이기 이전에 길이다. 마을과 마을을 잇는 것은 도로가 아니라 강이다. 이웃집으로 가는 교통 수단도 차가 아니라 거룻배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길에 잇대어 집을 짓듯 까마우 사람들은 강에 잇대어 집을 짓는다. 다른 지역의 도로변에 자동차

정비소와 편의점이 있듯 까마우 강가에는 선박수리소와 상점이 있다. 도로변 주유소가 도로를 등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강가 주유소들도 강을 등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크고 작은 강을 통과해서 메콩 델타의 최남단, 베트남 땅끝 마을 덧무이에 도착했다.

선착장에 내리자마자 마주한 것은 ‘까이 득(득나무)’으로 불리는 울창한 맹그로브 숲이다. 맹그로브 나무는 발밑에서부터 뿌리를 뻗치지 않는다. 강물을 따라 아시아 대륙의 머나먼 곳으로부터 여기까지 흘러온 흙이 유실되지 않도록 무릎에서부터 뿌리를 드리워 갯벌을 단단히 붙잡고 선 나무가 맹그로브다. 강을 타고 흘러온 뿔이 쌓이면서 덧무이의 땅끝은 1년에 100미터씩 늘어났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까마우에서 베트남 국경을 지키는 것은 군대가 아니라 맹그로브 숲이다. 이 국경 수비대원들은 얼마나 용감한지 드리운 뿌리를 뿌리치고 달아나는 빨(국토)을 지키기 위해 줄기에서 길게 키운 열매를 떨어뜨려 강물을 타고 추적하기까지 한다.

민물이 아닌 염분이 강한 해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맹그로브는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중부로부터 흘러들어온 까마우 사람들을 닮았다. 오랫동안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이곳으로 흘러들어온 사람들은 자신의 땅으로부터 배척당한 유배자, 권력의 횡포를 피해 도망쳐온 망명자, 먹고 살 것을 찾아 떠돌던 유민들이었다. 까마우의 강과 숲은 그들이 떠난 곳을 묻지 않았고, 까마우의 늪은 그들이 떠나 와야 했던 사연을 말없이 묻어주었다. 까마우에 사는 사람들 또한 서로의 국적과 고향을 따지지 않고 더불어 살아왔다.

맹그로브 숲길을 앞장서 걸던 응웬 옥뜨가 갯벌에서 날아다니는 신기한 물고기를 가리켰다. 평소에는 날개를 접고 있다가 물으로 이동할 때는 등 위로

날개를 펼치고 폴짝폴짝 날아다녔다. 수륙양용에다 날아다니기까지 하는 그 물고기의 이름이 ‘까 토이 로이 (나는 물고기)’라고 응웬 옥뜨가 수첩에 적어주었다. 그 물고기가 얼마나 멀리 이동하는 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이 ‘나는 물고기’는 까마우 사람들이 강과 숲을 오가며 다만 궁핍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예고편이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높이로 솟구치는 상상력의 날개를 등에 감추고 사는 이들이 까마우 사람들이란 걸 내가 깨닫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바뜨엉 늪의 수상가옥에서 보낸
새해 첫날

수로를 따라 보트를 타고 가던 우리 눈앞에 어느 순간 드넓은 바다가 펼쳐졌다. 응웬 옥뜨는 이것이 바다가 아니라고 했다. 호수도, 강도 아니라고 했다. 조수 간만에 따라 바닷물이 들고 나는 거대한 늪이라고 알려주었다. 길이가 7km, 넓이가 2km인 이 늪의 이름은 바뜨엉. 바다처럼 광활한 늪에는 수상가옥들이 작은 섬처럼 드문드문 떠 있었다. 지금까지 보아온 수상가옥들은



강변에 한쪽 팔을 걸치고 있었는데, 바뜨엉의 수상가옥은 어디에도 팔을 걸치지 않고 늪 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다. 보트가 멈춘 곳은 바뜨엉에서 가장 오래된 수상가옥의 하나인 홍 씨의 집. 건장한 체격을 지닌 장년의 홍 씨가 터뜨리는 웃음에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그의 집안은 물의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집 한 쪽에는 닭장과 돼지우리도 있었다. 그러나 내 시선을 가장 끈 것은 텃밭이었다. 폐기한 나무 보트에 흙을 채운 텃밭에서는 상추와 파가 자라고 있었다. 그 파릇한 초록색이 바뜨엉 늪의 회색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잔물결을 일으키며 출렁거리는 바뜨엉 늪의 물빛은 검은 빨과 황토가 합성된 무채색이었다. 홍 씨의 목조 수상가옥도 회색이었다. 사방이 온통 무채색으로 둘러싸인 늪에서 자라고 있는 파릇한 채소는 선명한 생명력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물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물 위에서의 삶을 선택한 이유를 묻자 홍 씨는 웃기부터 했다.

“다 좋죠. 조용하고,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잠을 수 있는 물고기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걱정할 게 아무 것도 없지요.”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인근의 물에 사는 이웃들이 보트를 타고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배를 타지 않으면 이웃 나들이를 할 수 없는 것이 유일한 불편함이라고 홍 씨는 말한다.

그사이 부인이 술과 안주를 내왔다. 술잔이 오가는 사이로 나는 홍수가 나가거나 태풍을 만나면 수상가옥이 위험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홍 씨는 손을 내저었다.

“여긴 홍수가 나지 않아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바다가 바로 다 받아내니까. 태풍은 평균 80년에 한번이 올 뿐이에요. 오십이 넘었지만 아직 한 번도 태풍을 본 적이 없어요.” 놀러온 이웃 나요 씨가 그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내 나이 올해 예순 일곱인데, 지금까지 태풍 없었지.”

옆에 앉은 탄 씨도 한마디 더 보탰다.

“내 나이 일흔인데 지금까지 없었어.”

식사는 진수성찬이었다. 굵고 삶고 볶은 새우와 게, 생선이 끊임없이 나왔다.

“이 물고기들은 모두 바로 이 밑에서 전혀 올린 거예요. 싱싱한 거죠. 새해 첫 손님인데 맘껏 드세요.”

주인과 손님, 이웃 사람들이 어울려 대낮에 시작한 술판은 저녁을 먹고 나서도 계속됐다. 새해 첫날부터 멀리서 찾아와 너무 폐를 끼친다며 술자리를 끝내보려 했지만 씨도 들어가지 않았다.

“손님 접대는 남부 사람들이 최고지요. 그중에서도 까마우 사람을 능가할 자들은 없을 거요.”

쫄쫄이 버티고 앉아 일흔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권하는 술잔을 사양하지 않고 받아마시던 탄씨가 홍 씨의 말을 받았다.

“내 집에 온 손님은 배가 차기 전에 대문을 나갈 수 없다, 취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는다. 이게 까마우의 손님 접대 원칙이요.”

큰 술통에 든 술이 다 떨어지면 끝내겠거니 하고 기다렸는데, 홍 씨는 또 한 통을 들고 왔다. 안주가 다 떨어지면 끝내겠거니 하고 버티던 나는

밤 11시가 넘는 시각에 홍 씨가 닭장에서 닭 날개를 뜯어쥐고 나오는 것을 보고 기절할 뻔 했다. 결국 자정이 넘는 것을 보고 나는 기권을 선언한 뒤 해먹에 몸을 누였다. 배도 차고 술도 취했다. 눈을 가로지르는 밤바람이 해먹에 누운 내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몇 시였을까. 깜빡 잠이 들었던 나는 모터 소리에 눈을 떴다. 홍 씨의 친구들이 한 사람씩 자신의 보트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아스라이 멀어지던 모터 소리를 들으며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등에 날개를 감춘 사람들

빗소리에 잠이 깬 건 새벽녘이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바쁘엉 늪을 채우고 있는 것은 여전히 어둠이었다. 어둠이 눈에 익자 수상가옥 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보였다. 모기장 안으로 기어 들어가 홀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널빤지 밑에서 찰랑거리는 물결 소리를 들으며 나는 내가 살아내야 할 또 한 해를 생각했다.



바쁘엉 늬을 덮고 있던 어둠이 걷혔다. 수상가옥의 아침은 홍 씨의 큰아들과 함께 찾아왔다. 스물일곱 살인 장남 룡은 결혼을 해서 물에 나가 살지만 이른 아침이면 수상가옥으로 와서 그물을 돌보고 저녁이면 다시 돌아간다. 큰아들이 보트를 타고 집 주변에 친 그물을 살피는 동안 홍 씨는 선착장에 서서 한 마디씩 간섭을 하며 아령을 들고 근력운동을 했다. 페인트 깡통에 시멘트를 채워 만든 제법 큰 아령을 든 그의 몸은 단단해 보였다.

아침을 먹은 홍 씨는 전화기를 들고 친구들을 부르기 시작했다. 어떤 친구는 거룻배를 타고, 어떤 친구는 모터가 달린 보트를 타고 왔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술자리가 벌어졌다.

홍 씨 가족이 집 주변에 그물을 쳐

벌어들이는 한 달 평균 수입은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정도였다. 베트남 농어촌에서는 작은 돈이 아니다. 누구나 바쁘엉 늬에 집을 짓고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를 묻자 홍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누구나 원하면 할 수 있어요. 바쁘엉 늬은 자신의 품으로 찾아든 것들을 내치지 않으니까. 사람이건 물고기건 그것이 무엇이든.”

까마우가 유배자와 도망자, 유민의 땅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고 있는데 홍 씨가 덧붙였다. “그러나 군청에서는 하나의 조건을 달지. 언제든지 나가라면 바로 나가야 한다는 것.”

“불안한 삶이군요.”

“불안한 삶... 불안하지 않은 삶은 어떤 것이죠?”

예기치 않은 반문에 나는 잠시 당황했다. 말문이 막힌 나 대신 그가 내놓은 대답은 쉬웠다. “나가라면 나가면 되고, 집은 나가서 또 지으면 되죠. 여기 일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는 둘러앉은 친구들을 둘러보며 호탕하게 웃었다. “그럼, 그럼.” 그의 친구들이 맞장구를 쳤다. “열흘이면 다 지을 수 있어.”

그래도 매달 수입과 대출 이자를 계산하고, 보험에 들고, 나이 들어 받게 될 연금을 따져보며 사는 사람은 궁금했다. 매일 아침부터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시며 노는 시간을 줄이고 그물을 지금보다 두 배로 치면 수입도 두 배가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를 물었다. 그는 질문이 이상하다는 듯 나를 바라봤다.

“돈은 쓸 만큼 있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친구들과 어울려 즐겁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탄 씨가 홍 씨의 말을 거들었다.

“베트남, 또는 까마우 사람들 전체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 바쁘엉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산다고 봐도 될 거예요. 집 주위에 먹을 것도 충분하고 사람들 이동도 적어서 그런 것 같아.”

탄 씨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지난 70년 동안 늘어난 집은 단 세 채였다. 누가 세상을 떠나거나 결혼을 하면 2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일을 나눈다고 했다. “아직까지는 사는데 돈보다 사람이 더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는 셈이지요.”

순간, 나는 그들의 등에 감추고 있던 날개가 퍼지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보험과 적금, 연금 문서가 미래를 보장해줄 것이라 믿으며 늘 더 가지려고 악착을 떠는 이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날개다. 그들의 등에는 하루를 영원으로 받아들이며 즐기고, 영원을 하루로 받아들이며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만이 지닌 날개가 감추어져 있었다.







해먹의 멋, 냉커피의 맛

까마우 시내로 돌아오다 길가의 카페에 들렀다. 작은 입간판에는 ‘Ca Phe Vong Khanh Ha’라고 쓰여 있었다. 해먹 카페 칸하. 이름처럼 카페 바깥에 걸려 있는 해먹에서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나도 얼음 커피 한 잔을 시키고 해먹에 누웠다. 응웬 옥뜨가 주인의 일손을 거들었다. 카페 주인인 홍아주머니와 응웬 옥뜨는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

“전쟁 시기에 홍아주머니의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를 먹여 살렸어요.” 응웬 옥뜨의 아버지가 전시에 바뜨엥에서 활동한 게릴라였다는 것을 나는 처음 알았다. 바뜨엥이 까마우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이라는 걸 홍아주머니가 다시 일깨워준다.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잡아서 어획고가 줄었지만 전쟁 때만 해도 한번 그물을 건으면 1톤이 넘는 고기가 올라왔다고 했다. 또 마음 넉넉한 바뜨엥 사람들은 전쟁 동안 한 집에서 두세 명의 게릴라를 맡아서 뒷바라지를 했다. 응웬 옥뜨의 아버지는 자식을 열 명이나 둔 집으로부터 뒷바라지를 받았다.

바로 그 집의 다섯째가 홍아주머니였다. 나는 해먹에 몸을 실은 채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두 사람을 물끄러미 지켜 보았다. 이야기를 알아듣진 못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 사이인지는 눈빛 만으로도 충분히 읽어낼 수 있었다. 전쟁이 끝나고, 살아남은 그들은 그렇게 인연을 이어가며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었다. 호찌민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덧무이의 맹그로브와 나는 물고기, 바뜨엥의 수상가옥과 사람들이 버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미발전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내 등에는 날개가 없어서 그들이 보여준 삶의 형식을 따라갈 순 없지만, 그 삶을 지켜보며 누워있었던 해먹 하나는 챙겨서 돌아가고 싶었다. 반레는 나를 위해 시장에서 해먹 몇 개를 골라주었다. 10초 만에 해먹을 기둥에 걸고, 5초 만에 해먹을 걷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다. 가게 앞 전주에 해먹을 땀다 푸는 그의 능란한 손동작에 감탄을 터뜨리자 반레 답지 않게 자기자랑을 한다.



“게릴라들은 지금도 밀림에 들어가면 뛰든다 할 수 있어. 손도끼 한 자루만 있으면 집도 짓고, 먹고 살 수도 있단니까. 내일이라도 너희들 다 데리고 가서 내가 먹여 살릴 수 있는데, 갈 거야?” 그렇게 말하는 반레의 얼굴에 생기가 넘쳤다.

헤어지기 전, 커피 한 잔에 5만동이나 받는 커피숍 따위엔 절대 가지 않는 반레와 함께 나는 노천 카페에 앉아 5천동 (2백 5십 원)짜리 얼음 커피를 마셨다. 그와 함께 마시는 진하면서도 달달한 이 베트남 커피의 맛은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다.

겨울이 지나가면 나는 어디인가에 반레가 골라준 해먹을 걸고 누워서 오늘 호찌민의 거리에서 마신 커피의 향내를 떠올릴 것이다. 커피를 마시는 우리들 앞으로 흐르던 오토바이의 물결도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맹그로브와 나는 물고기, 수상가옥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반레가 가르쳐 준 방법으로 해먹을 걸고, 걷으면서, 나는 사람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이다. ■





날씨와 여행 시기

남부의 계절은 11월~4월이 건기, 5월~10월이 우기다. 1년 중 가장 더운 때는 3월과 4월이다. 이때는 햇볕이 워낙 강렬해서 현지인들도 꼭 필요한 용무가 아닌 이상 거리를 돌아다니지 않는다. 우기에 내리는 비는 스콜이기에 짧게는 5분, 길게는 두 시간 정도 퍼붓고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햇볕이 내리쬐인다. 폭우이라던 우산은 소용없고, 잠시 건물 안으로 피해있는 것이 상책이다. 여행하기에는 건기보다 우기가 더 좋다. 3~4월에 여행을 하려면 북부가 좋다. 북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으며, 6~8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한국의 가을 날씨와 비슷하다.



필수 준비물

반팔 셔츠, 긴 셔츠, 샌들, 모자, 썬블록, 모기 패치, 상비약



물가

1인 한 끼 식사를 5~10만동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시장이나 노점에서는 2만 동 정도에 식사가 가능하다.



길 건너기

횡단보도가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무단횡단을 한다. 신호등도 있지만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무단횡단 시, 오토바이가 온다고 뛰거나 갑자기 멈추는 행동은 금물이다. 좌우를 살피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행자의 걸음 속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천천히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야 한다. 뛰거나 갑자기 멈추면 오토바이의 주행 흐름이 끊어져 사고를 당할 수 있다.



호찌민에서 까마우까지, 베트남 남부 여행 팁		Information
	공항 택시 공항을 나오면 택시를 안내해 주는 안내자부터 찾자. 호객하는 일반 택시 기사와 구분이 잘 되지 않는데, 보통 안내자는 수첩 같은 것을 들고 있다. 그래도 판단이 잘 서지 않으면, 잠시 숨을 돌리면서 남들이 택시를 잡는 모습을 살펴며 누가 안내자인지 가려낼 것. 택시 요금은 회사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공항에서 시내 배낭족거리를 기준으로 약 15만 동 내외이다. 공항을 빠져나올 때 게이트비 1만 동은 별도로 내야 한다. 1천 동 단위의 우수리는 보통 팁으로 주는 것이 관행이다.	환전 베트남에서는 큰 달러(100, 50달러)와 중간 달러(20, 10, 5달러) 작은 달러(1달러)의 환율이 모두 다르다. 때문에 한국에서 환전해 갈 때는 큰 달러로 바꾸는 것이 좋다. 한국에서 직접 베트남 동으로 환전할 수도 있지만 환율이 낮다. 또 낡은 달러는 베트남 현지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환전할 때 유의해야 한다. 베트남에서 환율을 가장 높게 쳐주는 곳은 금은방이다. 시장 주변에 가면 금은방이 많이 있고, 공식 환율보다 약간 높은 가격으로 환전해 준다. 단, 시장 주변에는 소매치기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가장 안전하게 환전할 수 있는 곳은 은행이나 호텔이지만, 호텔의 경우 수수료를 떼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일단 한국에서 달러로 환전을 했다면, 베트남 현지 공항 환전소에서 50불 정도를 먼저 환전하는 게 좋다. 택시비를 달러로 지불할 경우 환율을 제대로 쳐주지 않을 뿐 아니라, 바가지질 쓰기 십상이다. 50만 동 짜리와 2만 동 짜리 지폐의 색깔이 비슷해서 여행객들은 종종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자.
	시내 택시 호찌민에서 가장 유명한 택시는 ‘Vinasun’ 이고, 베트남 전역에서 가장 유명한 택시는 ‘Mailinh’이다. 7인승 택시도 있는데, 4인승 보다 요금이 약간 더 비싸다. 호찌민 시에는 30여 개 회사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는데, 요금제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 10분 정도의 거리에 대략 5만동 정도의 요금이 나온다. 그런데 회사마다 요금 계기판의 표시 방식이 달라서 관광객이 사기를 당하거나 혹은 택시 기사가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요금이 50,000동이라면, 계기판엔 뒷자리 000을 생략하고 ‘50’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50.0’으로 표기된 것이 그 다음이다. ‘50.000’이 표기된 경우는 문제의 소지가 없지만 간혹 ‘50.00’으로 표시된 것도 있어서 관광객 입장에선 상당히 혼란스럽다. 승차 시간이 20분을 넘지 않았다면 제일 첫 숫자를 만 단위로 생각하면 된다.	

	투어 예약 호찌민 시 배낭족 거리는 Pham Ngu Lao, De Tham, Bui Vien 거리에 조성되어 있다. 가장 유명한 여행사는 De Tham 거리의 Sinh Cafe와 Kim Cafe다. 이 두 곳에서 중간 경유지를 거쳐 하노이까지 갈 수 있는 오픈 투어 버스를 운행하며, 호찌민 시 시내 투어, 호찌민 시-구찌터널 당일 투어, 메콩강 투어, 판티엣-무이네 투어 상품을 판매한다. 호찌민에서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가는 버스도 운행한다.	아맘 cafe.daum.net/doanhnhanhaxhoi t. 070-7554-5670(베트남 사무소) 까마우 호텔 Hotel Quoc Te (www.hotelquocte.com) Hotel Anh Nguyet (www.anhnguyethotel.com/trang-chu) 교민 잡지 및 여행 정보 사이트 신짜오 베트남 (www.chaovietnam.co.kr) 라이프 프라자 (vietnamlife.co.kr) 베트남 투데이 (www.vietnam2day.com) 베트남 뉴스채널 (www.vnnews.kr) 베트남여행총국 (www.vietnamtourism.com) 호찌민 병원 Columbia Asia Medical Center (한국인 간호사 24시간 상주) t. 08-3823-8888 8 Alexandre de Rhode, District 1 FV Hospital 6 Nguyen Luong Bang, District 7 긴급 구호 전화: 115
	까마우 여행 까마우에 가려면 면선넛 공항에서 하루 한편 있는 새벽 5시 55분발 비행기를 타거나, ‘Ben xe mien tay(서부 지역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시외 버스를 타야 한다. 호찌민에서 까마우까지 버스로 8시간이 걸리는데, 터미널 호객꾼들에게 종종 요금 사기를 당하거나 행선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자. 하지만 베트남어에 익숙하지 않다면, 한국어 투어가 가능하며 베트남 공정여행으로 유명한 사회적 기업 아맘(A-MAP)을 찾는 것이 편리하다. 까마우 투어 예약은 까마우 현지 호텔에서 하면 된다.	 

어린 것들 잇몸에 우우우 돋는 젖니처럼

жат 난 송아지 물끄러미 세상을 바라보듯

글·김화성(동아일보 스포츠 전문기자)

고독하십니까,
운명이옵니다

몹시 그립고 쓸쓸하고, 외롭습니까,
운명이옵니다

고립무원, 온 천하에 홀로
알아주는 사람도 없이 계시옵니까
그것도 당신의 운명이옵니다

아, 운명은 어찌할 수 없는
전생의 약속인 것을
그곳에 그렇게
민들레가 노랗게 피어있는 것도
이곳에 이렇게
가랑잎이 소리 없이 내리는 것도

조병화, 〈운명—외로운 벗에게〉

갑오년이라고 뭐 별거 있을까? 1,200년 전 그 해에도 눈 오고, 바람 불고, 밤하늘 둥근 달은 발도 없이 동에서 서로 은근슬쩍 굴러갔을 터. 사람들은 쫓고, 까불고, 길꺾대며 한 세상 살다 갔으리라. 왜 없었겠는가, 분노 가득한 핏발선 눈으로 세상 뒤엎으려 했던 사람들이. 그저 소처럼 묵묵히 참으며, 어떻게든 새끼 키우고, 내 가족 아끼고 공경하며, 불덩이 가슴 다독다독 추슬렀을 가장들이. 하지만 그게 어디 마음 대로 되는가. 나무가 가만히 있고자 해도 바람이 봐두던가. 저 산잔등의 하얀 억새들도 미친 돌개바람이 머리채를 사정없이 잡아채 산발로 만들어 버리지 않던가.

120년 전 갑오농민전쟁 때도 그저 죄없는 백성들만 죽어나지 않았던가. 흑싸리 껌데기 들은 어디에도 한 몸 의지할 데가 없었다. 지배자들은 제 몸, 제 식구 챙기기에만 바빴다. 흥! ‘조선은 중국 토크밀의 목젖 같고, 일본 옻구리의 비수와 같다’고? 푹! 과연 그러했는가? ‘목젖’과 ‘비수’라는 이점을 살리기는커녕 친러파, 친일파, 친청파로 나뉘어 박 터지게 싸울 뿐이었다. 조선 삼천리만도가 ‘지구촌 열강의 호구’요 ‘순한 토끼 새끼’가 돼버리지 않았던가. 한마디로 만만한 게 ‘흥어 좇’ 아니었던가.

죽어서도 생각하고 있는 로댕

새날이 부옻하게 동살이 뒹다. 아니잠깐! 따지고 보면 ‘현 날’이 어디 있을까. 삼백예순 다섯 날이 모두 새날이다. 학명선사(1867~1929)의 가르침은 하나도 틀림이 없다.

‘묵은해니 새해니 구별할 것 없네
겨울 가고 봄 오니 해바뀔 듯하지만
여보게 저 하늘이 달라졌는가
우리가 어리석어 꿈속에서 사네’.

오귀스트 로댕의 조각 〈생각하는 사람〉(1902)을 생각한다. 그렇다. 생각할 줄 아니까 인간이다. 그런데도 인간은 왜 때때로 ‘똑같은 바보짓’을 되풀이할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도 그 짓을 반복할까. 아무래도 그건 한마디로 탐욕과 이기심 때문이다. 죽어도 남 잘되는 꼴은 눈뜨고 못 본다. 죽어도 같이 죽어야 속이 시원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온통 고뇌에 찬 모습이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온 몸에서 힘겹고 우울한 분위기가 스멀스멀 물안개처럼 피어난다. 허리를 30도쯤 구부리고, 얼굴은 그 연장선상에서 약간 더 숙이고 있다. 오른손 팔꿈치는 왼 무릎에 얹고, 오른손 등은 앞쪽으로 90도 굽혀 턱을 괴었다. 턱을 핀 손끝은 배춧잎 같이 축 처져 목 언저리까지 닿았다. 왼손은 오른손 팔꿈치 옆 왼 무릎에 역시 꿇는 물에 데친 양배추 잎처럼 축 늘어진 채 아무렇게나 놓여있다. 진한 눈썹 아래 두 눈은 뜨고 있다. 온 몸의 근육이 그 ‘단단하다는 갈매나무처럼’ 돈았다.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은 마른 명태나 사막의 미라처럼 썩켜이 말랐다. 뱃살은 하나도 없다. 두툼한 목은 힘깨나 썼을, 영락없는 레슬링 선수의 뒷덜미다.

로댕은 말한다. “이 작품이 왜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남자의 머리, 찌푸린 이마, 벌어진 콧구멍, 악문 입술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의 팔과 등 다리의 모든 근육, 움켜진 주먹, 오므린 발가락도 그가 생각하는 중임을 말해준다.” 한 때 로댕의 비서였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도 덧붙인다. “그는 말없이 생각에 잠긴 채 앉아 있다. 그는 행동하는 인간의 모든 힘을 기울여 사유하고 있다. 그의 몸 전체는 머리가 되었고, 그의 혈관에 흐르는 피는 뇌가 되었다.” 〈생각하는 사람〉은 로댕의 무덤에서 묘비 역할도 하고 있다. 조선 왕릉의 묘비석이나 마찬가지로. 로댕은 죽어서도 계속 ‘생각에 빠져 있는 셈’이다.

어째, 찬찬히 생각 좀 해볼까나

한국에도 ‘생각하는 사람’ 조각상이 있다.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국보 제78호, 국보 제83호)이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다. 보기만 해도 편안하고 넉넉하다. 행복에 겨운 얼굴이다. ‘강 같은 평화’가 잔잔하게 피어오른다. 무념무상. 누가 봐도 생각을 비워 열반에 든 모습이다. 오른 팔꿈치는 왼쪽 다리에 올려놓은 오른 무릎에 가볍게 얹혀 있다. 로댕의 그것처럼 굳이 허리를 뒤틀어 왼 무릎에 얹지 않았다. 손을 오른 뺨에 살짝 대고, 어린아이 같이 천진한 표정을 짓고 있다. 우아하다. 근육도 배롱나무 줄기처럼 부드럽고 매끈하다. 어디에도 힘줄은 돌지 않았다. 손가락은 작고 통통하지만 금방이라도 움직일 듯하다. 가늘고 가는 눈은 지그시 감고, 양 입가에 살짝 웃음을 머금었다.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의 웃음이 은근하고 신비로운 미소라면, 〈서산마애삼존불상〉(국보 제84호)의 웃음은 방글방글 불이 터져나갈 듯한 함박웃음이다. 세 부처님 가운데 현재불인 석가모니불은 탐스러운 연꽃 대좌에 늠름히 서서 너그럽고 또 너그러운 미소를 짓고 있다. 그 오른쪽에는 과거불인 제화갈라보살이 자그마한 키에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약함 같은 것을 쥐고 있다. 가늘게 뜯 작은 눈과 웃음 가득한 도톰한 얼굴이 포근하다. 석가모니불 왼쪽은 미래불인 미륵반가사유상이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가웃이 기울이면서 손가락을 볼에 찍고 귀엽게 웃고 있다.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과 웃음이 닮은꼴이다. 반가사유상은 오른 다리를 왼 무릎에 올려놓고 깊은 사색에 잠긴 모습의 불상을 이르는 말이다.

새물내 물쎈 나는 갑오년 새해아침. 찬찬히 생각 좀 하며 느릿느릿 살고 싶다. 언젠가부터 사는 게 혁혁 숨이 찬다.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도 만날 남들에게 등 떠밀려, 혹은 남들이 아니까, 그렇게 하면 편하니까, 그런 것들을 핑계로 일삼는다. ‘생각’이란 단어는 사전에만 있는가, 조금만 생각하려 해도 머리에 쥐가 난다. 쫓쫓. 왜 그렇게 살아왔을까. 반가사유상 같은 사색이야 언감생심 꿈도 꾸지 않는다. 그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반의반만 가도 좋겠다. 고뇌에 차서 생각에 빠진 모습이 얼마나 ‘인간적’인가. 온 신경을 ‘생각이라는 화두’에 몰입한 그 활시위처럼 팽팽한 신경과 우뚝 우뚝 돋은 근육들. 온통 쩡그려 주름진 얼굴과 웅크린 허리와 팔 다리 그리고 휘어진 등판.

예전에 경주 불국사현관에서 悟道者不入(오도자불입)이라는 글귀를 본 적이 있다. ‘깨친 자는 들어오지 마라.’ 그렇다. 저마다 뭔가 모자라거나 못났기에 신을 찾는 것이다. 보살이나 천사가 굳이 뭐 하러 절이니 교회니 성당을 찾아다닐까.

어떤 존재감

사람이란 참 간사한 동물이다. 쥐꼬리 만한 지위에 올라도 세상 다 가진 듯 으스스한다. 완장을 차는 순간 확 달라진다. 철딱서니 없는 ‘두 발 달린 짐승’이란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니다. 자전거만 타도 높아진 줄 알고 걸어가는 사람을 낮춰본다. 시선이 자전거 안장만큼 높아진 것이다. 이른바 ‘시선의 권력’이다. 그런데 개도 사람들이 낮춰보면 사납게 짖는다. 사람 눈이 자기보다 위에 있어서 그렇다. 무릎을 꿇고 앉아 개와 눈높이를 맞추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부드러운지나.

비아냥대거나 조롱이 판을 친다. 모두들 빙통그리졌다. 하는 일마다 어깃장을 놓고, 불특정다수에게 밀도 끝도 없이 악담과 욕설을 퍼붓는다.

〈청산별곡〉한 구절마냥 도대체 ‘어디다 던지던 돌인고! 누구를 맞히려던 돌인고!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울고 있는’ 중생이 너무 많다. ‘일본 사회는 일상(日常)이, 중국 사회는 돈과 성공이, 한국 사회는 분노와 증오가 지배하고 있다’던가. 한국은 뽕! 터지기 직전의 풍선 같다. 자그마한 일에 목숨 거는 사람이 갈수록는다. 참는 사람은 바보가 된다. 카악! 독사가 대가리를 세우고 독침의 혀를 내쫓듯이 일단 속에 있는 분노를 내질러야 대접받는다. 무섭다. 끔찍하다.

배추가 김치가 되기 위해서는 다섯 번 죽어야 한다. 밭에서 뽑힐 때 죽고, 칼로 다듬을 때 죽고, 소금에 절일 때, 양념을 바를 때, 김장독에 묻을 때 죽는다. 그렇게 다섯 번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다. 그 뒤에도 또 얼마간 곱삭고 발효돼야 비로소 맛있는 김치가 된다.

사는 것도 그렇다. 한 고개 넘으면 또 한 고개가 기다린다. 그렇게 여러 고개를 넘으면서 사람도 김치처럼 맛있게 익는다. 누가 굳이 안알아줘도 만족할 줄 안다. 돈과 권력도 없지만 그런 사람 에겐 새록새록 향기가 난다. 꽃에 벌 나비가 모여들 듯 사람들이 구름처럼 꾸역꾸역 다가 온다. 평소엔 있는 듯 없는 듯하지만, 없어지면 그 빈자리가 태산만큼이나 커 보인다.

‘산 그리는 사람은 있어도
하늘 그리는 사람은 없다
그래도 하늘은
산 위에 그려져 있다

바다 찍는 사람은 있어도
하늘 찍는 사람은 없다
그래도 하늘은 바다 위에 찍혀 있다.

이상문, 〈그래도 하늘은 있다〉

나는놈 위에 노는놈

뛰는놈 위에나는놈 있고, 나는놈 위에 노는놈 있다. 사람은 좀 놀아야 한다. 노는 게 소통이다. 같이 놀려면 마음이 맞아야 한다. 그래야 즐겁고, 재밌고, 신난다. 그러려면 말이 통해야 한다. 우선 남의 얘기를 잘 들어야 통한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사려 깊게 헤아려야 통한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결코 거창하지 않다. 관심이 곧 사랑이다.

우리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놀러 태어났다.’ 죽어라 일하러 세상에 온 게 아니다. 열심히 산다는 건 신나게 논다는 뜻이다. 일주일에 닷새 놓고 이틀 일하면 어디 덧나는가. 할 수만 있다면 일 안하고 만날 놀면 얼마나 좋은가. 돈이 없어 못 논다는 건 부엌 강아지 방귀 끼는 소리다. 풀 뜯어먹고 용트림 하는 소리다. 아이들이 어디 돈이 많아서 신나게 뛰어노는가. 동전 한 푼 없어도 밥 먹으라는 소리가 안 들릴 만큼 정신없이 잘만 논다. 놀다보면 분노니 증오니 그런 것들은 사라진다. 그 ‘창의’라는 것은 뇌가 지루할 때 나온다. 빈둥빈둥 놀다가 하품이 나올 때 그때 벼락 치듯이 온다.

논다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논다. 왜냐하면 그것은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아무 조건도 없기 때문이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떤 속된 것도 전혀 필요 없기 때문이다. 한 생과 한 생이 ‘속수무책’으로 통하기 때문이다. 한 우주와 한 우주가 ‘속수무책’으로 성큼 다가서 생글 생글 마주보기 때문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으리으리한 것이다
회색소굴 지하셋방
고구마포대 속 그런데 살아도
사랑한다는 것은
얼굴이 썩어들어 가면서도
보랏빛 꽃과 푸른 덩굴을 피워 올리는
고구마 속처럼 으리으리한 것이다

김승희, 〈사랑의 전당〉

ㅂ



독일 NO.1 아웃도어의 기술로 탄생하다.
Damrey Down Jacket

혹한을 견딜 수 있는 700FP 구스다운과 방수소재, 특수 봉제기술, 거친 환경을 이겨내는 특수 벨크로와 플리스 소재 덧댄처리로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에 적합합니다.

겨울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눈을 즐기게 될 것이다

Jack
Wolfskin

AT HOME OUTDOORS



CÁ MAU



LS Networks

140-702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LS Yongsan Tower, 92 Hangang-Daero, Yongsan-gu, Seoul, Korea #140-720